

농어업인 복지실태

보건의료 |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조사보고서 2016

Survey on the
Rural well-being



농촌진흥청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37호

발 행 일 2017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이진모

편 집 농업환경부장 안옥선, 농촌환경자원과장 김미희

연구 원 농촌진흥청 최윤지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윤순덕 농업연구관, 최정신 농업연구사,
이선민 연구원, 윤민혜 연구원, 신효연 박사후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강구민 선임연구원,
김아영 연구원, 조이슬 연구원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대구대학교 김경화 교수, 수원대학교 박진우 교수,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전 화 063-238-2645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978-89-480-4457-7 93520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해온 농촌생활지표조사(2000~2012년)와 통합 조정되어 실시된 세 번째 조사로서 이전 조사와는 다른 체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조사들을 아우르면서도 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본 개편 및 농촌 통계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자는 2016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52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2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5)로 문의 바람.

조사결과 요약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 8. 28.)

👉 조사 연혁

- 2004. 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 8~11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 2008. 3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2008. 10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 3 :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 9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 2014. 9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5. 9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6. 8 : 통계승인번호 변경 제11437호('04. 8. 31.) → 제114037호('16. 8. 28.)
- 2016. 9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6년 조사체계

| 표1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가구
	표본규모	● 전국 농어촌 지역 3,952가구(응답률 98.6%)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16년 9월 1일~9월 30일(1개월, 추석연휴 제외)

➡ 2016년 조사내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2개 부문, 68개 항목

| 표2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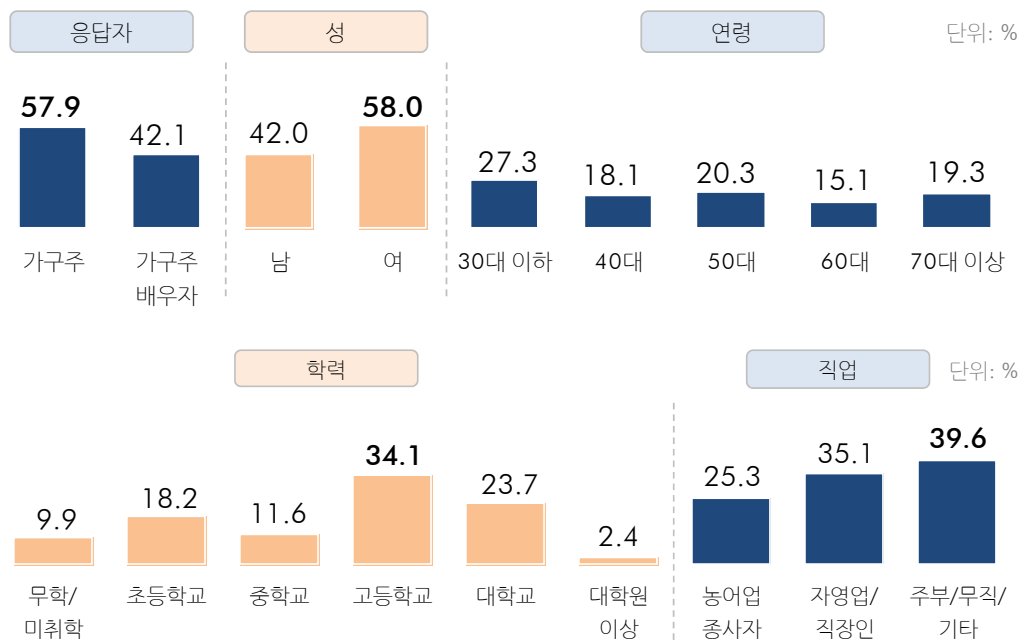
구분	조 사 항 목
보건의료	의료기관·공공의료시설·응급실 이용실태 등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	국민건강보험·공적연금 가입실태, (정신)건강,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사상 지위
생활 전반	주택여건, 이주실태,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행복감 등

2 주요 조사 결과¹⁾

일반 사항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가 57.9%, '여성'이 58.0%, [60대 이상] 연령층이 34.4%, [고등학교 이상]이 60.2%, '농어업종사자'가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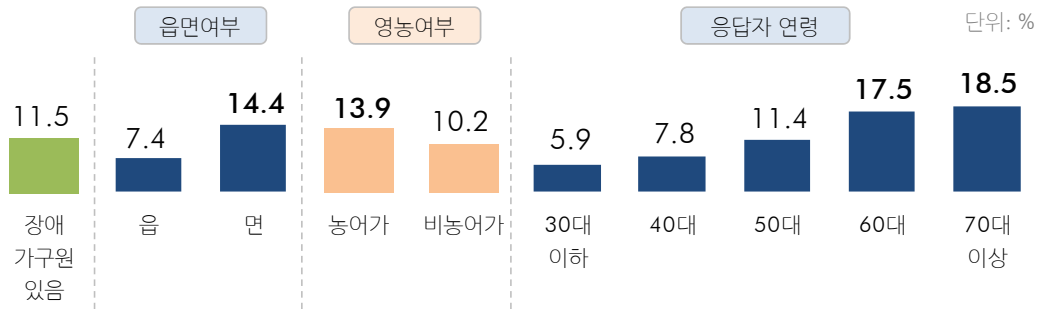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 조사대상가구 특성

- 농어가가 35.5%, 평균 가구원 수는 2.9명, '2세대 가구'가 51.3%

👉 장애 가구원 유무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5%로,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음



- '가구주' 본인이 55.1%, 주된 장애종류는 '지체장애'(62.6%), 장애 급수는 '3급'(23.6%) 비율이 높음

👉 결혼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3.1%,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배우자'가 70.3%이었으며,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 국가는 '베트남'(71.1%) 비율이 높음

단위: %(명)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합계 (162)		11.9	3.6	71.1	2.8	3.8	5.8	0.7	0.3
읍/면	읍 (96)	2.6	4.8	87.6	0.0	2.8	1.2	1.1	0.0
	면 (65)	25.6	1.8	46.9	7.0	5.4	12.6	0.0	0.7
영농 여부	농어가 (56)	22.3	2.1	52.5	7.3	4.9	10.9	0.0	0.0
	비농어가 (106)	6.5	4.3	80.9	0.5	3.3	3.1	1.0	0.4

생활전반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4.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2.5%), '다세대주택'(5.1%), '연립주택'(3.0%) 순

단위: %



-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10.9%), '보증부 월세'(4.6%), '무상'(4.1%), '월세(사글세)'(2.2%) 순

주택의 건축년도

- '2000년대'(34.9%), '1990년대'(25.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2%), '1950년대 이전'(7.7%), '1970년대'(7.5%), '1960년대'(4.3%)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30.7%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함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4.8년

단위: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839)		24.8년	7.7	4.3	7.5	11.2	25.9	34.9	8.6
읍/면	읍 (1,603)	19.7년	3.8	2.0	2.8	8.2	25.8	48.1	9.2
	면 (2,236)	28.4년	10.5	5.9	10.8	13.3	25.9	25.4	8.2
영농 여부	농어가 (1,357)	29.7년	10.5	6.2	11.3	14.5	29.8	21.9	5.8
	비농어가 (2,482)	22.1년	6.2	3.2	5.4	9.3	23.7	42.0	10.1

👉 주택수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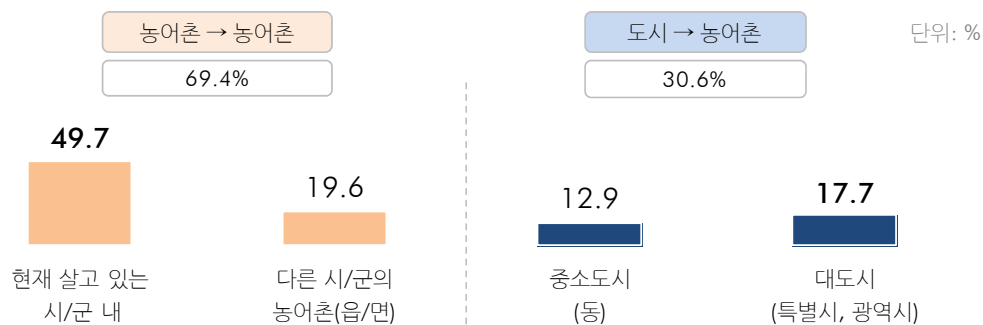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한 적이 있는 가구 비율이 26.4%이었으며, 이 중에서 '리모델링'(19.2%)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축'(4.3%), '증축'(2.9%) 순
- 주택의 수리 후 평균 기간은 10.2년

단위 : %(명)

구분		수리한 적 있음	개축	증축	리모델링	수리한 적 없음
합계		(3,952) 26.4	4.3	2.9	19.2	73.6
읍/면	읍	(1,636) 15.5	2.9	1.2	11.4	84.5
	면	(2,316) 34.1	5.3	4.1	24.6	65.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31.2	7.4	5.1	18.6	68.8
	비농어가	(2,549) 23.8	2.6	1.7	19.4	76.2

👉 현 거주지 고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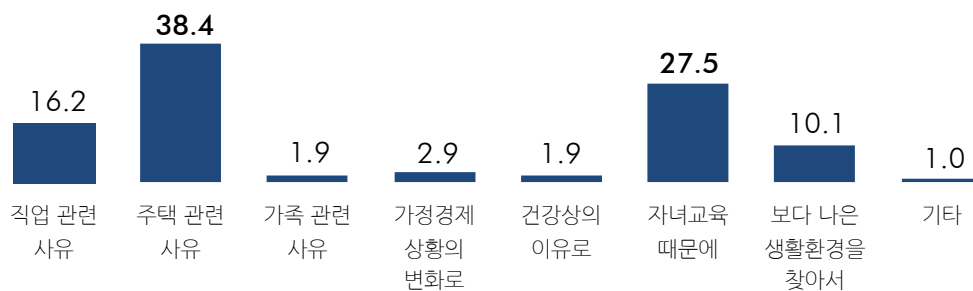
- '이주했다'(44.3%),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8.4%) 등 [이주민]이 52.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7.3%) 보다 약간 많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9.7%),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9.6%)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69.4%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7%), '중소도시(동)'(12.9%)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30.6%) 보다 많음



☞ 향후 이주의향

- 이주 의향층(9.5%)의 선호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61.9%),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2.8%),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0.9%) 등으로,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65.5%
- 이주 희망 이유(n=376)는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38.4%), '자녀교육 때문에'(27.5%)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16.2%),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0.1%),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2.9%),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건강상의 이유로'(각 1.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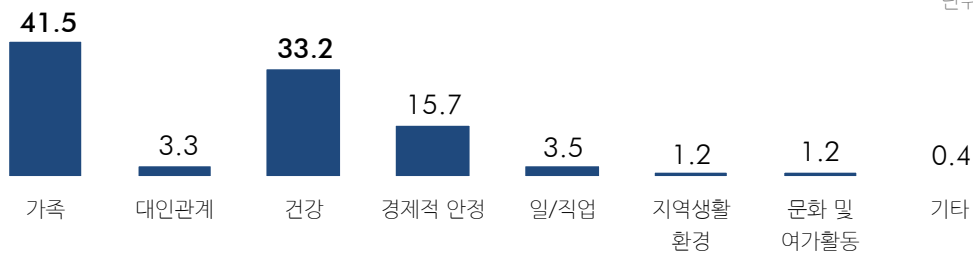
단위: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감은 평균 63.4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41.5%), '건강'(33.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5.7%), '일/직업'(3.5%), '대인관계'(3.3%), '지역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각 1.2%) 순

단위: %



☞ 농어촌생활 만족도

- 농어촌생활 만족도는 평균 51.7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생활 영역별로는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 '자연재해'(평균 66.2점), '환경·경관'(평균 62.7점), '기초생활기반'(평균 47.5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6.5점), '교육 여건'(평균 44.4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41.7점) 순

단위: 점

구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농어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합계		51.7	52.6	50.9	44.4	41.7	47.5	62.7	46.5	66.2	66.8
읍/면	읍	52.0	53.0	51.0	46.5	42.2	47.9	61.2	47.7	64.0	64.3
	면	51.5	52.3	50.8	42.9	41.3	47.1	63.8	45.7	67.8	68.6
영농 여부	농어가	52.1	53.5	50.6	40.0	39.8	46.4	65.7	47.5	67.5	69.3
	비농어가	51.6	52.1	51.1	46.8	42.7	48.1	61.1	46.0	65.5	65.5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조사연구 개요]의 '8.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4)

☞ 농어촌 복지 여건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는 평균 47.9점이었고, [불만족(합)](26.0%) 응답 비율이 [만족(합)](18.6%) 보다 많았음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0) 47.9점	1.6	17.0	18.6	55.4	23.3	2.7	26.0
읍/면	읍	(1,636) 47.8점	1.8	16.0	17.8	55.9	23.9	2.3	26.2
	면	(2,314) 47.9점	1.4	17.8	19.2	55.0	22.9	3.0	25.8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9.6점	2.2	21.7	24.0	50.7	22.8	2.5	25.3
	비농어가	(2,547) 46.9점	1.2	14.5	15.7	58.0	23.5	2.8	26.4

☞ 농어촌 보건의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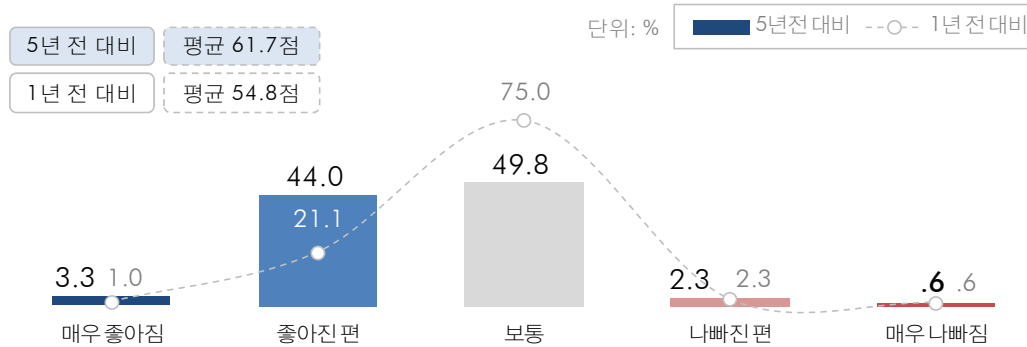
- 농어촌 보건의로 만족도는 평균 48.2점이었고, [불만족(합)](25.2%) 응답 비율이 [만족(합)](20.3%) 보다 많았음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47)			48.2점	1.8	18.5	20.3	54.5	21.4	3.8	25.2
읍/면	읍 (1,631)	50.5점	2.7	19.9	22.6	56.6	18.5	2.3	20.8	
	면 (2,316)	46.6점	1.1	17.5	18.6	53.0	23.5	4.9	28.4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49.9점	1.9	23.0	25.0	50.5	21.6	2.9	24.5	
	비농어가 (2,545)	47.4점	1.7	16.0	17.7	56.7	21.4	4.3	25.7	

☞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 과거 5년 전에 비해 농어촌 복지 여건이 '좋아진 편'(44.0%)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47.3%로 '나빠진 편'(2.3%) 등 [나빠진 편(합)](2.9%)이라는 응답보다 높아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여건이 약간 좋아졌다 (평균 61.7점)는 평가
- 과거 1년 전에 비해 농어촌 복지 여건이 '좋아진 편'(21.1%)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2.0%로 '나빠진 편'(2.3%) 등 [나빠진 편(합)](3.0%)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75.0%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54.8점)이라는 평가



보건의료

☞ 의료기관 이용실태

- 환자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5%), '종합병원'(10.8%), '보건소(지소)'(3.0%), '한방병(의)원'(1.4%), '보건진료소'(1.3%) 순

단위 : %(명)

구분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3,952)		1.3	3.0	83.5	1.4	10.8
읍/면	읍 (1,635)	1.0	1.3	86.2	0.9	10.7
	면 (2,316)	1.6	4.3	81.6	1.7	10.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1	4.7	80.9	1.6	10.8
	비농어가 (2,548)	0.9	2.1	84.9	1.3	10.8

-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월 1회 미만'(43.4%) 비율이 가장 높고, '월 1-2회'(34.6%), '월 3-4회'(12.6%), '월 5회 이상'(9.4%) 순
-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3.4%)으로 이동하며, '대중교통' 이용층은 29.3%, '걸어서' 이동층은 15.9%
- 의료기관까지 평균 편도 이동 소요시간은 23.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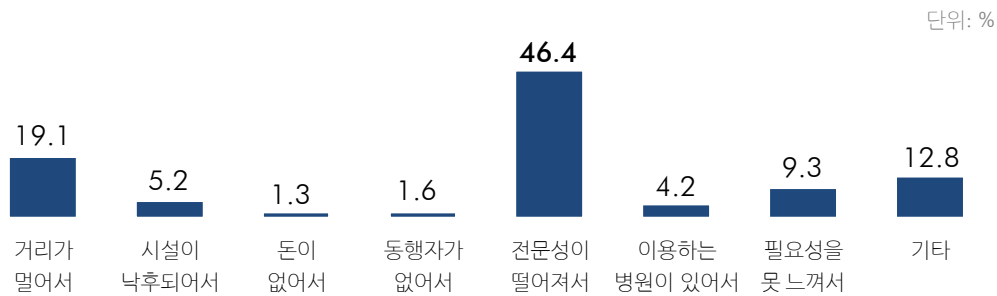
☞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은 45.4%이었으며, 이용 사유는 '예방접종'(29.2%), '기타질환치료를 위해서'(27.4%),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19.4%), '건강검진을 위해서'(11.5%), '물리치료를 위해서'(4.6%), '응급상황이어서'(4.3%) 순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공공의료시설 이용 사유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응급 상황이 어서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위해서	예방 접종	기타
합계		(3,952)	45.4	(1,786)	4.3	19.4	11.5	27.4	4.6	29.2	3.6
읍/면	읍	(1,636)	36.9	(600)	4.4	14.1	15.6	17.9	3.4	39.2	5.4
	면	(2,316)	51.5	(1,186)	4.2	22.1	9.4	32.2	5.2	24.2	2.6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4.5	(760)	5.0	24.2	9.8	30.9	3.7	25.5	0.9
	비농어가	(2,549)	40.4	(1,027)	3.8	15.9	12.7	24.8	5.3	32.0	5.5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n=1,795)의 경우,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다소 만족하는 수준'(평균 69.0점)으로 평가
- 공공의료시설 비경험층(n=2,157)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져서'(46.4%), '거리가 멀어서'(19.1%), '필요성을 못 느껴서'(9.3%), '시설이 낙후되어서'(5.2%),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서'(4.2%) 순이었으며, '건강해서', '바빠서' 등 기타는 12.8%



☞ 응급실 이용실태

-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경험층은 18.8%이었으며, 이용 원인은 '응급질환 발생'(91.5%) 비율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밖에 '교통사고'(4.7%), '농작업 안전사고'(3.7%), '농약중독'(0.2%) 등

단위: %(명)

구분	응급실 이용 경험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교통사고	농작업 안전사고	농약중독	응급질환 발생	
합계	(3,952)	18.8	(741)	4.7	3.7	0.2	91.5	
읍/면	읍	(1,636)	20.0	(326)	6.1	1.6	0.2	92.0
	면	(2,316)	17.9	(415)	3.6	5.3	0.1	91.0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19.7	(277)	3.4	8.2	0.4	88.0
	비농어가	(2,549)	18.2	(464)	5.5	1.0		93.6

-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이내'(31.6%), '10분 이내'(27.1%), '30분 이내'(23.8%), '1시간 이내'(17.5%) 순
-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의 경우, 응급실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3.8점)의 평가
- 응급실 이동시 '개인용 차량'(66.3%)이 주된 교통수단이었으며, '구급차'(25.1%), '택시'(7.1%), '걸어서'(1.0%) 순
- 구급차 이용층(n=186)의 경우,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소 만족하는 수준'(평균 77.8점)의 평가

👉 질병 치료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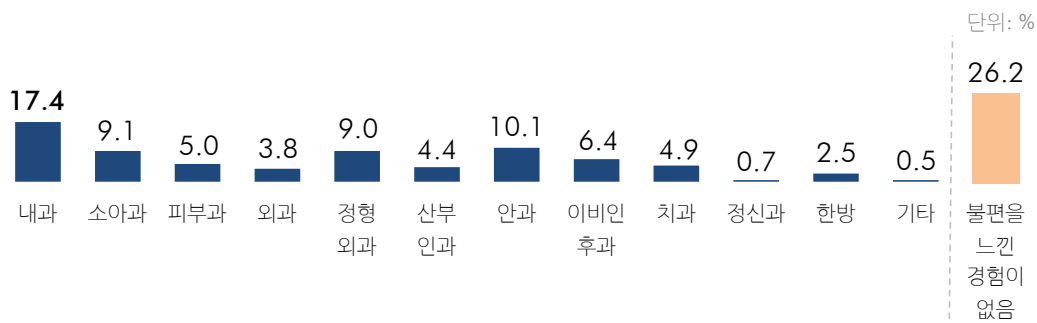
- 질병 치료시 어려움으로는 '치료비 부담'(32.4%),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1.8%),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8.8%),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5.9%) 순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 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합계 (3,952)			32.4	8.8	16.5	11.8	5.9	24.6
읍/면	읍	(1,636)	22.5	11.0	15.3	9.8	6.0	35.5
	면	(2,316)	39.4	7.2	17.3	13.2	5.9	16.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0.1	8.0	13.8	11.7	6.5	19.9
	비농어가	(2,549)	28.2	9.2	18.0	11.8	5.6	27.1

👉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과목

- 평소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은 '내과'(17.4%), '안과'(10.1%), '소아과'(9.1%), '정형외과'(9.0%), '이비인후과'(6.4%), '피부과'(5.0%), '치과'(4.9%), '산부인과'(4.4%), '외과'(3.8%), '한방'(2.5%) 순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80.3%로,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가 57.9%, '지역가입자'가 42.1%
- 미가입층(n=778)의 수급 종류는 '의료급여(1종)'(17.9%), '의료급여(2종)'(11.8%) 등 [의료급여]가 29.7%를 차지했으며,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70.4%

단위 : %(명)

구분			가입	가입종류		미가입	미가입 시 수급 종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음
합계 (3,950)			80.3	57.9	42.1	19.7	17.9	11.8	70.4
읍/면	읍 (1,636)	89.9	65.3	34.7	10.1	23.9	7.4	68.7	
	면 (2,315)	73.5	51.5	48.5	26.5	16.2	13.0	70.8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76.7	37.8	62.2	23.3	5.7	17.6	76.7	
	비농어가 (2,549)	82.3	68.2	31.8	17.7	26.7	7.6	65.7	

-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6.6%) 등 부담된다는 의견이 54.9%로 '부담되지 않는 편'(12.9%) 등 [부담되지 않음(합)](15.6%)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보통'은 29.4%

☞ 공적연금 가입실태

- 전체 가구 기준, 64.5%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연금'(6.2%), '군인연금'(1.2%), '사학연금'(0.2%) 가입률은 낮음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3,948)		64.5	6.2	0.2	1.2	30.2
읍/면	읍 (1,635)	66.7	10.0	0.1	1.9	24.9
	면 (2,313)	63.0	3.5	0.4	0.7	33.9
영농 여부	농어가 (1,401)	63.0	4.7	0.2	0.5	34.1
	비농어가 (2,547)	65.4	7.0	0.3	1.6	28.0

- 공적연금 가입층(n=2,757)에 한해, 26.4%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률이 낮았던 '공무원연금'(1.8%), '군인연금'(0.6%), '사학연금'(0.1%) 수급률 또한 낮음
-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6.4%) 등 [부담됨(합)](50.9%) 비율이 '부담되지 않는 편'(13.1%) 등 [부담되지 않음(합)](15.5%)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은 33.6%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공적연금 미가입층(n=1,192)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5.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4%), '제도를 몰라서'(15.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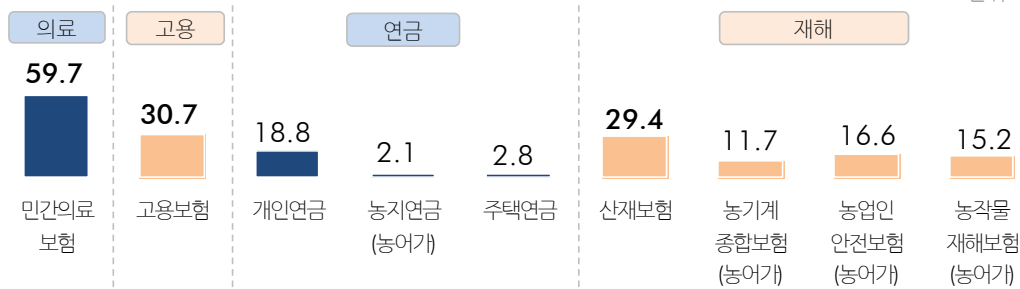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제도를 몰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1,162)		15.8	65.0	17.4	1.8
읍/면	읍 (393)	10.5	60.7	26.2	2.6
	면 (769)	18.5	67.1	12.9	1.4
영농 여부	농어가 (465)	16.7	60.2	22.9	0.2
	비농어가 (697)	15.2	68.1	13.7	2.9

➡ 기타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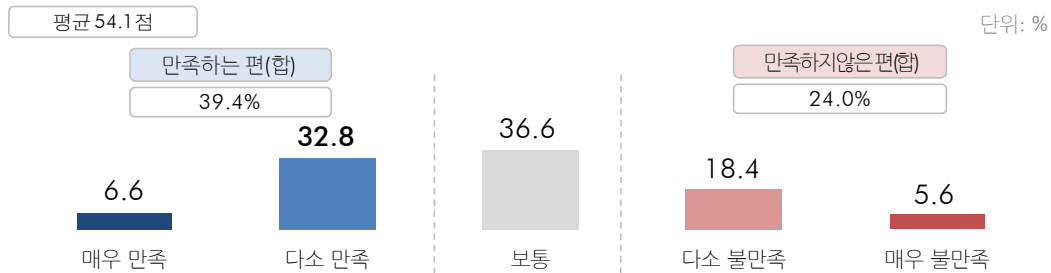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 10명 중 6명이 '민간의료보험'(59.7%)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30.7%), '산재보험'(29.4%) 가입률은 30% 내외였고, '개인연금'은 18.8%, '주택연금'은 2.8%
-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농업인안전보험'이 16.6%, '농작물재해보험'이 15.2%, '농기계종합보험'이 11.7%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가입률은 2.1%로 낮음

단위: %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다소 만족’(32.8%) 등 [만족(합)](39.4%)이 [불만족(합)](24.0%)에 비해 높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4.1점)의 평가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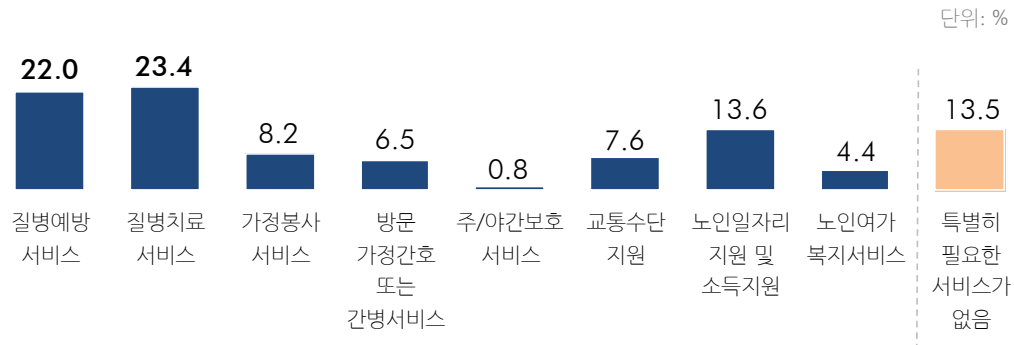
- 노인복지서비스 중 ‘의치(틀니) 지원사업’(63.7%)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0.8%), ‘노인장기요양보험’(59.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59.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54.6%), ‘가정방문간호사업’(44.3%), ‘노인건강진단사업’(40.4%) 순이었으며,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32.0%),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15.9%)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467)	60.8	(1,465)	32.0	(1,464)	63.7	(1,464)	59.7	(1,465)	54.6
읍/면	읍	(377)	51.8	(377)	31.8	(377)	66.4	(377)	57.3	(377)	53.0
	면	(1,089)	63.9	(1,088)	32.0	(1,087)	62.8	(1,088)	60.5	(1,087)	55.2
영농 여부	농어가	(763)	62.9	(761)	32.7	(762)	67.9	(762)	66.4	(762)	57.2
	비농어가	(704)	58.4	(704)	31.1	(703)	59.2	(703)	52.4	(703)	51.8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465)	59.2	(1,465)	40.4	(1,466)	44.3	(1,464)	15.9		
읍/면	읍	(377)	56.2	(377)	38.7	(377)	41.4	(377)	17.7		
	면	(1,088)	60.2	(1,088)	40.9	(1,088)	45.4	(1,087)	15.2		
영농 여부	농어가	(762)	60.6	(762)	40.4	(762)	46.6	(762)	15.4		
	비농어가	(704)	57.6	(704)	40.3	(704)	41.9	(702)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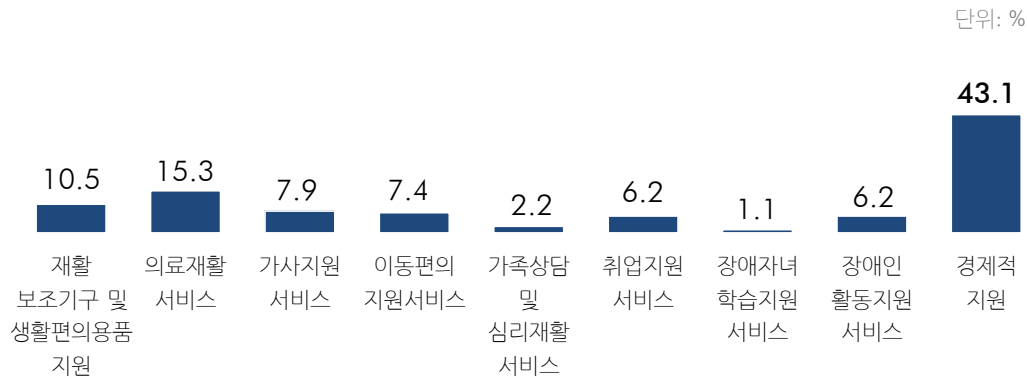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 '치료'(23.4%) 및 '예방'(22.0%)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13.6%), '가정봉사 서비스'(8.2%), '교통수단 지원'(7.6%), '방문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6.5%), '노인여가 복지서비스'(4.4%) 순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3.1%)이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재활서비스'(15.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0.5%),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7.9%), '이동편의지원서비스'(7.4%),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각 6.2%) 순



☞ 복지시설 이용실태

- '월 5회 이상'(9.6%), '월 1회 미만'(5.3%), '월 3-4회'(3.3%), '월 1-2회'(2.8%) 등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 이용 경험층이 21.0%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이용 경험 없음
합계 (3,947)		21.0	5.3	2.8	3.3	9.6	79.0
읍/면	읍 (1,634)	13.0	3.1	1.8	2.2	6.0	87.0
	면 (2,313)	26.7	7.0	3.4	4.1	12.2	73.3
영농 여부	농어가 (1,400)	28.3	6.9	4.1	4.1	13.3	71.7
	비농어가 (2,547)	17.0	4.5	2.0	2.9	7.6	83.0

-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64.4%)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가용'(20.1%), '대중교통'(12.0%) 순
- 복지시설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2.0분
-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소 만족하는 수준'(평균 71.2점)의 평가
- 복지시설 비이용층(n=3,117)에 한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바빠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24.7%),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12.9%) 순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정책으로는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0.3%)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보호'(13.6%),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9.5%), '농촌주민 건강 증진'(9.4%),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8.2%), '농촌 보건 의료 정책'(7.3%) 순

단위 : %(명)

구분		농업인 기초 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 환경 보호	농촌 교육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 버스 등 교통 수단 확보	농촌 주민 건강 증진	농촌 지역 사업체 에 대한 투자 확대	농촌 보건 의료 정책	기타
합계 (3,885)		40.3	13.6	4.9	3.7	2.3	8.2	9.4	9.5	7.3	0.8
읍/면	읍 (1,595)	33.1	13.5	5.7	4.6	2.2	7.9	8.6	15.2	8.5	0.8
	면 (2,290)	45.4	13.7	4.3	3.1	2.4	8.4	9.9	5.6	6.5	0.8
영농 여부	농어가 (1,394)	52.6	12.1	1.9	1.5	2.0	6.4	9.0	8.4	4.9	1.1
	비농어가 (2,491)	33.5	14.5	6.5	4.9	2.5	9.2	9.6	10.2	8.7	0.6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고서

목차1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47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일반사항	65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6
1120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68
1130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69
114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70
115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71
1160 결혼이민자 유무	75
1200. 생활전반	77
1211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78
1212 주택의 건축년도	81
1213 주택수리 여부	83

121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5
1215	향후 이주의향	90
1216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96
1217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99
1218	농어촌생활 만족도	102
1219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105
122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108
1221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111
1222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114
1300.	보건의료	116
1311	의료기관 이용실태	117
1312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125
1313	응급실 이용실태	129
1314	질병 치료시 어려움	135
131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8
1316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140
1317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141

14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142
141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143
1412 공적연금 가입실태	148
1413 기타보험 가입현황	155
141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57
1415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158
1416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59
141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0
141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161
1419 정신건강 인식	162
142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165
142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71
142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74
1423 복지시설 이용실태	176
142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83

제2부 | 기존 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부문	187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88
2102 만성질환 현황	189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90
2104 건강검진 수진율	191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92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94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95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로서비스 이용 경험	196
2109 농작업 손상	197
2110 병상 수	198
2111 보건의료기관 수	200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202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03
 2200. 복지 부문	 205
2201 독거노인 현황	206
2202 장수인구 비율	207

2203 치매노인 비율	208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8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09
2206 노인일자리 참여	210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11
2208 영유아 비율	212
2209 유치원 취원율	213
2210 보육시설 현황	214
2211 조손가구 비율	218
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9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

2300. 교육 부문	223
2301 학생 수	224
2302 학교 수	225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26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7
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8
2306 복식학교 비율	229
2307 교원 수	230

2308	연령별 교원 수	231
2309	사무직원 수	232
2310	사서교사 배치율	233
2311	보건교사 배치율	234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35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36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7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8
2316	통학수단	239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40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41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44
2320	학업중단 비율	245
2321	대학(교) 진학률	246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7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8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50
2325	도서관 현황	251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52

2400. 문화여가 부문	254
2401 주요 여가활동	255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6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7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9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60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261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262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263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264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5
2505 상수도 보급률	266
2506 하수도 보급률	267
2507 도로 포장률	268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70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71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72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73
2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276

2600. 지역역량 부문	279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80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81
2700. 경제활동 부문	282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83
2702 부채 규모	285
2703 소득 만족도	286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7
2705 노후준비	288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90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91
부록	293
(1) 전국 표본리스트	295
(2) 주요 항목별 타 자료 비교	307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320
(4) 주요 용어정리	331
(5)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39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1110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66
표1110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67
표1120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68
표1130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69
표114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70
표1150 - (1) 가구주와의 관계	72
표1150 - (2) - ①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73
표1150 - (2) - ②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73
표1150 - (3) 장애 등급	74
표1160 - (1) 결혼이민자 유무	75
표1160 - (2) 출신국가	76

표1211 - (1) 주택종류	78
표1211 - (2) - ① 주택 점유형태	80
표1211 - (2) - ② 주택 점유형태 - 추이	80
표1212 주택의 건축년도	81
표1213 - (1) 주택수리 여부	83
표1213 - (2) 주택수리 시기	84
표1214 - (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5
표1214 - (2) - ① 이주 후 거주기간('이주했다'층)	86
표1214 - (2) - ② 이주 후 거주기간('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층)	87
표1214 - (3) 이주 직전 주택 위치	88
표1215 - (1) 향후 이주의향	90
표1215 - (2) 이주 희망 지역	92
표1215 - (3) - ① 이주 희망 이유	94
표1215 - (3) - ②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95
표1216 - (1) 월 평균 생활비	96
표1216 - (2) 저축 여부 및 월 평균 저축액	97
표1217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99
표1217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0
표1217 - (3) - ①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101
표1217 - (3) - ②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101

표1218 - (1) 농어촌생활 만족도	102
표1218 - (2) 농어촌생활 만족도 - 추이	103
표1219 - (1)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	105
표1219 - (2) 거주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106
표1220 - (1)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108
표1220 - (2) - ①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109
표1220 - (2) - ②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109
표1220 - (3)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	110
표1221 - (1) 농어촌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1
표1221 - (2)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2
표1222 - (1) 과거 5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114
표1222 - (2) 과거 1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115
표1311 - (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117
표1311 - (2) 의료기관 이용 횟수	119
표1311 - (3)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21
표1311 - (4)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123
표1312 - (1)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125
표1312 - (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126
표1312 - (3) 공공의료시설 비이용 사유	128

표1313 - (1) 응급실 이용 경험 및 이용 원인	129
표1313 - (2)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130
표1313 - (3)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31
표1313 - (4)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132
표1313 - (5)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34
표1314 질병 치료시 어려움	136
표131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9
표1316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140
표1317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141
표1411 -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143
표1411 -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146
표1412 - (1) - ①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148
표1412 - (1) - ② 공적연금 가입현황(18-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148
표1412 - (2) 공적연금 수급현황	150
표1412 - (3)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152
표1412 - (4) 공적연금 미가입 이유	154
표1413 기타보험 가입현황	155
표141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57
표1415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158

표1416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59
표141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0
표141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161
표1419 정신건강 인식	163
표1420 - (1) - ①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165
표1420 - (1) - ②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166
표1420 - (2) - ①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67
표1420 - (2) - ②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168
표1420 - (3) - ①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169
표1420 - (3) - ②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170
표142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72
표142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74
표1423 - (1) 복지시설 이용 횟수	176
표1423 - (2) 복지시설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78
표1423 - (3) 복지시설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179
표1423 - (4)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180
표1423 - (5) 복지시설 비용 이유	182
표1424 - (1)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83
표1424 - (2)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184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88
표2102 만성질환 현황	189
표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90
표2104 건강검진 수진율	191
표2105 - (1) 월평균 보건의료비	192
표2105 - (2) 월평균 보건의료비	193
표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94
표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95
표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96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197
표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197
표2110 - (1) 병상 수	198
표2110 - (2) 병상 수	199
표2111 - (1) 보건의료기관 수	200
표2111 - (2) 보건의료기관 수	201
표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202
표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03
표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204

표2201 독거노인 현황	206
표2202 장수인구 비율	207
표2203 치매노인 비율	208
표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8
표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09
표2206 노인일자리 참여	210
표2207 - (1)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11
표2207 - (2)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211
표2208 영유아 비율	212
표2209 유치원 취원율	213
표2210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14
표2210 - (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15
표2210 - (3)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216
표2210 - (4)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217
표2211 조손가정	218
표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9
표2213 - (1) 결혼이민자 현황	220
표2213 - (2)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221
표2213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221
표2213 - (4)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222

표2213 - (5)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어려운 점	222
표2213 - (6)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222
표2301 학생 수	224
표2302 학교 수	225
표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26
표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7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8
표2306 복식학교 비율	229
표2307 교원 수	230
표2308 연령별 교원 수	231
표2309 사무직원 수	232
표2310 사서교사 배치율	233
표2311 보건교사 배치율	234
표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35
표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36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7
표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8
표2316 통학수단	239
표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40

표2318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41
표2318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42
표2318 - (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243
표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44
표2320 학업중단 비율	245
표2321 대학(교) 진학률	246
표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7
표2323 - (1)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8
표2323 - (2)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9
표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50
표2325 도서관 현황	251
표2326 - (1)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52
표2326 - (2)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53
표2401 - (1) 주요 여가활동	255
표2401 - (2) 주요 여가활동	255
표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6
표2403 - (1)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7
표2403 - (2)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8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9

표2405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260
표2405 - (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260
표2501 - (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262
표2501 - (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262
표2501 - (3)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262
표2502 - (1) 주거형태	263
표2502 - (2) 점유형태	263
표2503 - (1) 주거시설	264
표2503 - (2) 난방형태	264
표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5
표2505 상수도 보급률	266
표2506 하수도 보급률	267
표2507 - (1) 도로 포장률	268
표2507 - (2) 도로 포장률	269
표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70
표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71
표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72
표2511 -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273
표2511 -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274

표2511 -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274
표2511 - (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	275
표2511 - (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275
표2512 - (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276
표2512 - (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277
표2512 - (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277
표2512 - (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278
표2512 - (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278
표2601 사회단체 참여율	280
표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81
표2701 - (1) 소득 및 가계지출	283
표2701 - (2) 소득 및 가계지출	284
표2702 부채 규모	285
표2703 소득 만족도	286
표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7
표2705 - (1)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288
표2705 - (2)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289
표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90
표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91

목차3
그림 목차

그림1150 - (1) - ① 장애 가구원 유무	71
그림1150 - (1) - ②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71
그림1150 - (1) - ③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72
그림1150 - (3) 장애등급 - 추이	74
그림1160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75
그림1211 - (1) - ① 주택종류	78
그림1211 - (1) - ② 주택종류 - 추이	79
그림1212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82
그림1214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89
그림1215 - (1) 향후 이주의향 - 추이	91
그림1215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93
그림1216 - (1) 월 평균 생활비	96
그림1216 - (2)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98
그림1217 행복의 영향 요인	100

그림1219 거주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07
그림1221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13
그림1311 - (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118
그림1311 - (2)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120
그림1311 - (3)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22
그림1311 - (4)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124
그림1312 - (1)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126
그림1312 - (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127
그림1313 - (1)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31
그림1313 - (2)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132
그림1313 - (3) 응급실 이용실태 - 추이	133
그림1313 - (4)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34
그림1314 - (1) 질병 치료시 어려움	135
그림1314 - (2) 질병 치료시 어려움 - 추이	137
그림131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8
그림1411 -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가입층) - 추이	144
그림1411 - (2) - 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145
그림1411 - (2) - ②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147
그림1412 - (1)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149
그림1412 - (2) 공적연금 수급현황	150

그림1412 - (3) - ①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151
그림1412 - (3) - ②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153
그림1413 - (1) 기타보험 가입현황	155
그림1413 - (2)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156
그림141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57
그림1415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158
그림1416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59
그림141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0
그림141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161
그림1421 - (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71
그림1421 - (2)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173
그림142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175
그림1423 - (1) 복지시설 이용 횟수 - 추이	177
그림1423 - (2) 복지시설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78
그림1423 - (3)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181

조사연구 개요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 8. 28.)

3.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4. 9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5. 9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 8. 28.)
2016. 9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4. 표본설계

①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전국	3,308,353	8,627,388
인천	27,638	70,924
경기	652,076	1,916,731
강원	211,437	548,161
충북	220,551	565,190
충남	461,581	1,209,093
부산	33,772	93,106
울산	64,276	185,811
대구	55,985	167,225
경북	489,928	1,191,614
경남	436,017	1,112,808
전북	209,872	502,091
전남	395,200	931,327
제주	50,020	133,307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조사구(아파트는 단지)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 1~3개로 층화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층화추출에서 흔히 고려되는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나 큰 규모의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표본할당을 제공하지만 소규모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표본을 할당시킴

$$n_h^{Neyman} = n \frac{N_h S_{yh}}{\sum_{h=1}^H N_h S_{yh}} \quad \text{여기서 } N_h \text{는 층크기이고 } S_{yh} \text{는 조사변수 } y \text{의 층분산}$$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Bankier(1988)²⁾가 제시한 “역배분(power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음. 역배분은 주어진 표본 크기 n 을 H 개의 부모집단(층)에 할당할 때, 층별 특성치 y 의 상대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 CV) cv_{yh} 와 크기측도(measure of size)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

$$n_h^{power} = \frac{(t_{xh})^a cv_{yh}}{\sum_{h=1}^H (t_{xh})^a cv_{yh}}$$

네이만배분은 $a = 1$ 과 $t_{xh} = t_{yh}$ 을 갖는 역배분의 특수형태이고, 층별 상대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N_h$ 이라면 역배분은 층크기 기준의 절충배분의 특수형태임

기존 조사들은 주요 분석 특성들을 달리하며 하나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상대표준오차들 cv_{qh} 의 조화평균을 고려

$$cv_{yh} = \left(\frac{1}{Q} \sum_{q=1}^Q cv_{qh}^{-1} \right)^{-1}$$

2)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s: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s.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pp.174~177.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소계	910	3,100	4,010
경기	230	250	480
강원	60	280	340
충북	110	290	400
충남	100	340	440
전북	10	390	400
전남	80	600	680
경북	140	360	500
경남	180	320	500
제주	0	270	270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인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2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6.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96개 읍/면의 401개 마을에 거주하는 4,010가구
 - 전체 4,01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1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3,952가구(응답률 98.6%) 조사 완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9월 30일(1개월 – 추석연휴 제외)

7.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개 부문, 68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평가적 신념(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또는 10점 척도)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여부, 농어가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 등
생활 전반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등
	주택 여건	주택 건축년도,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수리 여부* 등
	생활여건	이주의향, 농어촌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등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등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응급실 이용 경험 등
	보건의료 여건 전반	질병 치료시 어려움,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등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	사회안전망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공적연금 가입현황, 기타보험 가입현황 등
	건강상태 만족도 및 안녕감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정신건강 인식* 등
	노인 복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 여건 전반	복지시설 이용 횟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등

* 신규문항

** “경제활동” 부문(2014년)에서 “생활전반” 부문으로 이동

8.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X_i - 1$) $\times 25$ 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³⁾ 산출방법 :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3) 종합만족도 : '전체 체감만족도'(전체 만족도에 대한 실측값)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별 체감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 및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한 '전체 차원만족도'와 '전체 체감만족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 상관계수 분석(Correlation Analysis) :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및 하위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상관계수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함
 -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18.78%), [경제활동 여건](18.69%), [기초생활기반](17.69%), [교육 여건](15.24%), [환경/경관](12.97%),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9.04%), [자연재해](7.60%)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IPA)을 병행함
 - 사업(정책)의 가치평가와 향후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업 관리법으로 사업(정책)의 다양한 관리 대상 요인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관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Portfolio 분석 (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만족도 (점)	현 수준 유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
	유지/관리 지속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영역]
	만족도 제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점 개선 요망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요도

② 추정

● 기호 정의 : 층화 다단 집락추출법 추정을 위해 필요한 기호 정의

- Y : 모총계
- $\bar{Y}$: 모평균
- h : 시도, 특성에 따라 나는 h 번째 층 ($h = 1, 2, \dots, H$)
- i : i 번째 표본 읍/면
- j : j 번째 표본 가구
- y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속성치
- $y_{hi.}$: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총계 추정치
- w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설계가중치
- $w_{hi.}$: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설계가중치
- N_h : h 층에 속한 모집단 동/면들의 수
- n_h : h 층에 속한 표본 읍/면들의 수
- m_{hi} : h 층, i 번째 읍/면의 표본 가구수

● 총계 및 분산추정

$$\cdot \hat{Y} = \sum_{h=1}^H \sum_{i=1}^{n_h} w_{hi.} \cdot y_{hi.}$$

$$\cdot \hat{V}(\hat{Y}) = \sum_{h=1}^H \hat{V}_h(\hat{Y})$$

$$\text{여기서, } \hat{V}_h(\hat{Y})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quad \bar{Y}_h = \frac{\sum_{i=1}^{n_h} y_{hi.}}{n_h}$$

● 모평균 및 분산추정

$$\cdot \hat{\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y_{hij} \right) / w_{..}$$

$$\text{여기서,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hat{V}(\hat{\bar{Y}}) = \sum_{h=1}^H \hat{V}_h(\hat{\bar{Y}})$$

$$\text{여기서, }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i.}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 설계가중치

- 1차층(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내의 가구들은 가중치 동일

$$\cdot w_{hij} = \frac{N_h}{m_{h+}} \quad , \quad m_{h+} = \sum_i \sum_j m_{hij}$$

- 읍/면부의 가중치는 최소 제주의 185에서 최대 경기의 1,580 사이의 범위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경기	1	268,893	220	1,222
	2	410,821	260	1,580
강원	1	64,536	100	645
	2	25,575	40	639
	3	73,893	120	616
	4	47,433	80	593
충북	1	76,607	140	547
	2	41,629	80	520
	3	102,315	180	568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충남	1	176,626	200	883
	2	59,831	60	997
	3	225,124	180	1,251
경북	1	245,825	240	1,024
	2	119,963	120	1,000
	3	180,125	140	1,287
경남	1	174,122	180	967
	2	151,533	160	947
	3	208,410	160	1,303
전북	1	122,466	200	612
	2	27,398	80	342
	3	60,008	120	500
전남	1	244,173	460	531
	2	70,973	100	710
	3	80,054	120	667
제주	1	50,020	270	185

● 레이킹 비 조정⁴⁾에 의한 가중치 조정⁵⁾

-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12.1	19.8	19.8	17.7	30.6	100.0
강원	3.9	7.2	14.4	26.4	48.1	100.0
충북	11.0	11.2	12.4	24.3	41.2	100.0
충남	5.0	9.1	15.3	22.9	47.7	100.0
경북	2.5	4.5	9.3	25.1	58.5	100.0
경남	3.9	8.8	11.6	21.3	54.5	100.0
전북	6.9	6.7	13.5	18.4	54.6	100.0
전남	15.0	14.0	15.2	24.0	31.7	100.0
제주	6.8	12.3	13.5	23.8	43.7	100.0

4) Deville, J.C., Samdal, C..(1992). Calibration Estimators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1), pp.376~382.

5) 레이킹 비 조정을 반영하는 분산추정도 가능하며 이는 앞서 기술한 테일러선형화분석 이외에도 잭나이프반복분산추정(jackknife replication method)으로도 가능함

- 2015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50대 이하 인구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낮음
- 표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와 벤치마킹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총별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

총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32.2	20.7	20.5	13.1	13.6	100.0
강원	26.6	16.5	21.8	15.6	19.5	100.0
충북	29.1	17.4	20.3	14.6	18.6	100.0
충남	28.2	17.1	19.6	15.2	19.9	100.0
경북	25.1	17.0	20.7	16.1	21.2	100.0
경남	27.9	19.5	20.3	14.7	17.7	100.0
전북	20.8	14.7	19.6	18.0	27.0	100.0
전남	21.9	16.3	19.5	16.7	25.6	100.0
제주	25.5	19.8	20.3	14.6	19.8	100.0

- 총별 모집단 연령대별 인구 및 주택종류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레이킹 비 조정을 실시한 결과 사후 조정된 총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가중치 조정 후 총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총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32.2	20.7	20.5	13.1	13.6	100.0
강원	26.6	16.5	21.8	15.6	19.5	100.0
충북	29.1	17.4	20.3	14.6	18.6	100.0
충남	28.2	17.1	19.6	15.2	19.9	100.0
경북	25.1	17.0	20.7	16.1	21.2	100.0
경남	27.9	19.5	20.3	14.7	17.7	100.0
전북	20.8	14.7	19.6	18.0	27.0	100.0
전남	21.9	16.3	19.5	16.7	25.6	100.0
제주	25.5	19.8	20.3	14.6	19.8	100.0

- 또한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주택종류별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42.3	48.9	7.0	1.3	0.4	100.0
강원	70.6	17.7	4.2	4.8	2.7	100.0
충북	56.4	31.0	7.9	1.0	3.8	100.0
충남	73.3	19.1	3.1	2.2	2.4	100.0
경북	90.5	2.5	2.0	2.8	2.3	100.0
경남	85.3	11.9	0.6	0.5	1.8	100.0
전북	68.1	27.3	4.0	0.4	0.2	100.0
전남	55.1	36.4	5.5	2.2	0.8	100.0
제주	83.7	0.0	12.3	3.6	0.4	100.0

- 2015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주택종류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낮고 아파트 비율이 높음
- 따라서 연령별 변수는 물론 주택종류별 비율을 고려한 레이킹비조정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층별 모집단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34.4	42.3	4.0	12.5	6.7	100.0
강원	61.7	27.0	3.6	2.4	5.3	100.0
충북	53.0	35.1	2.9	3.8	5.1	100.0
충남	55.0	34.3	2.5	4.1	4.1	100.0
경북	61.1	29.6	1.9	3.0	4.4	100.0
경남	51.3	39.8	1.8	2.7	4.4	100.0
전북	77.7	15.8	1.4	0.9	4.2	100.0
전남	72.9	20.3	1.6	1.1	4.1	100.0
제주	74.9	4.6	8.8	4.5	7.1	100.0

- 층별 모집단 주택종류별 인구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레이킹 비 조정을 실시한 결과 조정된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가중치 조정 후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34.4	42.4	4.0	12.9	6.3	100.0
강원	61.7	27.0	3.6	2.4	5.3	100.0
충북	53.0	35.1	2.9	3.8	5.1	100.0
충남	55.1	34.3	2.5	4.1	4.2	100.0
경북	61.1	29.6	1.9	3.0	4.4	100.0
경남	51.3	39.8	3.3	1.3	4.4	100.0
전북	77.7	15.8	1.4	4.4	0.7	100.0
전남	72.9	20.3	1.6	1.1	4.1	100.0
제주	74.9	0.0	13.5	11.0	0.5	100.0

제1부 개인 설문조사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100> 일반사항

1200> 생활전반

1300> 보건의료

14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1100> 일반사항

-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20>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30>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114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115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1160> 결혼이민자 유무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 57.9%, '여성' 58.0%, [60대 이상] 연령층 34.4%
- ▶ '농어업종사자' 25.3%,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53.5%

 '가구주' 57.9%, '여성' 58.0%, [60대 이상] 연령층 34.4%

[조사대상자(n=3,952)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 응답률 100.0%(n=3,952)]

[학력 : 응답률 99.5%(n=3,933)]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57.9%가 '가구주' 본인이며, '여성'(58.0%) 비율이 '남성'(42.0%)에 비해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 '60대'(15.1%), '70대 이상'(19.3%) 등 [60대 이상] 비율이 34.4%이었으며, '30대 이하'(27.3%), '50대'(20.3%), '40대'(18.1%) 순이었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4.1%), '대학교'(23.7%), '대학원 이상'(2.4%) 등 [고등학교 이상](60.2%) 비율이 '초등학교'(18.2%), '중학교'(11.6%), '무학/미취학'(9.9%) 등 [중학교 이하] (39.8%)에 비해 높았다.

| 표1110 -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합계	(3,952)	100.0	성	합계	(3,952)	100.0
	가구주	(2,288)	57.9		남	(1,660)	42.0
	가구주 배우자	(1,664)	42.1		여	(2,292)	58.0
연령	합계	(3,952)	100.0	학력	합계	(3,933)	100.0
	30대 이하	(1,080)	27.3		무학/미취학	(391)	9.9
	40대	(714)	18.1		초등학교	(718)	18.2
	50대	(801)	20.3		중학교	(455)	11.6
	60대	(597)	15.1		고등학교	(1,342)	34.1
	70대 이상	(761)	19.3		대학교	(932)	23.7
					대학원 이상	(96)	2.4

'농어업종사자' 25.3%,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53.5%

[직업 - 조사대상자(n=3,952)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8.5%(n=3,894)]

[종사자 지위 - 군인 및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자영업/직장인층(n=2,345)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9%(n=2,344)]

직업은 '주부/무직/기타'(39.6%), '사무 종사자'(8.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1%), '단순노무 종사자'(3.8%), '서비스 종사자'(3.3%) 등 자영업/직장인(35.1%)이 '농어업종사자'(25.3%) 보다 많았다.

종사자 지위는 '자영업자'(53.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26.4%), '무급가족 봉사자'(10.6%), '임시직'(5.1%), '일용직'(4.4%) 순이었다.

| 표1110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894)	100.0		합계	(2,344)	100.0
직업	농어업종사자	(985)	25.3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1,254)	53.5
	관리자	(32)	0.8		상용직	(619)	2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62)	4.1		임시직	(119)	5.1
	사무 종사자	(326)	8.4		일용직	(103)	4.4
	서비스 종사자	(128)	3.3		무급가족 봉사자	(249)	10.6
	판매 종사자	(374)	9.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1.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8)	3.0				
	단순노무 종사자	(148)	3.8				
	군인	(5)	0.1				
	주부/무직/기타	(1,544)	39.6				

1120 >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농어가 여부, 총 가구원 수 : 응답률 100.0%(n=3,952)/ 가족형태 : 응답률 99.6%(n=3,937)]

▶ 농어가 35.5%, 평균 가구원 수 2.9명, '2세대 가구' 51.3%

농어촌 가구 중 농여가가 35.5%이었으며, 농여가 비율은 면지역(47.4%)이 읍지역(18.7%) 보다 높았다. 가구원 수는 '2명'(27.8%), '4명'(24.1%) 순으로 평균 2.9명이었으며,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3.0%,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51.3%로 나타났다. 한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7.6%이었다.

| 표1120 |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농여가 여부	합계	(3,952) 100.0	가족 형태	합계	(3,937) 100.0
	농여가	(1,403) 35.5		1인가구	(693) 17.6
	비농여가	(2,549) 64.5		1세대	(905) 23.0
총 가구원 수	합계	(3,952) 100.0		2세대	(2,020) 51.3
	1명	(693) 17.5		3세대	(314) 8.0
	2명	(1,098) 27.8		4세대	(4) 0.1
	3명	(714) 18.1			
	4명	(951) 24.1			
	5명	(339) 8.6			
	6명 이상	(157) 4.0			

1130>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37.2%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37.2%로 나타났으며, 면지역, 농어가에
서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 표1130 |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3,952)			37.2	62.8
읍/면	읍	(1,636)	23.2	76.8
	면	(2,316)	47.1	52.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4.4	45.6
	비농어가	(2,549)	27.7	72.3

114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3.3%

농어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3.3%,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는 1.6%이었다.

| 표114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합계 (3,952)			3.3	1.6	95.1
읍/면	읍	(1,636)	2.0	1.2	96.7
	면	(2,316)	4.2	1.9	94.0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1.5	1.7	96.8
	비농어가	(2,549)	4.3	1.6	94.2

115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11.5%, 장애가구원이 '가구주'인 비율 55.1%
- ▶ 주된 장애종류 '지체장애'(62.6%), 장애 급수 '3급'(23.6%)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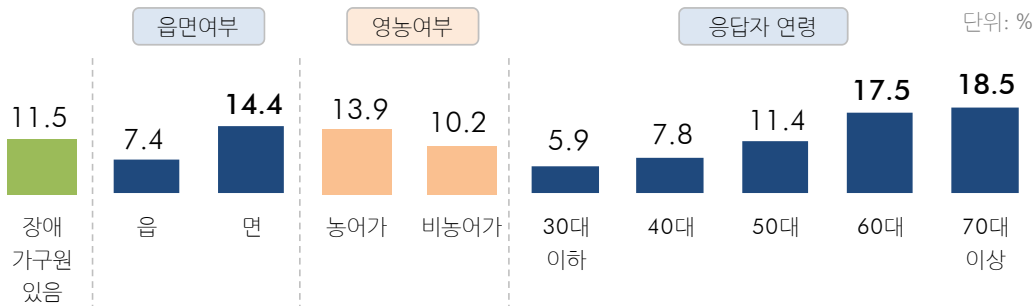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11.5%, 장애가구원이 '가구주'인 비율 55.1%

귀댁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장애 가구원 유무 -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장애 가구원(n=505)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1.5%이었으며, 면지역, 60대 이상 응답자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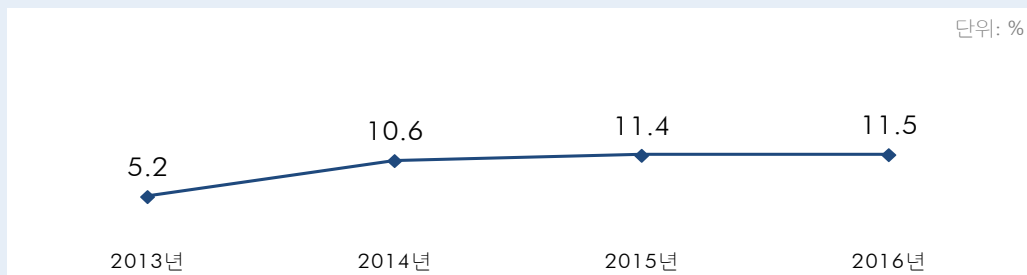
| 그림1150-(1)-① | 장애 가구원 유무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5년 대비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비슷한 수준(+0.1%p)

| 그림1150-(1)-②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장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n=505)는 ‘가구주’(55.1%) 본인이 다수였으며, 다음으로 ‘가구의 배우자’(19.1%), ‘부모’(12.9%), ‘가구의 자녀’(9.9%), ‘형제자매/그 배우자’(2.4%), ‘기타 친인척’(0.3%), ‘손자녀/그 배우자’(0.2%), ‘자녀의 배우자’(0.1%)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는 ‘가구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는 ‘가구의 배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150-(1) | 가구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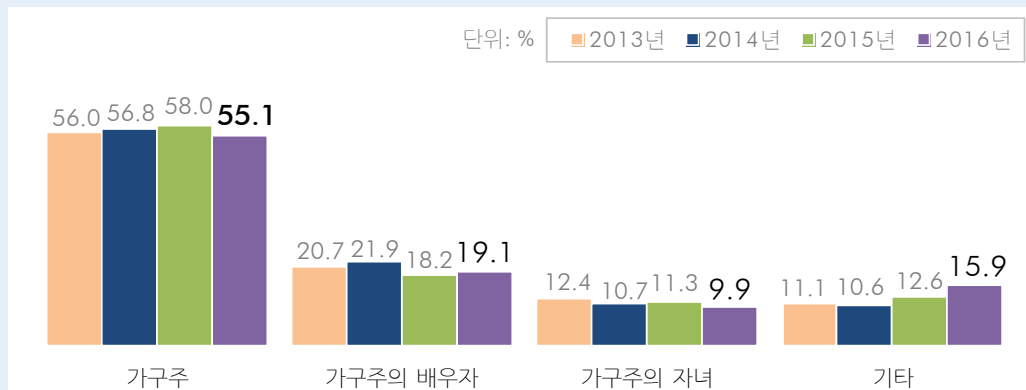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가구주	가구의 배우자	가구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합계 (505)			55.1	19.1	9.9	0.1	0.2	12.9	2.4	0.3
읍/면	읍	(136)	59.9	16.0	8.1	0.0	0.5	10.6	4.9	0.0
	면	(369)	53.4	20.3	10.5	0.2	0.1	13.7	1.4	0.4
영농 여부	농어가	(215)	52.9	23.3	10.4	0.3	0.0	12.0	1.1	0.0
	비농어가	(289)	56.8	16.1	9.5	0.0	0.3	13.6	3.3	0.5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150-(1)-③ |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주된 장애종류는 '지체장애'(62.6%), 장애 급수는 '3급'(23.6%) 비율이 높음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무엇입니까?

[장애가구원(n=505)이 있는 가구 중 응답가구에 한해]

[장애 종류 : 응답률 99.6%(n=503), 중복 여부 : 응답률 100.0%(n=505), 장애 등급 : 응답률 98.6%(n=498)]

장애종류로 '지체장애'(62.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9.8%), '시각장애'(7.7%), '뇌병변장애'(6.7%), '정신지체'(4.8%), '정신장애', '신장장애'(각 2.2%), '호흡기장애'(1.2%) 순이었다. 한편, '중복'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5.5%로 나타났다.

면지역에서 '지체장애'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중복장애 '비해당' 비율이 높았다.

| 표1150 - (2) - ①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단위 :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 여부		
		사례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사례수	비해당	중복
읍/면	합계	(503)	62.6	6.7	7.7	9.8	4.8	2.2	2.2	1.2	(505)	94.5	5.5
	읍	(135)	58.1	13.7	4.4	12.0	2.8	1.1	2.6	2.3	(136)	97.0	3.0
	면	(369)	64.3	4.2	8.9	9.0	5.5	2.5	2.1	0.7	(369)	93.5	6.5
영농 여부	농어가	(215)	63.2	4.2	8.6	10.7	4.2	2.7	1.4	2.1	(215)	92.3	7.7
	비농어가	(288)	62.2	8.6	7.1	9.2	5.2	1.8	2.8	0.4	(289)	96.1	3.9

* 장애종류 :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 2015년에 비해 '지체장애' 비율이 증가(+10.5%p)한 반면, '중복' 장애(-5.1%p) 비율이 약간 감소

| 표1150 - (2) - ②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장애 종류								중복 여부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사례수	비해당	중복
2016년	(503)	62.6	6.7	7.7	9.8	4.8	2.2	2.2	1.2	(505)	94.5	5.5
2015년	(488)	52.1	8.7	9.5	7.4	6.7	1.0	4.9	0.4	(490)	89.4	10.6
2014년	(447)	57.5	8.3	10.4	8.8	3.1	2.3	3.1	0.3	(447)	92.5	7.5
2013년	(129)	45.7	11.5	10.0	8.4	5.4	2.7	5.9		(129)	79.5	20.5

* 장애종류 : 2016년 기준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장애등급은 '3급'(23.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급'(19.5%), '4급'(18.8%), '2급'(14.7%), '5급'(14.4%), '1급'(9.0%) 순이었다.

읍지역에서 '2급', 비농어가에서 '3급', 면지역에서 '6급' 비율이 다소 높았다.

| 표1150 - (3) | 장애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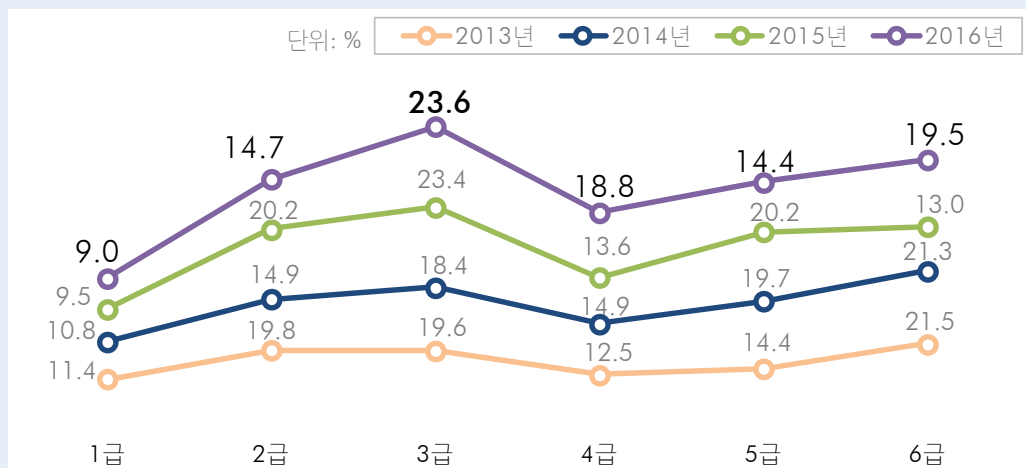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498)			9.0	14.7	23.6	18.8	14.4	19.5
읍/면	읍	(133)	10.9	21.6	23.3	20.4	11.4	12.5
	면	(365)	8.3	12.2	23.7	18.3	15.5	22.0
영농 여부	농어가	(212)	5.0	14.6	19.1	22.5	17.6	21.2
	비농어가	(286)	11.9	14.8	26.9	16.2	12.0	18.2

장애등급 - 추이

- 2015년에 비해 '6급'(+6.5%p), '4급'(+5.2%p) 비율이 증가한 반면, '5급'(-5.8%), '2급'(-5.5%) 비율이 감소

| 그림1150 - (3) | 장애등급 - 추이



1160> 결혼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3.1%,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71.1%), '중국'(11.9%)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3.1%, 결혼이민자가 '가구의 배우자'인 비율이 70.3%

귀댁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결혼이민자 유무 -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 결혼이민자(n=162)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3.1%이었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의 배우자'(70.3%) 비율이 매우 높았고, '자녀의 배우자'(29.5%), '가구주'(0.2%) 순이었다.

| 표1160-(1) | 결혼이민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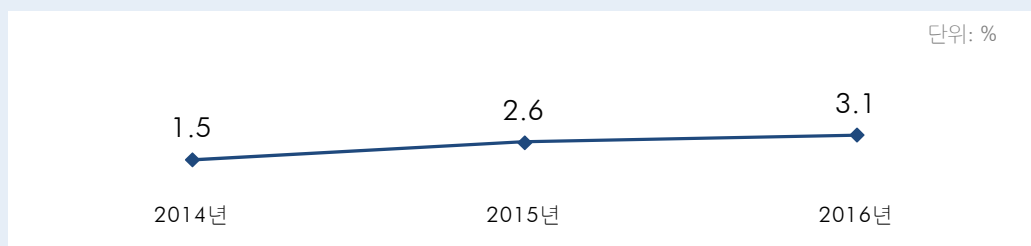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자 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사례수	있음	사례수	가구주	가구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합계	(3,952)	3.1	(162)	0.2	70.3	29.5
읍/면	읍	3.4	(96)	0.4	57.2	42.5
	면	2.8	(65)	0.0	89.5	10.5
영농 여부	농어가	3.9	(56)	0.0	90.9	9.1
	비농어가	2.6	(106)	0.3	59.4	40.3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 2015년 대비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비슷한 수준(+0.5%p)

| 그림1160 |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71.1%), '중국'(11.9%)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결혼이민자(n=162)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n=162)의 출신국가는 '베트남'(71.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1.9%), '캄보디아'(5.8%), '필리핀'(3.8%), '일본'(3.6%), '태국'(2.8%) '네팔'(0.7%), '우즈베키스탄'(0.3%) 순이었다.

| 표1160 - (2) | 출신국가

단위 : %(명)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 스탄
합계 (162)		11.9	3.6	71.1	2.8	3.8	5.8	0.7	0.3
읍/면	읍 (96)	2.6	4.8	87.6	0.0	2.8	1.2	1.1	0.0
	면 (65)	25.6	1.8	46.9	7.0	5.4	12.6	0.0	0.7
영농 여부	농어가 (56)	22.3	2.1	52.5	7.3	4.9	10.9	0.0	0.0
	비농어가 (106)	6.5	4.3	80.9	0.5	3.3	3.1	1.0	0.4

1200> 생활전반

- 1211>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 1212> 주택의 건축년도
- 1213> 주택수리 여부
- 121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1215> 향후 이주의향
- 1216>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 1217>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1218> 농어촌생활 만족도
- 1219>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 122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 1221>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 1222>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1211 >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 '단독주택' 54.8%, '자가'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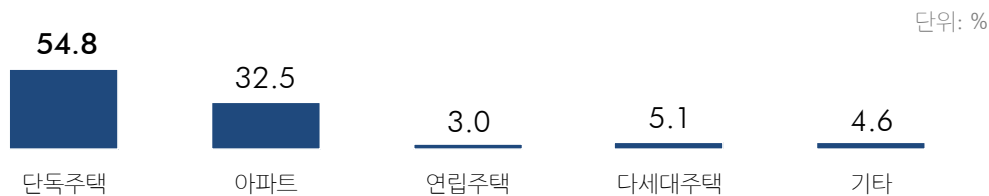
'단독주택' 54.8%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4.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2.5%), '다세대주택'(5.1%), '연립주택'(3.0%) 순이었다.

| 그림1211 - (1) - ① | 주택종류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 표1211 - (1) | 주택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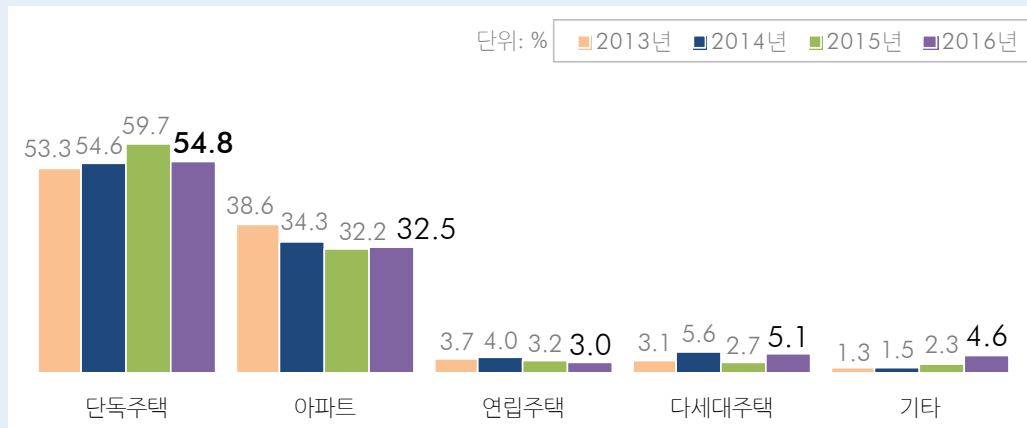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3,952)			54.8	32.5	3.0	5.1	4.6
읍/면	읍	(1,636)	28.8	59.2	5.7	4.6	1.7
	면	(2,316)	73.1	13.7	1.1	5.5	6.6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85.9	7.5	0.8	3.4	2.3
	비농어가	(2,549)	37.6	46.3	4.2	6.1	5.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22.4	69.5	4.1	3.3	0.7
	40대	(714)	40.8	43.9	3.5	2.8	9.0
	50대	(801)	64.8	15.9	4.5	9.6	5.2
	60대	(597)	74.1	7.5	1.5	10.5	6.5
	70대 이상	(761)	88.0	6.7	0.6	0.9	3.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33.8	47.5	3.7	8.8	6.2
	선주민	(1,870)	78.0	15.9	2.3	1.0	2.8

주택종류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211 - (1) - ② | 주택종류 - 추이



 '자가' 78.2%

주택의 점유형태는?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1)]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78.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10.9%), '보증부 월세'(4.6%), '무상'(4.1%), '월세(사글세)'(2.2%)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전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1 - (2) - ①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합계 (3,951)		78.2	10.9	4.6	2.2	4.1
읍/면	읍 (1,636)	74.5	12.8	6.9	2.1	3.7
	면 (2,315)	80.8	9.6	3.0	2.2	4.4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90.7	4.1	0.8	1.7	2.8
	비농어가 (2,548)	71.4	14.6	6.7	2.4	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6.3	18.9	8.7	2.6	3.5
	40대 (714)	74.4	9.7	6.2	2.9	6.8
	50대 (801)	78.3	13.4	2.4	2.0	3.8
	60대 (597)	87.2	6.3	2.6	1.7	2.2
	70대 이상 (759)	91.6	1.5	1.1	1.4	4.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65.9	18.1	7.0	3.7	5.3
	선주민 (1,869)	92.0	2.8	1.9	0.4	2.9

 주택 점유형태 - 추이

○ 2013년 이후 비슷한 분포를 보임

| 표1211 - (2) - ② | 주택 점유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2016년	(3,951)	78.2	10.9	4.6	2.2	4.1
2015년	(3,930)	78.8	8.8	5.8	3.8	2.8
2014년	(3,938)	78.8	8.6	6.9	1.7	3.9
2013년	(2,763)	81.1	9.9	3.7	3.7	1.8

1212> 주택의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1%(n=3,839)]

▶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4.8년

‘2000년대’(34.9%), ‘1990년대’(25.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2%), ‘1950년대 이전’(7.7%), ‘1970년대’(7.5%), ‘1960년대’(4.3%)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30.7%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4.8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주택 건축(신축)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12 | 주택의 건축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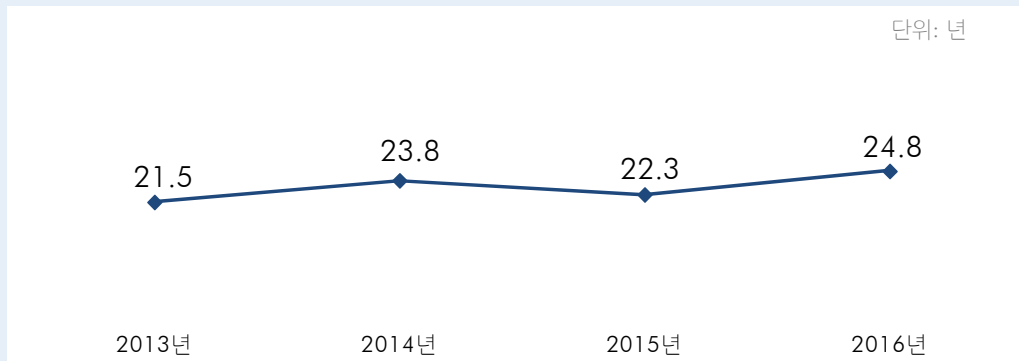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839)			24.8년	7.7	4.3	7.5	11.2	25.9	34.9	8.6
읍/면	읍	(1,603)	19.7년	3.8	2.0	2.8	8.2	25.8	48.1	9.2
	면	(2,236)	28.4년	10.5	5.9	10.8	13.3	25.9	25.4	8.2
영농 여부	농어가	(1,357)	29.7년	10.5	6.2	11.3	14.5	29.8	21.9	5.8
	비농어가	(2,482)	22.1년	6.2	3.2	5.4	9.3	23.7	42.0	1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62)	18.0년	3.7	1.7	2.8	5.8	20.9	55.1	10.1
	40대	(689)	18.9년	2.5	2.7	4.2	8.5	25.7	46.4	10.0
	50대	(756)	24.2년	6.4	4.3	8.8	11.1	30.6	26.4	12.5
	60대	(582)	28.0년	7.4	5.1	11.1	18.0	30.6	22.2	5.7
	70대 이상	(750)	37.9년	19.7	8.8	12.9	16.1	24.7	14.2	3.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991)	19.5년	3.0	1.9	5.4	8.6	25.2	45.6	10.3
	선주민	(1,848)	30.5년	12.7	6.9	9.7	13.9	26.5	23.4	6.8

주택의 건축년도-추이

- 2013년에 비해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가 더 길어짐(+3.3년)

| 그림1212 |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1213 > 주택수리 여부

- ▶ '리모델링'(19.2%) 등 수리한 적 있음 26.4%
- ▶ 주택수리 후 평균 기간은 10.2년

 '리모델링'(19.2%) 등 수리한 적 있음 26.4%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수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한 적이 있는 비율이 26.4%이었고, 이 중 '리모델링'(19.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축'(4.3%), '증축'(2.9%)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 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서 '리모델링' 등 [수리한 적 있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3 - (1) | 주택수리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리한 적 있음	개축	증축	리모델링	수리한 적 없음
합계 (3,952)			26.4	4.3	2.9	19.2	73.6
읍/면	읍	(1,636)	15.5	2.9	1.2	11.4	84.5
	면	(2,316)	34.1	5.3	4.1	24.6	65.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31.2	7.4	5.1	18.6	68.8
	비농어가	(2,549)	23.8	2.6	1.7	19.4	76.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7.0	1.4	0.5	15.2	83.0
	40대	(714)	26.3	3.0	2.2	21.1	73.7
	50대	(801)	26.7	4.2	4.7	17.7	73.3
	60대	(597)	33.2	5.9	4.0	23.3	66.8
	70대 이상	(761)	34.2	8.6	4.4	21.2	65.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22.6	2.5	1.9	18.1	77.4
	선주민	(1,870)	30.7	6.3	4.0	20.3	69.3
건축년도	1980년대 이전	(1,176)	54.0	11.3	7.7	35.0	46.0
	1990년대	(993)	21.0	2.6	1.3	17.1	79.0
	2000년대 이후	(1,670)	10.7	0.6	0.6	9.5	89.3



주택의 수리 후 평균 기간 10.2년

(주택 수리층에 한해)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주택 수리층(n=1,04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8%(n=1,031)]

‘2010~2012년’(25.6%), ‘2013~2015년’(17.5%), ‘2016년’(8.0%) 등 2010년대에 수리된 주택 비율이 51.1%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0년대’(26.3%), ‘1990년대’(16.9%), ‘1980년대 이전’(5.7%) 순이었다. 농어촌 주택의 수리 후 평균 기간은 10.2년이었다.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주택 수리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13 - (2) | 주택수리 시기

단위 : %(명)

구분			평균	198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2년	2013~ 2015년	2016년
합계 (1,031)			10.2년	5.7	16.9	26.3	25.6	17.5	8.0
읍/면	읍	(250)	9.6년	5.2	17.8	21.7	25.4	21.3	8.5
	면	(781)	10.5년	5.8	16.7	27.7	25.6	16.3	7.9
영농 여부	농어가	(434)	11.7년	7.4	20.2	32.0	17.6	15.4	7.4
	비농어가	(597)	9.2년	4.5	14.6	22.1	31.3	19.0	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84)	8.6년	6.0	2.7	34.2	27.8	19.5	10.0
	40대	(185)	7.8년		15.6	21.4	36.8	18.6	7.5
	50대	(208)	8.3년	1.5	16.8	24.2	27.0	24.7	5.9
	60대	(196)	9.7년	4.4	20.3	21.5	26.2	13.2	14.5
	70대 이상	(258)	15.2년	13.9	25.7	29.5	14.4	12.7	3.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63)	7.2년	3.1	9.3	19.4	36.8	20.8	10.7
	선주민	(569)	12.7년	7.8	23.2	31.9	16.4	14.8	5.9

121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 [이주민] 52.7% > [선주민] 47.3%
-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9.7%)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69.4%

 [이주민] 52.7% > [선주민] 47.3%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이주했다’(44.3%),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8.4%) 등 [이주민]이 52.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7.3%) 보다 많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

| 표1214 - (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단위 : %(명)

구분			이주 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	
합계			(3,952)	44.3	8.4	52.7	47.3	47.3
읍/면	읍	(1,636)	58.8	9.9	68.7	31.3	31.3	
	면	(2,316)	34.1	7.3	41.4	58.6	58.6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1.1	9.3	30.4	69.6	69.6	
	비농어가	(2,549)	57.1	7.9	64.9	35.1	3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1.3	8.2	69.5	30.5	30.5	
	40대	(714)	50.5	12.8	63.3	36.7	36.7	
	50대	(801)	41.1	10.7	51.8	48.2	48.2	
	60대	(597)	32.8	6.9	39.7	60.3	60.3	
	70대 이상	(761)	26.8	3.2	30.0	70.0	70.0	

이주민의 평균 거주기간 '타향'(11.2년) > '고향'(9.3년)

(이주층에 한해)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주층(n=1,751/33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1,748)/98.2%(n=324)]

‘이주했다’는 층(n=1,751)의 이주 후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27.6%), ‘1~3년 미만’(19.8%), ‘3~5년 미만’(10.6%), ‘1년 미만’(7.3%) 등 [10년 미만] 비율이 65.3%이었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23.5%), ‘30~50년 미만’(8.6%), ‘50년 이상’(2.5%)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1214 - (2) - ① | 이주 후 거주기간(‘이주했다’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1,748)		11.2년	7.3	19.8	10.6	27.6	23.5	8.6	2.5
읍/면	읍 (961)	8.1년	8.7	27.8	12.3	25.0	20.9	4.2	1.1
	면 (788)	15.0년	5.5	10.1	8.6	30.9	26.7	13.9	4.2
영농 여부	농어가 (297)	19.9년	2.5	5.7	6.4	25.9	30.5	21.7	7.2
	비농어가 (1,452)	9.4년	8.3	22.7	11.5	28.0	22.1	5.9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2)	4.6년	10.3	35.8	16.2	27.9	8.3	1.4	
	40대 (358)	8.1년	9.5	15.6	9.3	38.8	24.7	1.4	0.7
	50대 (329)	13.0년	5.0	9.6	6.9	29.3	40.1	8.5	0.6
	60대 (196)	18.7년	2.6	5.0	6.4	22.6	35.7	25.9	1.9
	70대 이상 (204)	28.2년	1.9	6.1	5.0	9.3	32.4	27.8	17.6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n=330)의 이주 후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34.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23.3%), ‘1~3년 미만’(5.8%), ‘1년 미만’(4.4%) 등 [10년 미만](33.5%), ‘10~30년 미만’(26.2%), ‘30~50년 미만’(4.8%), ‘50년 이상’(0.6%) 순이었다. 타향 이주층에 비해 ‘3~5년 미만’ 비율이 높아(+12.7%p) 평균 거주기간(9.3년)이 약간 더 짧은(1.9년)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1214 - (2) - ② | 이주 후 거주기간(‘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324)			9.3년	4.4	5.8	23.3	34.9	26.2	4.8	0.6
읍/면	읍 (159)		6.2년	5.9	6.6	40.4	26.1	19.6	1.3	
	면 (165)		12.3년	3.0	4.9	6.8	43.3	32.6	8.2	1.2
영농 여부	농어가 (126)		12.0년	0.1	3.1	40.2	11.1	36.6	8.2	0.7
	비농어가 (198)		7.6년	7.2	7.4	12.6	50.0	19.7	2.7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8)		4.3년	12.2	2.2	53.9	26.5	5.2		
	40대 (90)		9.1년	1.5	11.0	1.9	45.7	39.9		
	50대 (81)		7.2년	1.2	5.0	21.1	48.8	23.9		
	60대 (41)		16.7년	2.2	3.0	21.9	16.9	31.3	24.7	
	70대 이상 (24)		22.4년	1.7	6.6	0.6	9.2	51.3	22.7	8.0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9.7%) 등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69.4%

(이주층에 한해)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주층(n=2,08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2%(n=2,002)]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9.7%),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9.6%)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69.4%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7%), ‘중소도시(동)’(12.9%)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30.6%) 보다 많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이주했다 층에서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 6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4 - (3)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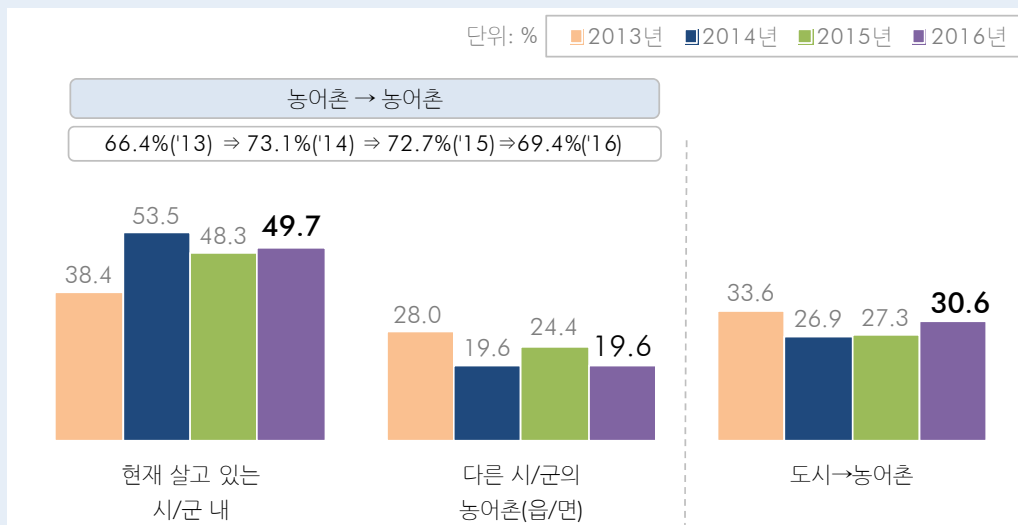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농어촌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농어촌
합계 (2,002)			49.7	19.6	69.4	12.9	17.7	30.6
읍/면	읍 (1,072)	53.3	18.0	71.2	11.0	17.8	28.8	
	면 (931)	45.7	21.6	67.3	15.2	17.5	32.7	
영농 여부	농어가 (413)	40.0	25.0	65.0	14.7	20.3	35.0	
	비농어가 (1,589)	52.3	18.2	70.5	12.5	17.0	2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14)	46.0	23.2	69.2	13.0	17.8	30.8	
	40대 (429)	55.1	13.5	68.6	10.0	21.3	31.4	
	50대 (404)	41.5	19.8	61.4	20.9	17.7	38.6	
	60대 (232)	55.1	15.9	71.0	11.3	17.7	29.0	
	70대 이상 (223)	60.5	23.6	84.1	5.6	10.3	15.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했다 (1,679)	53.4	16.6	70.0	13.3	16.8	30.0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323)	30.6	35.5	66.1	11.3	22.6	33.9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5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비율이 감소(-4.8%p)하여 2014년과 비슷한 수준

| 그림1214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3년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1215> 향후 이주의향

- ▶ 이주의향층 9.5%,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65.5%
- ▶ 주된 이주의향 이유 '주택 관련 사유'(38.4%), '자녀교육 때문에'(27.5%)

이주의향층 9.5%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9.5%로, 읍지역, 비농어가, 40~60대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15 - (1) | 향후 이주의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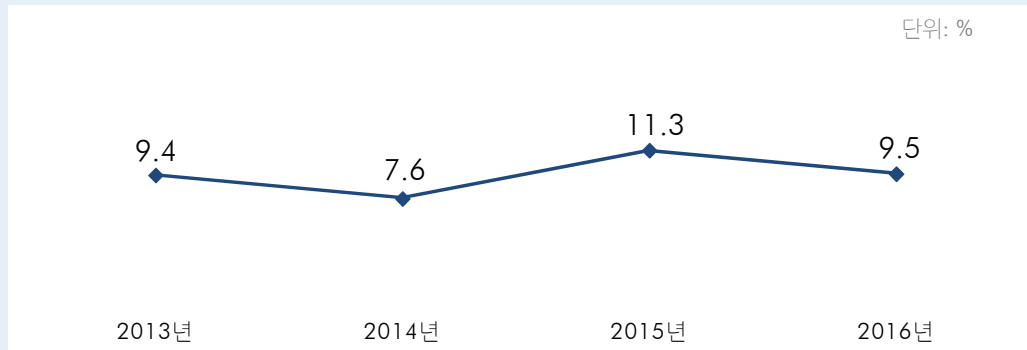
구분			이주의향층*	잘 모르겠다	없다
합계 (3,952)			9.5	9.1	81.4
읍/면	읍	(1,636)	15.0	15.1	69.8
	면	(2,316)	5.6	4.9	89.5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8	2.6	91.5
	비농어가	(2,549)	11.5	12.7	75.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60)	8.2	8.1	83.7
	40대	(2,292)	10.4	9.9	79.7
	50대	(1,080)	21.2	14.1	64.7
	60대	(714)	12.9	11.8	75.3
	70대 이상	(801)	4.2	11.2	84.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861)	14.6	10.5	74.9
	선주민	(2,091)	5.0	7.9	87.1

* 향후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

향후 이주의향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수준(+0.1%p)

| 그림1215 - (1) | 향후 이주의향 - 추이



* 2016년 문항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향후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을 향후 이주의향층으로 제시함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65.5%

(이주의향층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주의향층(n=376)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8.1%(n=369)]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61.9%),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2.8%),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0.9%)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비율이 65.5%로, ‘중소도시(동)’(21.4%),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1.8%)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3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동생활, 요양 등 ‘복지시설 이용’ 비율은 0.3%이었다.

비농어가, 60대 이하 연령층, 선주민층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농어가, 이주민층에서는 ‘중소도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5- (2) | 이주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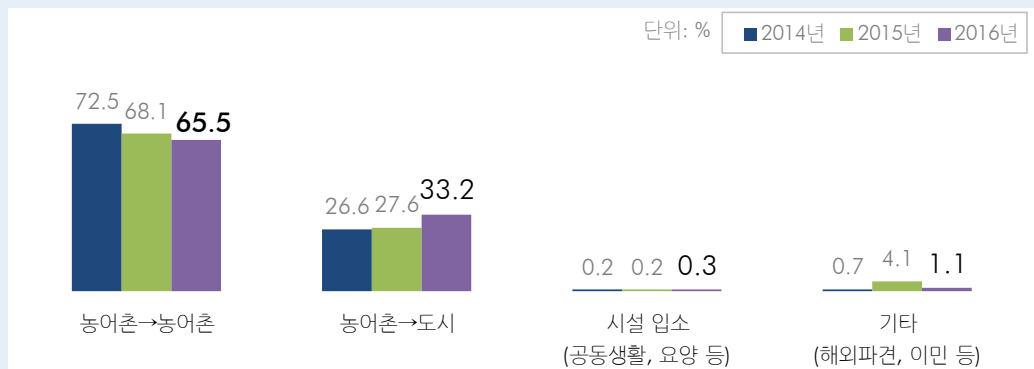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농어촌→농어촌			농어촌→도시		복지시설 이용 (공동 생활, 요양 등)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합계 (369)			61.9	2.8	0.9	21.4	11.8	0.3	1.1
읍/면	읍	(241)	56.7	1.6	0.9	26.8	13.1		0.8
	면	(127)	71.7	4.8	0.7	11.1	9.3	0.7	1.7
영농 여부	농어가	(80)	34.6	4.0	0.5	54.3	5.9		0.7
	비농어가	(289)	69.4	2.4	1.0	12.3	13.4	0.3	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24)	60.4	0.3	0.4	26.5	11.9	0.4	
	40대	(92)	64.1	4.6	1.4	10.4	15.7		3.8
	50대	(31)	70.4	9.1		18.4	2.1		
	60대	(11)	65.1	7.4	4.8	7.3	10.2		5.2
	70대 이상	(9)	41.7	16.5	4.1	33.7	4.0		
현 거주지 교향 여부	이주민	(285)	55.3	3.2	1.0	26.0	13.0	0.3	1.2
	선주민	(84)	84.3	1.2	0.5	5.6	7.8		0.7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감소추세이며, [농어촌→도시] 비율은 약간 증가(+5.6%p)

| 그림1215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주된 이주의향 이유 '주택 관련 사유'(38.4%), '자녀교육 때문에'(27.5%)

(이주의향층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의향층(n=376)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8.4%(n=370)]

이주 희망 이유는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38.4%), '자녀교육 때문에'(27.5%)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16.2%),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0.1%),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2.9%),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건강상의 이유로'(각 1.9%)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40~50대 연령층, 선주민층, 농어촌→농어촌 이주 희망층에서는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농어촌→도시 이주 희망층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면지역, 비농어가, 이주민층에서는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5 - (3) - ①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주택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자녀 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기타
합계 (370)		16.2	38.4	1.9	2.9	1.9	27.5	10.1	1.0
읍/면	읍 (245)	12.9	41.3	2.1	3.2	0.8	33.0	6.8	
	면 (125)	22.9	32.8	1.4	2.5	4.0	16.8	16.6	3.1
영농 여부	농어가 (80)	3.6	17.8		4.6	5.9	59.5	4.8	3.9
	비농어가 (290)	19.8	44.1	2.4	2.5	0.8	18.7	11.6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28)	17.4	31.3	2.0	0.8	2.1	36.3	10.1	
	40대 (90)	15.0	55.5		3.5	1.5	20.7	3.9	
	50대 (31)	16.1	57.5	0.8	7.2		0.5	17.9	
	60대 (11)	7.7	19.6	17.4	9.1	5.1		26.7	14.3
	70대 이상 (9)	10.1	9.1		27.8	2.8	3.6	22.9	23.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86)	20.6	32.1	0.3	2.5	2.3	30.8	10.6	0.8
	선주민 (84)	1.4	60.0	7.1	4.4	0.3	16.6	8.4	1.9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240)	13.1	50.3	2.4	3.9	2.8	15.2	11.6	0.7
	농어촌→도시 (120)	22.8	16.2	0.9	1.2	0.2	54.4	2.4	1.9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5년에 비해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이 증가(+10.1%p)
-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비율이 감소(-12.6%p)하여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1215 - (3) - ②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 %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2016년	16.2	38.4	1.9	2.9	1.9	27.5	10.1
2015년	22.0	28.3	2.9	7.1	1.6	15.0	22.7
2014년	21.8	30.0	3.9	5.5	1.8	11.4	24.3
2013년	26.4	23.1	3.5	6.3	3.5	17.1	13.2

* '기타'는 제외함

1216>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 ▶ 월 평균 생활비 138.2만원, 주된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51.9만원
-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 47.1%, 월 평균 저축액 71.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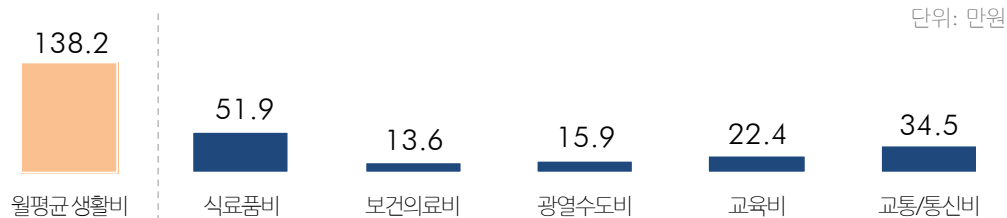
 월 평균 생활비 138.2만원, 주된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51.9만원

[2015년('15.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1%(n=3,875)]

월 평균 생활비는 138.2만원이었고, '식료품비'(51.9만원) 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교통/통신비'는 34.5만원, '교육비'는 22.4만원, '광열수도비'는 15.9만원, '보건의료비'는 13.6만원이었다.

| 그림1216 - (1) | 월 평균 생활비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균 생활비가 다소 높았다.

| 표1216 - (1)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명)

구분			월 평균 생활비	식료품비	보건 의료비	광열 수도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합계 (3,875)			138.2만원	51.9	13.6	15.9	22.4	34.5
읍/면	읍	(1,594)	152.5만원	57.2	11.6	16.5	26.7	40.4
	면	(2,281)	128.3만원	48.1	14.9	15.5	19.3	30.4
영농 여부	농어가	(1,382)	126.4만원	44.5	15.8	16.3	16.6	33.2
	비농어가	(2,493)	144.8만원	56.0	12.4	15.6	25.6	35.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66)	168.6만원	68.3	12.0	17.0	28.7	42.7
	40대	(699)	199.7만원	68.3	13.9	18.3	52.2	46.9
	50대	(785)	142.4만원	50.9	14.4	16.9	20.9	39.4
	60대	(590)	95.7만원	37.8	14.0	14.7	3.5	25.7
	70대 이상	(736)	65.6만원	24.9	14.3	11.9	1.6	12.9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 47.1%, 월 평균 저축액 71.7만원

[2015년('15.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 평균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축 여부 -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월 평균 저축액 - 저축층(n=1,861) 기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7.1%이었으며, 월 평균 저축액은 '50~100만원 미만'(28.7%)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150만원 미만'(20.9%), '30~50만원 미만'(19.4%), '30만원 미만'(18.7%), '150만원 이상'(12.4%) 순이었다. 월 평균 저축액은 71.7만원 이었다.

연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 에서 저축층 비율과 월 평균 저축액이 높았다.

| 표1216-(2) | 저축 여부 및 월 평균 저축액

단위 : %(명)

구분	저축여부		월 평균 저축액						
	사례수	저축층	사례수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합계	(3,952)	47.1	(1,861)	71.7만원	18.7	19.4	28.7	20.9	12.4
읍/면	읍	(1,636)	57.6	(942)	76.0만원	17.1	12.8	36.6	20.1
	면	(2,316)	39.7	(919)	67.3만원	20.4	26.2	20.6	21.6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39.6	(556)	67.0만원	20.3	23.9	24.1	20.8
	비농어가	(2,549)	51.2	(1,305)	73.7만원	18.0	17.5	30.6	2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73.2	(790)	72.6만원	14.5	17.9	35.5	20.8
	40대	(714)	57.4	(410)	78.1만원	21.4	8.8	28.5	26.9
	50대	(801)	44.8	(359)	74.6만원	16.7	26.0	23.1	18.2
	60대	(597)	37.8	(225)	61.1만원	24.2	30.6	17.0	19.3
	70대 이상	(761)	10.1	(77)	46.2만원	40.9	26.7	19.3	6.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72.3	(272)	78.3만원	12.9	5.0	42.1	30.6
	이주 비의향층	(3,576)	44.4	(1,589)	70.6만원	19.7	21.8	26.4	19.2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 2010년에 저축 가구 비율이 감소(-7.6%p)했다가 2012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

| 그림1216 - (2) |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1217>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평균 63.4점
-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가족'(41.5%), '건강'(33.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평균 63.4점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46)]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3.4점이었으며,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더 높았다.

| 표1217-(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점, %(명)

구분			평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행복하다									
				1	2	3	4	5	6	7	8	9	10
합계 (3,946)			63.4	0.6	1.6	2.7	5.3	21.0	25.3	17.2	17.1	5.6	3.7
읍/면	읍	(1,632)	62.9	0.6	2.3	2.8	4.7	20.3	27.5	16.4	17.1	4.9	3.4
	면	(2,313)	63.8	0.6	1.1	2.7	5.7	21.4	23.7	17.8	17.1	6.1	3.9
영농 여부	농어가	(1,400)	61.9	0.7	0.9	3.3	6.0	23.8	25.6	18.5	13.5	4.7	3.0
	비농어가	(2,546)	64.2	0.5	2.0	2.4	4.9	19.4	25.1	16.5	19.1	6.1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8.1	0.9		1.1	2.4	16.8	26.9	13.0	24.5	9.4	5.1
	40대	(711)	63.6	0.6	4.6	4.0	3.1	17.9	20.3	17.8	23.3	4.5	3.9
	50대	(801)	63.2	0.4	1.7	1.0	4.9	21.5	28.1	21.8	12.5	4.3	3.8
	60대	(595)	61.8	0.5	1.4	2.7	7.1	23.2	22.9	22.4	12.3	5.6	1.9
	70대 이상	(759)	58.0	0.4	1.1	5.5	10.4	27.4	26.7	13.6	9.3	2.8	2.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1)	64.4	0.8	2.0	2.6	4.8	19.5	23.4	16.6	20.0	6.6	3.9
	선주민	(1,865)	62.3	0.4	1.2	2.9	5.8	22.6	27.4	17.9	13.9	4.6	3.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69.4	0.6	0.3	1.6	4.9	12.5	16.6	18.0	32.6	9.0	3.9
	이주 비의향층	(3,570)	62.8	0.6	1.7	2.8	5.3	21.8	26.2	17.1	15.5	5.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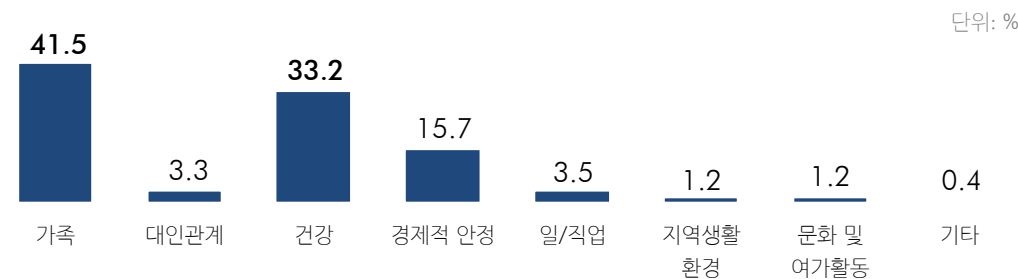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가족'(41.5%), '건강'(33.2%)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35), 중복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41.5%), '건강'(33.2%)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5.7%), '일/직업'(3.5%), '대인관계'(3.3%), '지역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각 1.2%) 순이었다.

| 그림1217 | 행복의 영향 요인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비율이 높았다.

| 표1217 - (2)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명)

구분			가족	대인 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지역생활 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	기타
합계 (3,935)			41.5	3.3	33.2	15.7	3.5	1.2	1.2	0.4
읍/면	읍	(1,622)	43.6	3.6	31.3	15.5	2.5	1.2	2.0	0.3
	면	(2,313)	40.0	3.1	34.5	15.9	4.1	1.3	0.7	0.4
영농 여부	농어가	(1,389)	39.5	3.2	37.5	13.9	3.8	1.1	0.7	0.1
	비농어가	(2,546)	42.5	3.4	30.8	16.7	3.3	1.3	1.5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68)	49.9	4.3	23.3	16.0	3.0	0.8	2.0	0.6
	40대	(712)	45.8	2.0	29.4	15.2	4.3	1.8	1.1	0.5
	50대	(799)	40.0	3.3	30.4	18.0	5.2	1.8	1.1	0.3
	60대	(596)	34.1	3.3	39.6	16.1	4.8	1.0	1.0	0.2
	70대 이상	(760)	32.8	3.4	48.6	13.1	0.5	0.8	0.5	0.4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

| 표1217-(3)-①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추이 |

단위 : %(명)

[illegible]

- 행복의 영향 요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1217-(3)-2 |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

단위 : %(명)

구분		가족	대인 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지역생활 환경	문화 및 여가활동	기타
2016년	(3,935)	41.5	3.3	33.2	15.7	3.5	1.2	1.2	0.4
2015년	(3,916)	39.4	6.3	35.2	13.3	3.6	1.8		0.4
2014년	(3,931)	41.1	6.2	35.7	12.8	2.9	0.9		0.5

1218> 농어촌생활 만족도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균 51.7점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51.7점이었으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 만족도(52.6점)가 각 생활 영역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50.9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영역별로는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 ‘자연재해’(평균 66.2점), ‘환경·경관’(평균 62.7점)에 대한 만족도가 ‘기초생활기반’(평균 47.5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6.5점), ‘교육 여건’(평균 44.4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41.7점)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교육 여건은 읍지역에서,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은 면지역에서 다소 높으며,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218-(1) | 농어촌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농어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합계		51.7	52.6	50.9	44.4	41.7	47.5	62.7	46.5	66.2	66.8
읍/면	읍	52.0	53.0	51.0	46.5	42.2	47.9	61.2	47.7	64.0	64.3
	면	51.5	52.3	50.8	42.9	41.3	47.1	63.8	45.7	67.8	68.6
영농 여부	농어가	52.1	53.5	50.6	40.0	39.8	46.4	65.7	47.5	67.5	69.3
	비농어가	51.6	52.1	51.1	46.8	42.7	48.1	61.1	46.0	65.5	65.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52.0	49.7	45.7	38.9	45.3	59.9	47.2	65.5	65.0
	40대	50.9	51.1	50.7	44.6	42.1	48.1	64.0	45.3	64.3	64.8
	50대	51.2	52.3	50.2	42.7	41.0	46.9	62.1	46.2	65.3	66.4
	60대	52.2	52.7	51.6	43.4	42.7	49.5	62.9	47.1	67.4	67.9
	70대 이상	54.0	55.1	52.9	44.7	45.1	48.9	66.2	46.7	69.2	71.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51.4	53.8	49.0	40.7	37.4	46.2	61.9	46.7	64.7	65.5
	이주 비의향층	51.8	52.5	51.1	44.8	42.1	47.6	62.8	46.5	66.4	67.0

농어촌생활 만족도 - 추이

- 생활영역 구성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경제활동 여건'(+3.0점), '문화여가'(+2.2점)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환경경관'은 감소(-2.7점)

| 표1218 - (2) | 농어촌생활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농어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교육 여건		문화 여가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사 교육 여건	학교 교육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2016년	(3,952)	51.7	52.6	50.9	44.4		41.7	47.5	62.7	46.5	66.2	66.8
2015년	(3,934)	52.5	55.4	49.6	42.6		39.5	46.6	65.4	43.5	61.5	
2014년	(3,939)	48.9	50.0	47.7	43.4		38.9	47.5	63.5	42.9	61.3	
2013년	(2,764)				47.3	51.8	41.4	51.0	60.2	41.3		

* 2016년에 제외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문항은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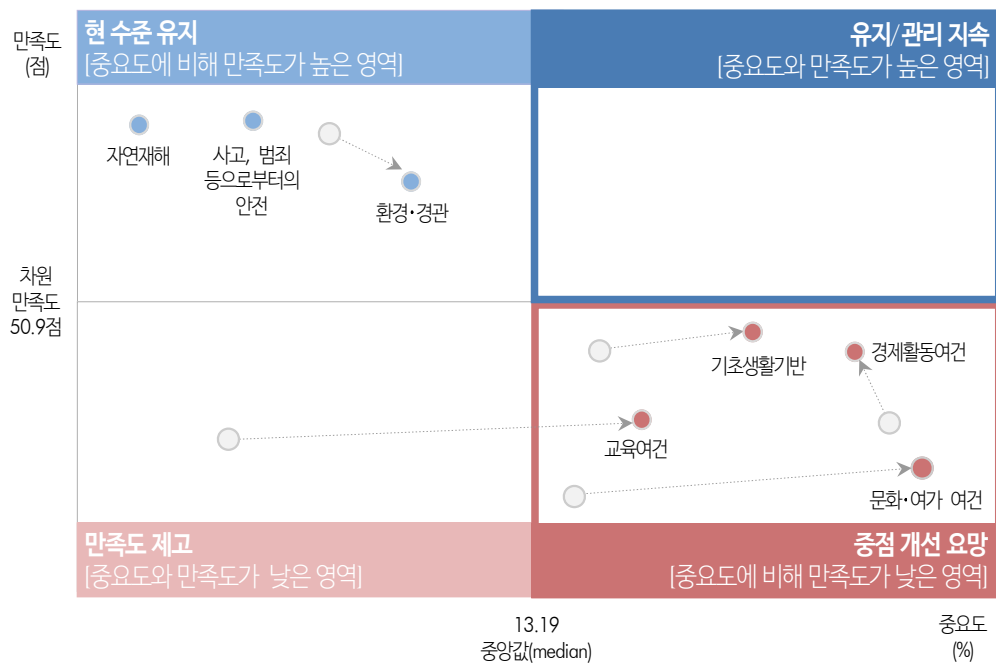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차원 만족도 기준]

▶ [현 수준 유지 영역] :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환경·경관'
[중점개선 요망 영역] : '교육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환경·경관'의 경우,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현 수준 유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비 '교육여건'의 경우,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여 [중점개선 요망]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9 >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 ▶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평균 48.2점
- ▶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만족도 평균 46.9점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평균 48.2점

귀하께서는 농어촌의 보건의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47)]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는 평균 48.2점으로 ‘다소 불만족’(21.4%) 등 [불만족(합)](25.2%) 비율이 ‘다소 만족’(18.5%) 등 [만족(합)](20.3%)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219 - (1) |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47)			48.2점	1.8	18.5	20.3	54.5	21.4	3.8	25.2
읍/면	읍 (1,631)	50.5점	2.7	19.9	22.6	56.6	18.5	2.3	20.8	
	면 (2,316)	46.6점	1.1	17.5	18.6	53.0	23.5	4.9	28.4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49.9점	1.9	23.0	25.0	50.5	21.6	2.9	24.5	
	비농어가 (2,545)	47.4점	1.7	16.0	17.7	56.7	21.4	4.3	25.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6)	47.1점	0.9	18.0	18.8	55.1	20.9	5.2	26.1	
	40대 (714)	44.8점	1.4	12.2	13.6	55.9	25.2	5.2	30.4	
	50대 (801)	48.7점	0.7	18.5	19.2	58.5	19.4	2.9	22.3	
	60대 (595)	50.0점	2.2	21.3	23.5	53.2	21.1	2.2	23.3	
	70대 이상 (761)	51.2점	4.3	22.8	27.1	49.1	21.2	2.6	23.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78)	47.3점	1.3	17.5	18.7	54.6	22.5	4.2	26.7	
	선주민 (1,870)	49.3점	2.3	19.6	21.9	54.4	20.3	3.4	23.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2)	50.6점	1.9	26.5	28.4	48.5	18.1	5.0	23.1	
	이주 비의향층 (3,575)	48.0점	1.8	17.6	19.4	55.1	21.8	3.7	25.5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의로 만족도 평균 46.9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보건의로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1)]

거주지역의 보건의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6.9점으로 ‘다소 불만족’(24.7%) 등 [불만족](합)(30.0%) 비율이 ‘다소 만족’(19.5%)등 [만족(합)](21.1%)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219 - (2) | 거주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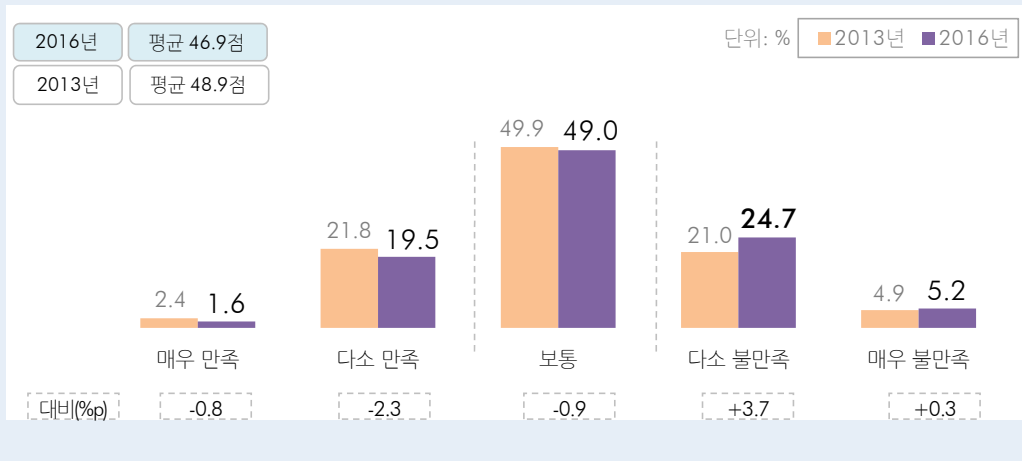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1)			46.9점	1.6	19.5	21.1	49.0	24.7	5.2	30.0
읍/면	읍 (1,635)	48.0점	2.2	19.3	21.4	50.9	23.8	3.8	27.6	
	면 (2,316)	46.0점	1.2	19.6	20.8	47.6	25.4	6.2	31.6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47.3점	1.8	20.3	22.1	46.4	28.0	3.4	31.4	
	비농어가 (2,549)	46.6점	1.5	19.0	20.5	50.3	22.9	6.2	29.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1점	1.1	18.5	19.6	45.3	30.1	5.1	35.1	
	40대 (714)	43.1점	0.8	14.8	15.6	53.2	18.7	12.6	31.3	
	50대 (801)	48.3점	1.1	20.1	21.2	52.3	23.8	2.7	26.5	
	60대 (596)	49.0점	1.7	21.4	23.1	50.7	23.8	2.4	26.2	
	70대 이상 (761)	49.7점	3.7	23.0	26.7	45.2	24.5	3.5	28.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1)	45.3점	1.2	16.6	17.8	50.5	25.5	6.2	31.7	
	선주민 (1,870)	48.6점	2.0	22.7	24.7	47.2	23.9	4.2	28.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42.5점	0.5	15.0	15.5	45.1	32.6	6.8	39.4	
	이주 비의향층 (3,575)	47.3점	1.7	19.9	21.6	49.4	23.9	5.1	29.0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3)	58.1점	2.9	39.0	41.9	46.5	10.6	0.9	11.6	
	보건소(지소) (120)	59.1점	7.5	33.7	41.2	47.7	10.1	1.1	11.1	
	병(의)원 (3,297)	46.8점	1.3	19.1	20.4	49.8	25.1	4.6	29.8	
	한방병(의)원 (54)	46.9점	2.5	21.9	24.4	45.7	20.5	9.4	29.9	
	종합병원 (426)	42.3점	1.7	15.8	17.5	43.4	28.0	11.0	39.0	

거주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불만족(합)] 비율이 약간 증가(+4.0%p)하여,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2.0점)을 보임

| 그림1219 | 거주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22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 ▶ '기초연금' 인지도가 70.2%로 가장 높음
- ▶ '기초연금' 경험률이 20.9%로 가장 높음
- ▶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평균 67.9점

'기초연금' 인지도가 70.2%로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농촌 주민(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사업별 각 100.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기초연금'(70.2%)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31.7%,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28.1%,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26.5%의 인지도를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50~60대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 표1220- (1)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3,952)			31.7	28.1	26.5	70.2
읍/면	읍	(1,636)	22.6	18.5	19.0	63.7
	면	(2,316)	38.1	34.9	31.7	74.7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5.5	52.2	49.3	80.1
	비농어가	(2,549)	18.6	14.9	13.8	6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7.9	13.9	13.8	56.4
	40대	(714)	30.2	25.6	26.1	74.2
	50대	(801)	44.8	41.8	36.5	70.4
	60대	(597)	43.7	41.3	38.9	78.5
	70대 이상	(761)	29.3	25.9	24.4	79.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22.7	19.7	17.8	63.7
	선주민	(1,870)	41.7	37.4	36.1	77.4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비해당 26.2%

'기초연금' 경험률이 20.9%로 가장 높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사업 인지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사업별 각 100.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농촌 주민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기초연금'(20.9%)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11.4%,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8.9%,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5.4%의 경험률을 보였다.

각 사업별 인지층에 한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경험층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31.7%, '기초연금'은 29.8%,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20.6%의 경험률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경험층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았다.

| 표1220-(2)-①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합계		(3,952)	11.4	(3,952)	8.9	(3,952)	5.4	(3,952)	20.9
읍/면	읍	(1,636)	6.7	(1,636)	3.0	(1,636)	4.2	(1,636)	12.3
	면	(2,316)	14.7	(2,316)	13.1	(2,316)	6.3	(2,316)	26.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8.5	(1,403)	21.6	(1,403)	15.0	(1,403)	32.5
	비농어가	(2,549)	1.9	(2,549)	1.9	(2,549)	0.2	(2,549)	14.5

| 표1220-(2)-②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합계		(1,251)	35.9	(1,111)	31.7	(1,045)	20.6	(2,774)	29.8
읍/면	읍	(369)	29.5	(303)	16.4	(311)	21.9	(1,043)	19.3
	면	(882)	38.5	(808)	37.4	(734)	20.0	(1,731)	36.0
영농 여부	농어가	(778)	51.4	(732)	41.5	(692)	30.3	(1,124)	40.6
	비농어가	(473)	10.3	(379)	12.8	(353)	1.4	(1,650)	22.4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평균 67.9점

(사업 경험층에 한해)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사업 경험층 기준]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는 평균 67.9점이었으며, 제도별로는 ‘기초연금’(평균 72.8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평균 67.9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평균 67.5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평균 63.5점) 순이었다.

| 표1220 - (3) |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67.9	67.5	67.9	63.5	72.8
읍/면	읍	68.0	67.3	68.2	63.8	72.6
	면	67.9	67.6	67.8	63.3	72.9
영농 여부	농어가	68.0	67.5	67.8	63.5	73.1
	비농어가	67.9	67.5	68.0	63.5	7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7.9	67.1	68.0	63.9	72.6
	40대	68.2	67.9	68.1	63.7	73.1
	50대	67.5	67.4	66.6	63.3	72.8
	60대	67.6	67.5	68.5	62.9	71.4
	70대 이상	68.4	67.8	68.6	63.4	73.9

1221 >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 ▶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평균 47.9점
- ▶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 만족도 평균 47.1점

농어촌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47.9점

귀하께서는 농어촌의 복지 여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0)]

농어촌의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9점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5.4%이었고, '다소 불만족'(23.3%) 등 [불만족(합)](26.0%) 비율이 '다소 만족'(17.0%) 등 [만족(합)](18.6%)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생활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농어촌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21 - (1) | 농어촌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0)			47.9점	1.6	17.0	18.6	55.4	23.3	2.7	26.0
읍/면	읍	(1,636)	47.8점	1.8	16.0	17.8	55.9	23.9	2.3	26.2
	면	(2,314)	47.9점	1.4	17.8	19.2	55.0	22.9	3.0	25.8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9.6점	2.2	21.7	24.0	50.7	22.8	2.5	25.3
	비농어가	(2,547)	46.9점	1.2	14.5	15.7	58.0	23.5	2.8	26.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8점	0.5	15.2	15.6	55.6	24.7	4.0	28.7
	40대	(714)	45.4점	1.2	12.3	13.5	55.7	28.6	2.2	30.8
	50대	(799)	47.9점	1.3	14.4	15.8	61.3	20.3	2.6	23.0
	60대	(597)	48.7점	1.6	19.2	20.8	53.4	24.0	1.9	25.8
	70대 이상	(761)	52.4점	3.7	25.2	28.9	50.1	18.9	2.1	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0)	46.0점	0.7	14.5	15.2	56.2	25.4	3.2	28.6
	선주민	(1,870)	49.9점	2.5	19.9	22.4	54.5	20.9	2.2	23.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47.1점	1.3	21.3	22.6	49.2	21.1	7.2	28.3
	이주 비의향층	(3,574)	47.9점	1.6	16.6	18.2	56.0	23.5	2.2	25.8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47.1점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복지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파악 및 제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0)]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1점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5.3%이었으며, '다소 불만족'(25.2%) 등 [불만족(합)](27.6%) 비율이 '다소 만족'(15.9%) 등 [만족(합)](17.1%)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복지시설 이용층,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만족도가 높았다.

| 표1221 - (2) |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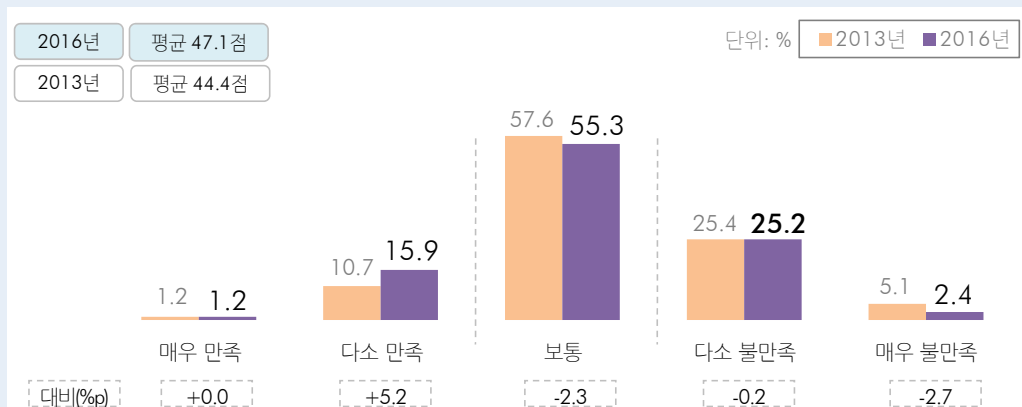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0)			47.1점	1.2	15.9	17.1	55.3	25.2	2.4	27.6
읍/면	읍	(1,635)	46.3점	1.5	13.6	15.2	54.7	28.9	1.3	30.1
	면	(2,315)	47.6점	0.9	17.5	18.4	55.7	22.7	3.2	25.8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8.3점	1.5	19.2	20.7	53.2	22.9	3.1	26.0
	비농어가	(2,547)	46.4점	1.0	14.1	15.1	56.4	26.5	2.0	2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3.6점	0.4	10.4	10.8	53.6	34.3	1.3	35.6
	40대	(714)	44.2점	0.7	11.7	12.4	54.7	29.3	3.6	32.9
	50대	(801)	47.8점	0.4	17.0	17.4	59.3	20.1	3.2	23.3
	60대	(597)	49.4점	1.3	18.1	19.4	59.4	19.3	1.9	21.2
	70대 이상	(759)	52.1점	3.4	24.9	28.3	50.8	18.5	2.3	20.9
복지시설 이용여부	이용층	(828)	54.3점	3.7	31.9	35.6	43.2	20.1	1.1	21.2
	비이용층	(3,116)	45.1점	0.5	11.6	12.1	58.5	26.6	2.7	29.4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1,468)	50.2점	2.3	22.1	24.4	51.9	21.5	2.2	23.8
	없음	(2,482)	45.2점	0.5	12.3	12.8	57.3	27.4	2.5	29.9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54)	45.9점	2.3	15.6	17.8	50.2	27.6	4.4	32.0
	없음	(3,496)	47.2점	1.0	16.0	17.0	56.0	24.9	2.1	27.0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3년 대비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2.7점)이며, '다소 만족' 비율이 증가(+5.2%p)

| 그림1221 | 거주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222>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 ▶ 복지 여건이 과거 5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47.3% > [나빠진 편(합)] 2.9%
- ▶ 복지 여건이 과거 1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22.0% > [나빠진 편(합)] 3.0%

 복지 여건이 과거 5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47.3% > [나빠진 편(합)] 2.9%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0)]

과거 5년 전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 여건이 ‘좋아진 편’(44.0%)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47.3%로 ‘나빠진 편’(2.3%) 등 [나빠진 편(합)](2.9%)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5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인식 점수는 평균 61.7점이었다.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표1222 - (1) | 과거 5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950)			61.7점	3.3	44.0	47.3	49.8	2.3	0.6	2.9
읍/면	읍	(1,634)	61.0점	3.0	40.5	43.5	54.4	2.0	0.2	2.1
	면	(2,316)	62.2점	3.5	46.5	49.9	46.6	2.5	1.0	3.5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62.8점	4.9	44.8	49.7	47.2	2.7	0.4	3.1
	비농어가	(2,548)	61.2점	2.4	43.5	45.9	51.3	2.1	0.8	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9.9점	1.7	38.4	40.1	58.4	0.7	0.8	1.5
	40대	(714)	61.9점	2.0	46.2	48.2	49.4	2.2	0.3	2.4
	50대	(801)	60.7점	3.6	39.8	43.4	53.5	2.1	1.0	3.1
	60대	(596)	61.8점	2.5	48.5	51.0	42.9	5.9	0.2	6.1
	70대 이상	(760)	65.3점	6.8	50.8	57.6	39.7	2.0	0.6	2.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0)	60.6점	1.6	41.5	43.1	54.8	1.6	0.5	2.1
	선주민	(1,870)	63.1점	5.1	46.8	51.8	44.4	3.0	0.8	3.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60.0점	4.4	33.8	38.2	59.0	2.7		2.7
	이주 비의향층	(3,574)	61.9점	3.1	45.1	48.2	48.9	2.2	0.7	2.9

복지 여건이 과거 1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22.0% > [나빠진 편(합)] 3.0%

과거 1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46)]

과거 1년 전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 여건이 '좋아진 편'(21.1%)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2.0%로 '나빠진 편'(2.3%) 등 [나빠진 편(합)](3.0%)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1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향상도 인식 점수는 평균 54.8점이었다.

특성과 관계없이 '보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과거 1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표1222 - (2) | 과거 1년 전 대비 농어촌 복지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946)			54.8점	1.0	21.1	22.0	75.0	2.3	0.6	3.0
읍/면	읍	(1,630)	54.2점	1.1	16.1	17.3	81.4	1.2	0.1	1.3
	면	(2,316)	55.3점	0.8	24.5	25.4	70.5	3.2	1.0	4.2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55.3점	1.1	24.1	25.2	70.5	3.5	0.8	4.3
	비농어가	(2,544)	54.6점	0.9	19.4	20.3	77.5	1.7	0.5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5)	53.9점	0.8	16.1	17.0	81.6	0.6	0.8	1.4
	40대	(714)	53.7점	1.1	15.6	16.7	81.0	1.7	0.6	2.3
	50대	(801)	54.9점	0.8	22.3	23.1	73.2	3.2	0.6	3.7
	60대	(596)	55.1점	0.7	25.5	26.2	67.7	5.6	0.5	6.1
	70대 이상	(760)	57.0점	1.4	28.4	29.8	67.6	2.0	0.6	2.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76)	54.2점	0.9	17.4	18.3	79.6	2.0	0.1	2.1
	선주민	(1,869)	55.5점	1.1	25.2	26.2	69.8	2.7	1.2	3.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54.1점	1.7	15.6	17.3	80.2	2.5		2.5
	이주 비의향층	(3,570)	54.9점	0.9	21.6	22.5	74.4	2.3	0.7	3.0

2 0 1 6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1300> 보건의료

- 1311> 의료기관 이용실태
- 1312>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 1313> 응급실 이용실태
- 1314> 질병 치료시 어려움
- 131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 1316>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 1317>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1311 > 의료기관 이용실태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의)원' 83.5%, '월 1회 미만' 의료기관 이용 43.4%
- ▶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3.4%)으로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3.6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의)원' 83.5%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5%)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종합병원'(10.8%), '보건소(지소)'(3.0%), '한방병(의)원'(1.4%), '보건진료소'(1.3%) 순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병(의)원' 비율이 높았다.

| 표1311 - (1)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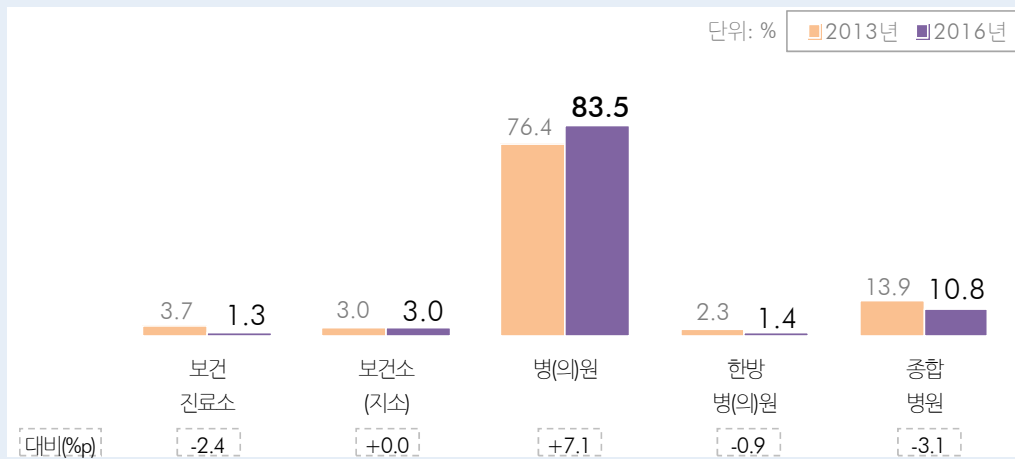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3,952)		1.3	3.0	83.5	1.4	10.8
읍/면	읍 (1,635)	1.0	1.3	86.2	0.9	10.7
	면 (2,316)	1.6	4.3	81.6	1.7	10.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1	4.7	80.9	1.6	10.8
	비농어가 (2,548)	0.9	2.1	84.9	1.3	1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91.1	0.2	8.7
	40대 (714)	1.2	1.1	87.2	0.9	9.6
	50대 (801)	0.8	3.7	84.2	1.0	10.4
	60대 (597)	3.8	3.7	75.9	2.4	14.3
	70대 이상 (761)	2.1	8.0	74.4	3.1	12.4

주요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병(의)원' 비율이 다소 증가(+7.1%p)

| 그림1311 - (1) | 주요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 '기타'는 제외함

'월 1회 미만' 의료기관 이용 43.4%

(의료기관 이용층에 한해)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료기관 이용층(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44)]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월 1회 미만'(43.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 이용층(34.6%) 비율도 높았다. '월 3~4회'는 12.6%, '월 5회 이상'은 9.4%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월 1회 미만' 비율이 높은 반면, 한방병(의)원 이용층에서 '월 5회 이상' 비율이 높았다.

| 표1311 - (2) | 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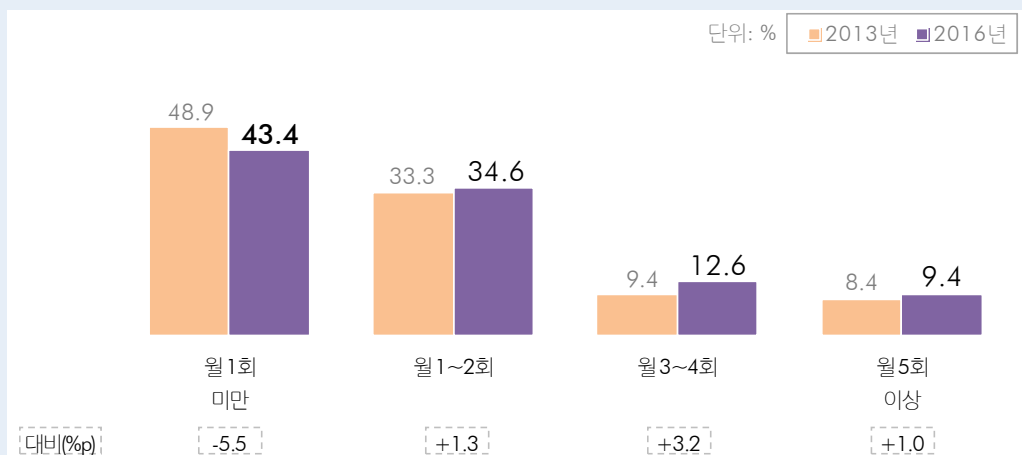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합계 (3,944)			43.4	34.6	12.6	9.4
읍/면	읍	(1,635)	48.0	32.7	11.7	7.7
	면	(2,309)	40.2	35.9	13.3	10.6
영농 여부	농어가	(1,398)	38.8	32.4	15.9	12.9
	비농어가	(2,546)	46.0	35.8	10.8	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7.7	34.1	12.3	5.9
	40대	(714)	56.3	32.3	6.8	4.5
	50대	(797)	49.8	35.6	7.5	7.0
	60대	(596)	39.2	32.6	16.0	12.1
	70대 이상	(758)	21.8	37.7	21.3	19.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2)	43.5	34.4	6.0	16.2
	보건소(지소)	(120)	40.0	38.2	16.4	5.4
	병(의)원	(3,292)	42.8	35.0	12.8	9.4
	한방병(의)원	(54)	27.7	21.6	21.1	29.6
	종합병원	(425)	51.6	31.7	9.5	7.1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 2013년에 비해 '월 3~4회' 비율이 증가(+3.2%p)한 반면, '월 1회 미만' 비율은 감소(-5.5%p)

| 그림1311 - (2) |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3.4%)으로 이동

(의료기관 이용층에 한해)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의료기관 이용층(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46)]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3.4%)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29.3%, '걸어서' 15.9% 순이었다.

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병(의)원,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자가용'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방병(의)원 이용층에서 '대중교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읍지역, 비농어가,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걸어서' 비율이 높았다.

| 표1311 - (3) |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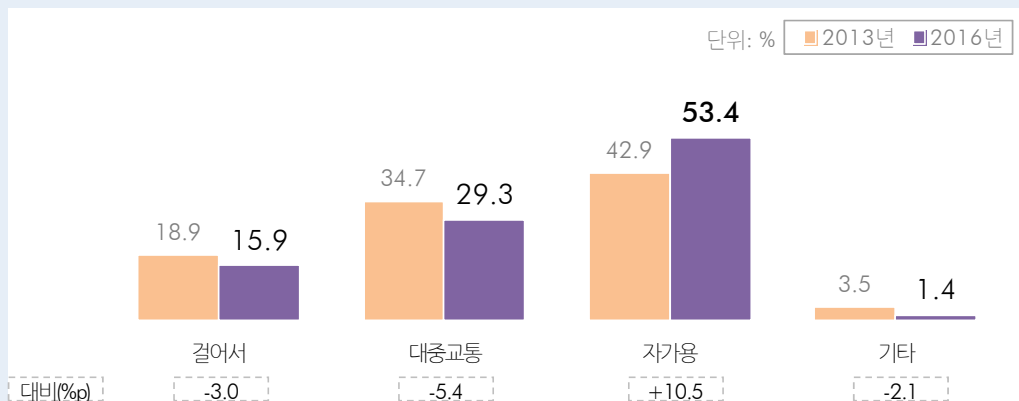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3,946)			15.9	29.3	53.4	1.4
읍/면	읍	(1,634)	25.6	20.4	52.8	1.2
	면	(2,312)	9.1	35.6	53.7	1.6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7.2	31.3	58.7	2.8
	비농어가	(2,544)	20.8	28.1	50.4	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7.7	14.7	67.6	
	40대	(714)	20.0	13.6	66.3	0.1
	50대	(801)	12.7	26.9	58.3	2.1
	60대	(594)	13.6	35.2	48.7	2.5
	70대 이상	(758)	14.9	62.7	19.3	3.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3)	51.9	17.1	28.9	2.0
	보건소(지소)	(119)	32.2	25.7	32.1	10.0
	병(의)원	(3,295)	16.7	29.0	53.0	1.2
	한방병(의)원	(53)	5.5	54.0	38.0	2.5
	종합병원	(426)	2.5	30.4	66.7	0.4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2013년에 비해 '자가용'(+10.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5.4%p), '걸어서'(-3.0%p) 비율이 약간 감소

| 그림1311 - (3) |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의료기관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3.6분

(의료기관 이용층에 한해) 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의료기관 이용층(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3,87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35.3%), '20~30분 미만'(20.5%), '10분 미만'(13.5%) 등 [30분 미만]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40분 미만'(13.9%), '40~50분 미만'(6.2%), '50분~1시간 미만'(1.9%) 등 [30분~1시간 미만](22.0%), '1시간 이상'(8.7%) 순이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23.6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긴 반면, 보건진료소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짧았다.

| 표1311 - (4) |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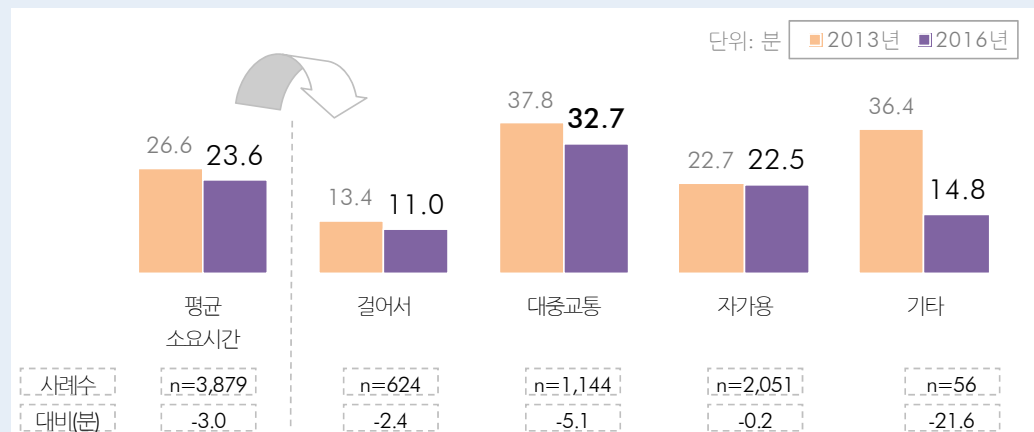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10분 미만	10~ 20분 미만	20~ 30분 미만	30~ 40분 미만	40~ 50분 미만	50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합계 (3,879)			23.6분	13.5	35.3	20.5	13.9	6.2	1.9	8.7
읍/면	읍	(1,616)	20.4분	22.4	40.5	15.5	9.2	2.5	1.6	8.3
	면	(2,263)	25.8분	7.1	31.5	24.1	17.3	8.8	2.1	9.0
영농 여부	농어가	(1,365)	28.0분	5.8	30.7	22.5	19.9	7.5	1.7	11.9
	비농어가	(2,514)	21.2분	17.6	37.7	19.5	10.7	5.5	2.0	6.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41)	17.7분	23.2	44.2	15.5	7.2	3.2	1.3	5.5
	40대	(702)	20.2분	16.8	44.1	16.5	11.2	2.3	2.5	6.5
	50대	(790)	23.7분	9.6	30.5	29.6	15.6	5.9	1.4	7.4
	60대	(590)	27.9분	8.5	30.3	19.6	17.6	11.4	1.9	10.7
	70대 이상	(756)	31.2분	4.9	23.6	22.4	21.2	10.4	2.7	14.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1)	13.5분	29.8	44.8	13.3	7.8	4.3		
	보건소(지소)	(117)	19.8분	18.4	28.5	19.9	24.5	6.9		1.9
	병(의)원	(3,258)	20.2분	14.1	38.7	21.2	13.8	5.2	1.7	5.3
	한방병(의)원	(53)	33.0분	3.3	16.1	22.6	19.1	22.5	0.9	15.4
	종합병원	(400)	52.2분	6.2	10.9	15.7	12.2	12.4	4.4	38.2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약간 감소(-5.1분)한 반면, 의료기관 이동시 평균 소요시간은 비슷한 수준(-3.0분)

| 그림1311 - (4) |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1312>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45.4%
- ▶ 주된 공공의료시설 이용 사유 '예방접종' 29.2%, '기타질환치료를 위해서' 27.4%
-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의 보건 의료서비스 만족도 69.0점
- ▶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전문성이 떨어져서' 46.4%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45.4%,

주된 공공의료시설 이용 사유 '예방접종' 29.2%, '기타질환치료를 위해서' 27.4%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시설 경험층에 한해) 귀댁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공공의료시설 이용 사유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n=1,795) 기준]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45.4%이었으며, 의료시설 이용 사유는 '예방접종'(29.2%), '기타질환치료를 위해서'(27.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19.4%), '건강검진을 위해서'(11.5%), '물리치료를 위해서'(4.6%), '응급상황이어서'(4.3%)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시설 이용률이 높았으며, 면지역, 농어가에서 '만성' 및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비율이 높았다.

| 표1312 - (1)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공공의료시설 이용 사유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응급 상황이 어서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위해서	예방 접종	기타
합계		(3,952)	45.4	(1,786)	4.3	19.4	11.5	27.4	4.6	29.2	3.6
읍/면	읍	(1,636)	36.9	(600)	4.4	14.1	15.6	17.9	3.4	39.2	5.4
	면	(2,316)	51.5	(1,186)	4.2	22.1	9.4	32.2	5.2	24.2	2.6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4.5	(760)	5.0	24.2	9.8	30.9	3.7	25.5	0.9
	비농어가	(2,549)	40.4	(1,027)	3.8	15.9	12.7	24.8	5.3	32.0	5.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32.0	(345)	3.3	3.6	10.2	25.9	0.2	44.7	12.1
	40대	(714)	34.1	(243)	10.8	9.8	9.0	25.7	1.5	38.9	4.3
	50대	(801)	42.5	(335)	2.2	16.2	20.4	38.6	3.6	17.2	1.7
	60대	(597)	59.9	(356)	6.3	23.3	9.2	27.6	11.9	20.7	1.0
	70대 이상	(761)	67.0	(507)	1.9	34.2	9.2	21.6	4.7	28.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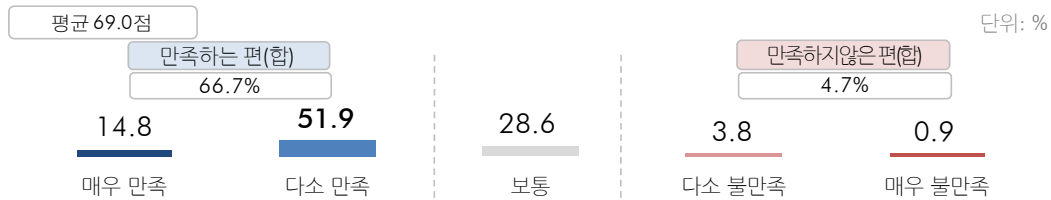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69.0점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에 한해)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n=1,7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1,787)]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n=1,795)의 이용 만족도는 평균 69.0점이었고, 70대 이상 연령층,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응급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만족도가 낮았다.

| 그림1312 - (1)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표1312 - (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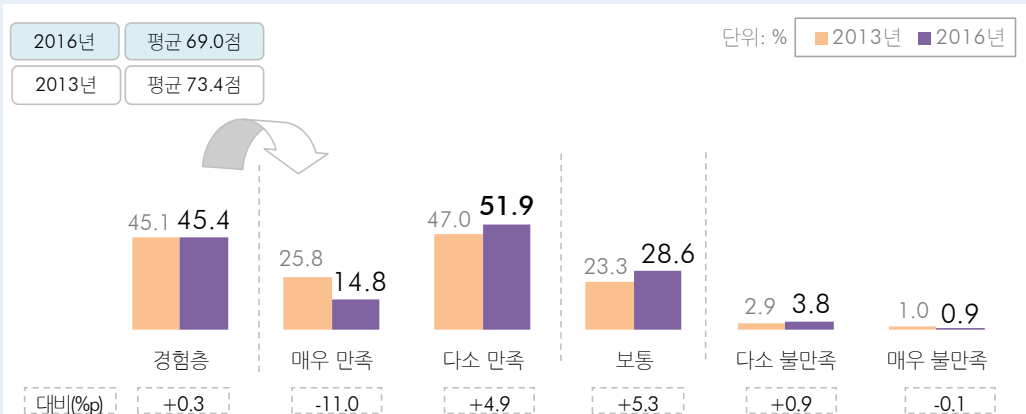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1,787) 69.0점	14.8	51.9	66.7	28.6	3.8	0.9	4.7
읍/면	읍	(599)	68.9점	16.4	51.4	67.8	25.3	5.3	1.6	6.9
	면	(1,188)	69.1점	14.1	52.2	66.2	30.2	3.0	0.5	3.5
영농 여부	농어가	(761)	70.5점	17.0	51.7	68.7	27.7	3.2	0.3	3.6
	비농어가	(1,026)	67.9점	13.2	52.1	65.3	29.2	4.2	1.3	5.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45)	66.5점	13.6	47.2	60.8	31.0	7.9	0.3	8.2
	40대	(241)	66.3점	9.5	56.1	65.5	27.0	5.0	2.5	7.5
	50대	(341)	67.8점	12.9	49.8	62.7	33.6	2.9	0.8	3.7
	60대	(356)	69.3점	15.6	49.3	64.9	32.6	1.7	0.7	2.5
	70대 이상	(504)	72.7점	19.0	56.4	75.4	21.5	2.4	0.7	3.1
의료시설 이용 사유	응급상황이어서	(77)	57.1점	7.0	39.7	46.7	36.4	8.5	8.4	16.9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	(344)	73.2점	23.4	52.5	75.9	18.9	4.0	1.2	5.2
	건강검진을 위해서	(204)	69.6점	12.1	57.4	69.4	27.7	2.5	0.4	2.9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489)	67.7점	11.9	51.0	62.9	33.1	4.0	.0	4.0
	물리치료를 위해서	(82)	63.6점	10.3	35.9	46.1	51.9	2.0		2.0
	예방접종	(519)	69.7점	14.5	55.1	69.5	25.8	4.1	0.5	4.7
	기타	(62)	68.5점	13.9	50.1	64.1	34.0		1.9	1.9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감소(-4.4점)

| 그림1312 - (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46.4%

(공공의료시설 비경험층에 한해) 귀덕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시설 비경험층(n=2,15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8%(n=2,067)]

공공의료시설 비경험층(n=2,157)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46.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리가 멀어서'(19.1%), '필요성을 못 느껴서'(9.3%), '시설이 낙후되어서'(5.2%),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서'(4.2%), '동행자가 없어서'(1.6%), '돈이 없어서'(1.3%) 순이었다. 한편, '건강해서', '바빠서' 등 기타는 12.8%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40~60대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높은 반면, 읍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이주민층에서는 '거리가 멀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312 - (3) | 공공의료시설 비이용 사유

단위 : %(명)

구분			거리가 멀어서	시설이 낙후 되어서	돈이 없어서	동행자가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합계 (2,067)			19.1	5.2	1.3	1.6	46.4	4.2	9.3	12.8
읍/면	읍 (1,016)		23.0	5.2	1.1	0.9	35.1	4.5	15.1	15.2
	면 (1,051)		15.4	5.1	1.6	2.3	57.4	3.9	3.7	10.6
영농 여부	농어가 (591)		16.5	3.7	1.3	1.2	51.1	4.5	11.2	10.4
	비농어가 (1,476)		20.2	5.7	1.3	1.8	44.6	4.0	8.6	13.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12)		18.3	6.0		1.3	39.9	4.5	14.2	15.8
	40대 (448)		19.3	3.6	1.4	0.5	53.8	2.2	10.6	8.7
	50대 (451)		16.3	5.4	2.3	0.8	48.1	5.5	6.7	15.0
	60대 (218)		15.3	4.2	2.4	1.8	53.4	4.8	4.6	13.3
	70대 이상 (237)		30.2	6.0	2.3	6.0	42.4	4.1	2.0	7.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248)		21.6	4.6	0.5	1.3	43.6	4.8	9.9	13.7
	선주민 (818)		15.3	6.0	2.5	2.1	50.7	3.2	8.5	11.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248)		25.4	5.0		1.0	32.8	8.5	20.1	7.1
	이주 비의향층 (1,819)		18.3	5.2	1.5	1.7	48.3	3.6	7.9	13.6

1313> 응급실 이용실태

- ▶ 응급실 '이용 경험' 18.8%,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원인 '응급질환 발생' 91.5%
- ▶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20분 이내' 31.6%,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53.8점
- ▶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 '개인용 차량' 66.3%, '구급차' 25.1%
- ▶ 구급차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77.8점

 응급실 '이용 경험' 18.8%,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원인은 '응급질환 발생' 91.5%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급실 이용 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응급실 이용 경험 -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 기준)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18.8%이었으며,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은 '응급질환 발생'(91.5%)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교통사고'(4.7%), '농작업 안전사고'(3.7%), '농약중독'(0.2%) 등이 있었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응급실 이용률과 '응급질환 발생' 비율이 높았다.

| 표1313 - (1) | 응급실 이용 경험 및 이용 원인

단위 : %(명)

구분	응급실 이용 경험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교통사고	농작업 안전사고	농약중독	응급질환 발생
합계	(3,952)	18.8	(741)	4.7	3.7	0.2	91.5
읍/면							
읍	(1,636)	20.0	(326)	6.1	1.6	0.2	92.0
면	(2,316)	17.9	(415)	3.6	5.3	0.1	91.0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19.7	(277)	3.4	8.2	0.4	88.0
비농어가	(2,549)	18.2	(464)	5.5	1.0		9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29.6	(318)	2.0	0.9		97.1
40대	(714)	19.0	(135)	5.2	5.1		89.7
50대	(801)	14.4	(115)	11.6	3.0		85.4
60대	(597)	12.4	(74)	4.1	8.9	1.0	86.0
70대 이상	(761)	12.8	(98)	5.3	7.6	0.4	86.8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20분 이내' 31.6%

응급실 이용 시,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742)]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이내'(3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분 이내'(27.1%), '30분 이내'(23.8%), '1시간 이내'(17.5%)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10분 이내'가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

| 표1313 - (2) | 응급실 의로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단위 : %(명)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합계 (742)			27.1	31.6	23.8	17.5
읍/면	읍	(327)	42.8	30.6	13.8	12.8
	면	(415)	14.6	32.5	31.8	21.1
영농 여부	농어가	(277)	22.8	28.2	25.9	23.1
	비농어가	(465)	29.6	33.7	22.6	1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19)	41.2	25.5	19.1	14.2
	40대	(135)	21.0	39.9	27.6	11.5
	50대	(115)	13.0	40.9	26.4	19.7
	60대	(74)	14.9	27.9	24.6	32.5
	70대 이상	(97)	14.8	32.3	30.8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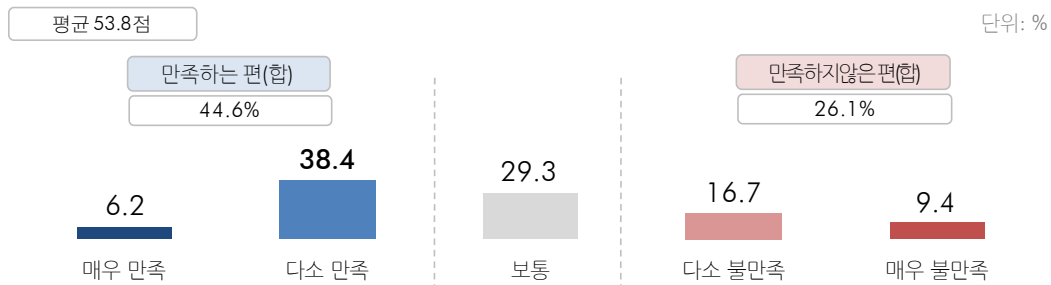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평균 53.8점

(응급실 이용 경험층에 한해) 응급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8%(n=733)]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3.8점이었고, 면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 그림1313 - (1) |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표1313 - (3) |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733)		53.8점	6.2	38.4	44.6	29.3	16.7	9.4	26.1
읍/면	읍 (325)	46.9점	4.8	31.9	36.7	26.2	20.3	16.8	37.1
	면 (407)	59.3점	7.3	43.6	50.9	31.7	13.9	3.5	17.4
영농 여부	농어가 (277)	49.7점	5.1	37.8	43.0	26.8	11.4	18.9	30.3
	비농어가 (456)	56.3점	6.8	38.8	45.6	30.8	20.0	3.6	2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12)	42.9점	0.6	29.7	30.3	26.7	26.7	16.3	42.9
	40대 (134)	55.6점	4.5	42.2	46.7	34.7	8.4	10.2	18.6
	50대 (115)	62.0점	10.6	42.1	52.7	32.7	13.8	0.8	14.6
	60대 (74)	62.8점	10.5	42.9	53.5	35.4	9.7	1.5	11.2
	70대 이상 (97)	69.8점	17.9	53.4	71.3	21.1	5.2	2.4	7.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42)	50.2점	4.8	32.8	37.7	32.1	18.9	11.4	30.3
	선주민 (291)	59.3점	8.2	46.9	55.1	25.0	13.5	6.4	19.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148)	38.3점	1.9	20.0	22.0	35.2	14.7	28.1	42.8
	이주 비의향층 (585)	57.7점	7.2	43.1	50.3	27.7	17.2	4.7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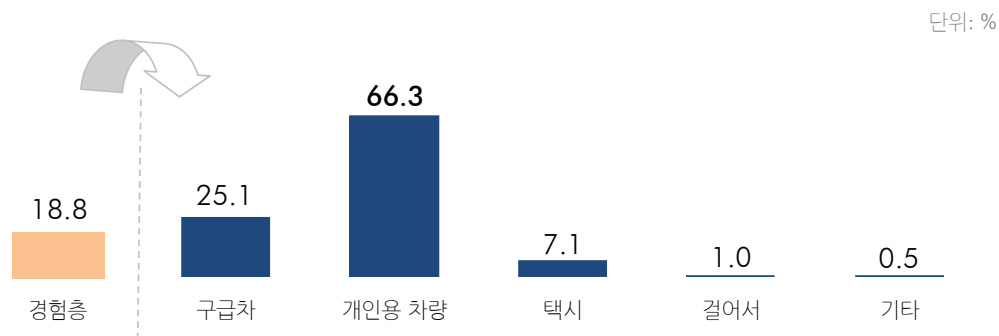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 '개인용 차량' 66.3%, '구급차' 25.1%

(응급실 이용 경험층에 한해) 응급실 이동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응급실 이용 경험층(n=74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742)]

‘개인용 차량’(66.3%)이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으로 나타났으며, ‘구급차’(25.1%), ‘택시’(7.1%), ‘걸어서’(1.0%) 순이었다.

| 그림1313 - (2)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읍지역,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개인용 차량’ 이용률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구급차’ 이용률이 높았다.

| 표1313 - (4)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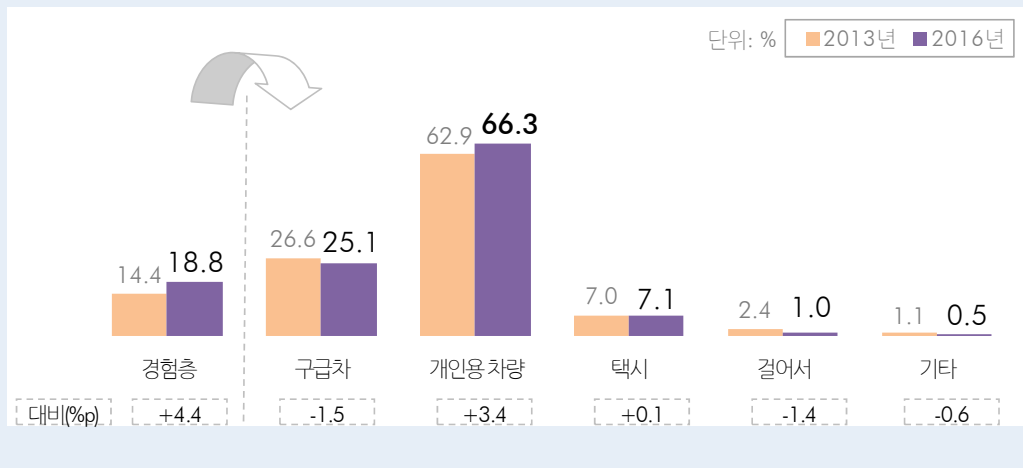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구급차	개인용 차량	택시	걸어서	기타
합계 (742)			25.1	66.3	7.1	1.0	0.5
읍/면	읍 (327)		19.1	72.9	5.6	2.3	0.1
	면 (415)		29.8	61.1	8.2		0.9
영농 여부	농어가 (277)		28.3	64.5	5.8		1.4
	비농어가 (465)		23.2	67.4	7.8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19)		9.7	80.8	7.5	2.0	
	40대 (135)		22.6	72.9	3.5	1.0	
	50대 (115)		28.7	64.3	5.6		1.4
	60대 (74)		50.7	40.0	6.5		2.7
	70대 이상 (98)		55.2	31.7	12.7		0.4

응급실 이용실태 - 추이

- 2013년에 비해 응급실 이용 경험층이 약간 증가(+4.4%p)
- '개인용 차량' 비율이 약간 증가(+3.4%p)

| 그림1313 - (3) | 응급실 이용실태 - 추이



구급차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77.8점

(구급차 이용층에 한해) 구급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급차 이용층(n=18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186)]

구급차 이용층(n=186)의 구급차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7.8점이었으며,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1313 - (4) |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표1313 - (5) |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186)	77.8점	29.3	55.0	84.3	13.8	1.3	0.5	1.9
읍/면	읍 (63)	73.8점	11.1	75.2	86.3	11.3	2.4	2.4
	면 (124)	79.8점	38.5	44.8	83.3	15.1	0.8	1.6
영농 여부	농어가 (78)	79.6점	33.9	54.3	88.2	9.4	1.1	2.4
	비농어가 (108)	76.5점	26.0	55.6	81.5	17.0	1.5	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1)	75.5점	8.3	85.5	93.8	6.2		
	40대 (31)	70.1점	9.8	60.9	70.7	29.3		
	50대 (33)	69.1점	18.0	43.4	61.4	35.7	2.9	2.9
	60대 (38)	88.5점	62.3	32.3	94.6	3.9	1.5	1.5
	70대 이상 (54)	81.4점	36.4	57.1	93.5	2.9	2.8	3.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01)	78.0점	28.3	57.2	85.5	12.6	1.9	1.9
	선주민 (85)	77.6점	30.5	52.5	83.0	15.3	0.6	1.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17)	73.7점	6.1	82.8	88.9	11.1		
	이주 비의향층 (169)	78.2점	31.7	52.2	83.9	14.1	1.5	2.1

1314 > 질병 치료시 어려움

▶ '치료비 부담'(32.4%)이 주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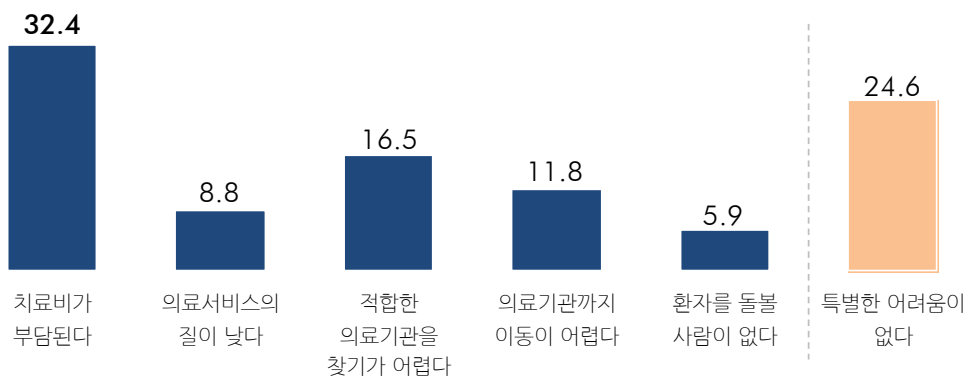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질병 치료시 '치료비 부담'(32.4%)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1.8%),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8.8%),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5.9%) 순이었다. 한편,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24.6%이었다.

| 그림1314 - (1) | 질병 치료시 어려움

단위: %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농/어/축산업층에서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 자영업/직장인층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비율이 높았다.

| 표1314 | 질병 치료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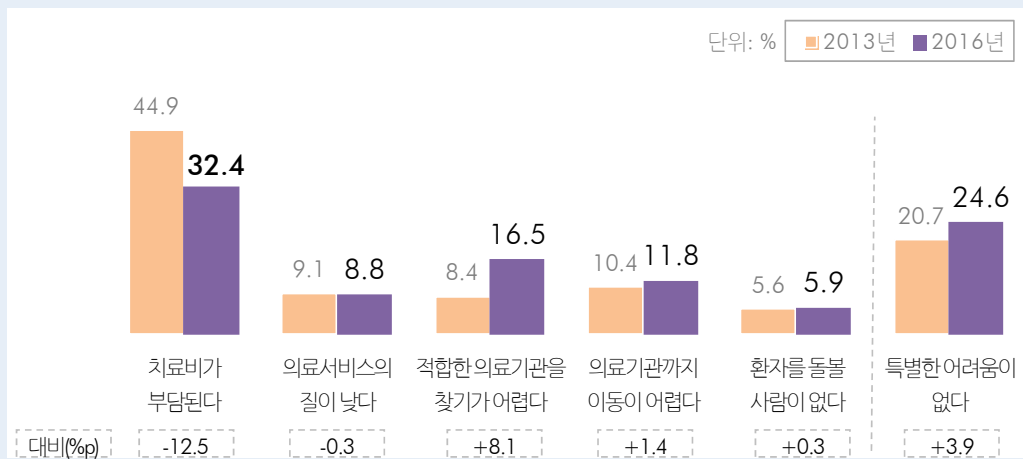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 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합계 (3,952)			32.4	8.8	16.5	11.8	5.9	24.6
읍/면	읍 (1,636)	22.5	11.0	15.3	9.8	6.0	35.5	
	면 (2,316)	39.4	7.2	17.3	13.2	5.9	16.9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0.1	8.0	13.8	11.7	6.5	19.9	
	비농어가 (2,549)	28.2	9.2	18.0	11.8	5.6	27.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7.7	17.3	20.1	9.8	4.0	31.0	
	40대 (714)	22.8	7.6	22.1	7.5	7.2	32.8	
	50대 (801)	33.5	6.1	15.5	11.7	5.9	27.2	
	60대 (597)	47.4	5.3	14.5	12.5	4.4	16.0	
	70대 이상 (761)	49.5	3.3	8.7	18.2	8.6	1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26.1	11.0	18.6	9.8	6.1	28.5	
	선주민 (1,870)	39.5	6.3	14.2	14.1	5.7	20.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21.0	23.8	19.9	4.3	5.7	25.3	
	이주 비의향층 (3,576)	33.6	7.2	16.1	12.6	5.9	24.5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985)	44.3	6.0	12.0	13.0	7.0	17.9	
	자영업/직장인 (1,365)	22.6	8.6	21.0	8.8	4.5	34.4	
	주부/무직/기타 (1,544)	34.0	10.5	14.6	14.0	6.6	20.2	

질병 치료시 어려움 - 추이

- 2013년에 비해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다소 감소(-12.5%p)한 반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비율은 다소 증가(+8.1%p)

| 그림1314 - (2) | 질병 치료시 어려움 - 추이



* '기타'는 제외함

131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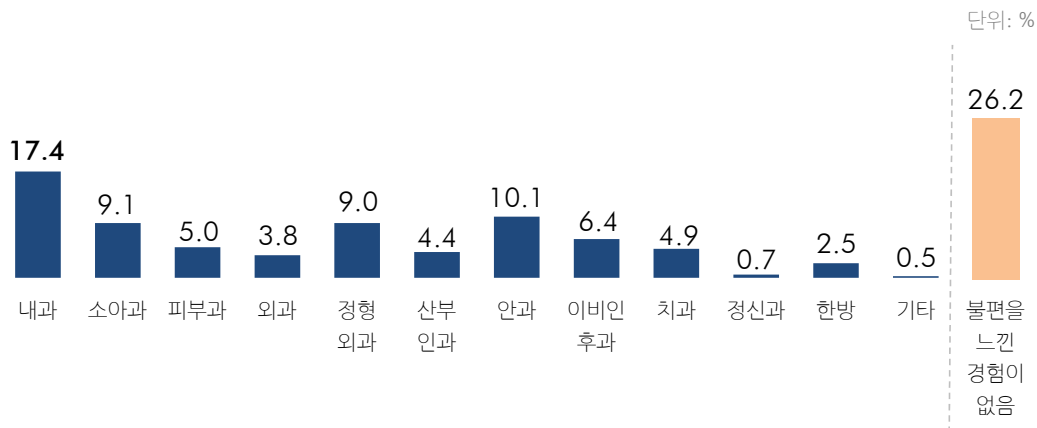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내과' 17.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에서 평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이 있습니까?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과목을 우선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중복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평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으로 '내과'(17.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과'(10.1%), '소아과'(9.1%), '정형외과'(9.0%), '이비인후과'(6.4%), '피부과'(5.0%), '치과'(4.9%), '산부인과'(4.4%), '외과'(3.8%), '한방'(2.5%) 순이었다. 한편, 평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는 층은 26.2%이었다.

| 그림1315 |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면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내과’, ‘정형외과’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소아과’ 비율이 높았다.

| 표1315 |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단위 : %(명)

구분			내과	소아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합계 (3,952)			17.4	9.1	5.0	3.8	9.0	4.4	10.1
읍/면	읍	(1,636)	12.5	10.7	5.9	3.8	6.5	8.8	9.0
	면	(2,316)	20.8	8.0	4.3	3.9	10.7	1.4	10.8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2.0	7.1	3.4	4.6	12.0	1.4	9.7
	비농어가	(2,549)	14.9	10.2	5.8	3.4	7.3	6.0	1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1.2	24.8	7.0	2.1	4.2	10.7	7.7
	40대	(714)	14.3	9.0	6.0	2.2	6.1	3.8	10.7
	50대	(801)	23.8	1.5	5.0	7.3	7.5	2.1	9.4
	60대	(597)	19.5	1.1	3.0	3.8	14.4	1.6	11.2
	70대 이상	(761)	20.8	1.0	2.6	4.2	15.8	0.5	1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11.3	24.8	5.9	1.6	4.1	8.7	13.6
	이주 비의향층	(3,576)	18.1	7.4	4.9	4.1	9.5	3.9	9.7
구분			아비인 후과	치과	정신과	한방	기타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음	
합계 (3,952)			6.4	4.9	0.7	2.5	0.5	26.2	
읍/면	읍	(1,636)	6.9	3.3	0.6	1.2	0.8	29.9	
	면	(2,316)	6.1	6.0	0.7	3.4	0.3	23.7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4	6.0	0.6	3.0	0.7	24.1	
	비농어가	(2,549)	6.9	4.4	0.7	2.3	0.3	2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7.2	3.4	0.7	1.0	0.2	19.8	
	40대	(714)	7.9	6.6	0.8	0.4	0.1	32.0	
	50대	(801)	6.8	4.9	0.5	2.4	0.6	28.1	
	60대	(597)	4.9	6.3	1.0	4.3	0.8	28.0	
	70대 이상	(761)	4.7	4.5	0.4	5.4	0.8	26.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6.6	5.2	1.1	1.2	0.7	15.1	
	이주 비의향층	(3,576)	6.4	4.9	0.6	2.6	0.5	27.4	

1316>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합)] 28.9% > [불만족(합)] 20.1%, 평균 51.9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46)]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1.9점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1.0%이었으며, ‘다소 만족’(26.8%) 등 [만족(합)](28.9%) 비율이 ‘다소 불만족’(16.8%) 등 [불만족(합)](20.1%)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316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46)			51.9점	2.1	26.8	28.9	51.0	16.8	3.3	20.1
읍/면	읍	(1,635)	50.9점	1.7	25.4	27.1	51.6	17.3	4.0	21.3
	면	(2,310)	52.6점	2.4	27.8	30.2	50.6	16.5	2.7	19.2
영농 여부	농어가	(1,401)	52.2점	2.7	27.2	29.9	48.9	18.8	2.5	21.3
	비농어가	(2,545)	51.7점	1.8	26.6	28.4	52.2	15.8	3.7	1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9.7점	1.3	27.2	28.5	45.3	21.3	4.9	26.2
	40대	(711)	49.7점	0.9	23.6	24.5	52.8	18.6	4.1	22.7
	50대	(799)	52.3점	1.4	26.5	28.0	54.1	15.6	2.3	17.9
	60대	(597)	53.8점	2.7	25.3	27.9	58.4	11.9	1.7	13.7
	70대 이상	(759)	55.3점	4.6	30.7	35.2	48.4	14.1	2.3	16.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51.5점	1.5	28.5	29.9	48.2	18.3	3.5	21.8
	선주민	(1,864)	52.4점	2.8	24.9	27.7	54.1	15.2	2.9	18.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44.7점	0.7	19.1	19.8	44.5	29.5	6.1	35.6
	이주 비의향층	(3,570)	52.7점	2.2	27.6	29.9	51.7	15.5	3.0	18.5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3)	57.3점	3.2	38.0	41.3	47.0	8.0	3.7	11.7
	보건소(지소)	(119)	60.8점	5.4	40.1	45.5	47.6	6.3	0.7	7.0
	병(의)원	(3,294)	52.2점	1.9	27.0	28.9	51.6	17.0	2.5	19.5
	한방병(의)원	(54)	56.2점	10.6	19.6	30.3	53.5	16.2		16.2
	종합병원	(425)	46.1점	1.8	21.1	22.8	47.3	19.5	10.4	29.9

1317>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 [불만족(합)] 33.3% > [만족(합)] 22.9%, 평균 46.4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0)]

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6.4점이었으며, ‘다소 불만족’(26.4%) 등 [불만족(합)](33.3%) 비율이 ‘다소 만족’(20.0%) 등 [만족(합)](22.9%)에 비해 높았다.

3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 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불만족(합)] 비율이 높았다.

| 표1317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0)			46.4점	3.0	20.0	22.9	43.8	26.4	6.9	33.3
읍/면	읍 (1,635)	47.3점	3.2	20.0	23.2	45.9	24.5	6.4	30.9	
	면 (2,315)	45.8점	2.8	19.9	22.7	42.3	27.7	7.3	35.0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45.3점	3.0	19.0	22.0	41.7	28.8	7.5	36.3	
	비농어가 (2,548)	47.1점	2.9	20.5	23.5	45.0	25.0	6.6	3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1점	1.9	23.1	25.1	35.9	31.5	7.5	39.0	
	40대 (714)	47.2점	3.3	18.0	21.3	48.3	25.2	5.2	30.4	
	50대 (801)	47.3점	3.8	18.2	22.0	47.7	24.3	6.0	30.3	
	60대 (597)	47.5점	2.9	19.5	22.4	47.7	24.4	5.5	29.9	
	70대 이상 (759)	45.8점	3.3	19.6	22.9	43.6	23.9	9.6	33.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82)	46.6점	3.4	20.1	23.5	42.0	28.6	5.9	34.5	
	선주민 (1,868)	46.2점	2.5	19.8	22.3	45.7	23.9	8.0	3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76)	43.7점	4.1	13.5	17.6	42.8	32.4	7.2	39.6	
	이주 비의향층 (3,575)	46.7점	2.9	20.6	23.5	43.9	25.7	6.9	3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53)	56.0점	5.5	31.9	37.4	44.4	17.2	0.9	18.2	
	보건소(지소) (120)	55.4점	9.9	25.5	35.4	44.1	17.3	3.1	20.5	
	병(의)원 (3,298)	46.6점	2.5	20.3	22.8	44.7	26.3	6.2	32.5	
	한방병(의)원 (54)	49.3점	2.5	22.9	25.5	44.8	28.5	1.2	29.7	
	종합병원 (425)	40.7점	4.5	13.9	18.4	36.4	30.0	15.1	45.1	

14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141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1412> 공적연금 가입실태
- 1413> 기타보험 가입현황
- 141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1415>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 1416>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 141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 141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 1419> 정신건강 인식
- 142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142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142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1423> 복지시설 이용실태
- 142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411 >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 '가입층' 80.3%, 가입층 중 '직장가입자' 57.9%
- ▶ 보험료 [부담됨(합)] 54.9% > [부담되지 않음(합)] 15.6%

 '가입층' 80.3%, 가입층 중 '직장가입자' 57.9%

귀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50)]

국민건강보험 가입층은 80.3%이었으며, 가입층(n=3,172) 중 '직장가입자'가 57.9%, '지역가입자'가 42.1%이었다.

미가입층(n=778)의 수급 종류는 외래와 입원 진료 시 전액이 지원되는 '의료급여(1종)'(17.9%), 외래 진료 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2종)'(11.8%) 등 [의료급여]가 29.7%를 차지했으며,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70.4%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았다.

| 표1411 - (1)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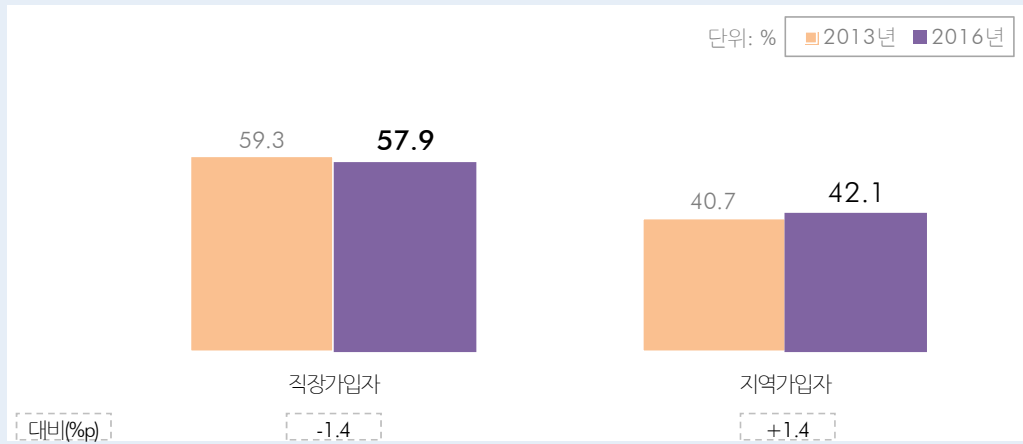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가입	가입 종류		미가입	미가입 시 수급 종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음
합계 (3,950)			80.3	57.9	42.1	19.7	17.9	11.8	70.4
읍/면	읍 (1,636)	89.9	65.3	34.7	10.1	23.9	7.4	68.7	
	면 (2,315)	73.5	51.5	48.5	26.5	16.2	13.0	70.8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76.7	37.8	62.2	23.3	5.7	17.6	76.7	
	비농어가 (2,549)	82.3	68.2	31.8	17.7	26.7	7.6	65.7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가입층) - 추이

- 2013년과 가입현황이 비슷한 수준

| 그림1411 - (1)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가입층)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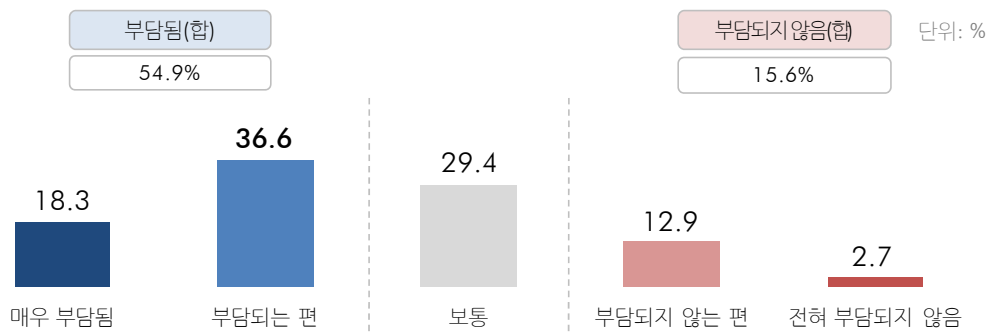
 보험료 [부담됨(합)] 54.9% > [부담되지 않음(합)] 15.6%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층(n=3,1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0.5%(n=2,870)]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6.6%) 등 부담된다는 의견이 54.9%로 ‘부담되지 않는 편’(12.9%) 등 [부담되지 않음(합)](15.6%) 보다 많았으며, ‘보통’은 29.4%이었다.

| 그림1411 - (2) - ①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부담됨(합)] 비율이 높았는데, 읍지역, 보건의료비 지출이 없는 층에서 [부담되지 않음(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11 - (2)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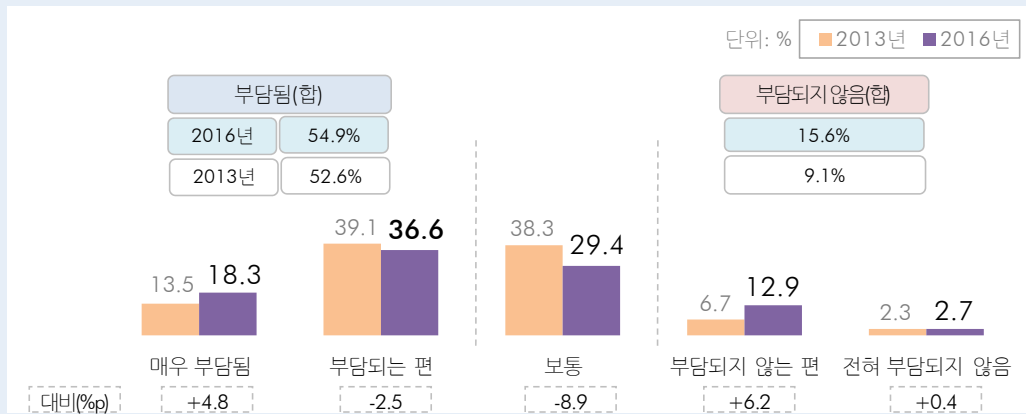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부담 됨	부담 되는 편	부담 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합)
합계 (2,870)			18.3	36.6	54.9	29.4	12.9	2.7	15.6
읍/면	읍 (1,374)		17.0	35.4	52.4	26.9	17.8	2.9	20.7
	면 (1,497)		19.6	37.7	57.3	31.7	8.4	2.5	10.9
영농 여부	농어가 (924)		18.1	36.4	54.5	29.0	14.2	2.3	16.5
	비농어가 (1,946)		18.4	36.7	55.2	29.6	12.3	2.9	15.2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1,563)		13.3	34.8	48.1	34.7	14.0	3.2	17.2
	지역가입자 (1,307)		24.4	38.7	63.1	23.2	11.7	2.0	1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10)		16.8	34.3	51.1	29.7	15.9	3.2	19.1
	40대 (667)		18.8	37.0	55.8	28.6	13.6	2.0	15.6
	50대 (599)		21.3	38.3	59.7	27.9	10.6	1.8	12.4
	60대 (316)		15.0	36.7	51.7	34.8	10.7	2.8	13.5
	70대 이상 (277)		20.3	39.9	60.2	27.7	8.1	4.0	12.1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627)		16.1	39.2	55.4	30.0	11.7	2.9	14.7
	자영업/직장인 (1,244)		19.4	34.7	54.1	29.1	14.1	2.7	16.8
	주부/무직/기타 (953)		18.9	36.7	55.5	29.2	12.6	2.6	15.2
보건 의료비	없음 (201)		14.2	36.3	50.5	26.5	21.5	1.5	23.0
	10만원 미만 (998)		17.3	37.7	55.0	29.9	12.0	3.1	15.1
	10만원 이상 (1,621)		19.6	35.7	55.3	29.3	12.7	2.6	15.3

*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부담되지 않음(합)] 비율이 다소 증가(+6.5%p)한 반면, [보통] 비율은 감소(-8.9%p)

| 그림1411 - (2) - ②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1412> 공적연금 가입실태

- ▶ ‘국민연금’ 가입률 64.5%, ‘국민연금’ 수급률 26.4%
- ▶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됨(합)] 50.9% > [부담되지 않음(합)] 15.5%
- ▶ 공적연금 미가입 주된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65.0%



‘국민연금’ 가입률 64.5%

귀댁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가입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가구원 중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중복응답 :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전체 가구의 64.5%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연금’(6.2%), ‘군인연금’(1.2%), ‘사학연금’(0.2%) 가입률은 낮았다.

한편, 읍지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는 ‘미가입’ 비율이 높았다.

| 표1412 - (1) - ① |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3,948)		64.5	6.2	0.2	1.2	30.2
읍/면	읍 (1,635)	66.7	10.0	0.1	1.9	24.9
	면 (2,313)	63.0	3.5	0.4	0.7	33.9
영농 여부	농어가 (1,401)	63.0	4.7	0.2	0.5	34.1
	비농어가 (2,547)	65.4	7.0	0.3	1.6	28.0

| 표1412 - (1) - ② | 공적연금 가입현황(18-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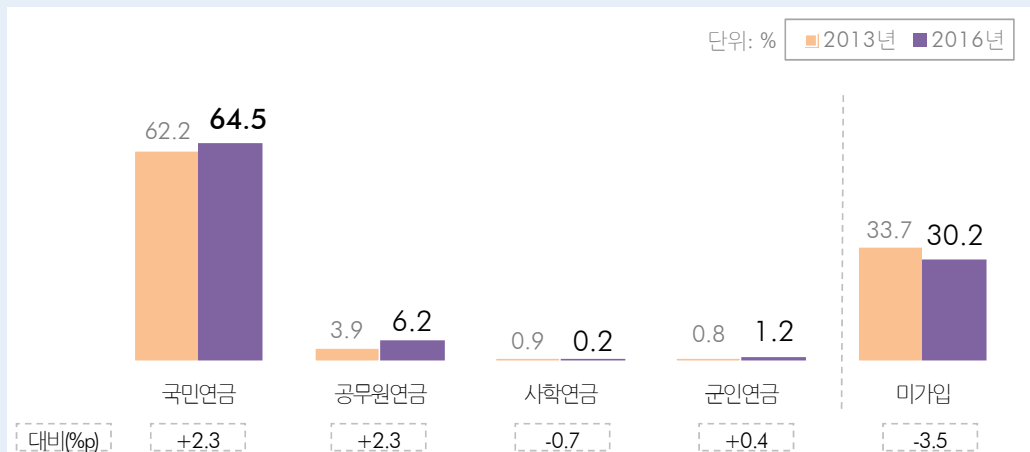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2,919)		71.4	7.6	0.3	1.2	22.5
읍/면	읍 (1,371)	71.1	11.2	0.1	2.0	19.7
	면 (1,548)	71.8	4.3	0.5	0.5	24.9
영농 여부	농어가 (943)	66.0	5.7	0.2	0.2	31.3
	비농어가 (1,976)	74.0	8.4	0.3	1.7	18.3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각 +2.3%p)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412 - (1) |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국민연금' 수급률 26.4%

(공적연금 가입층에 한해) 귀택에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공적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공적연금 가입층(n=2,75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중복응답 :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공적연금 가입층(n=2,757)의 26.4%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률이 낮았던 '공무원연금'(1.8%), '군인연금'(0.6%), '사학연금'(0.1%)의 수급률 또한 낮았다.

| 그림1412 - (2) | 공적연금 수급현황

단위: %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수급' 비율이 높았다.

| 표1412 - (2) | 공적연금 수급현황

단위: %(명)

구분			국민연금 수급	공무원연금 수급	사학연금 수급	군인연금 수급	미수급
합계 (2,757)			26.4	1.8	0.1	0.6	71.2
읍/면	읍 (1,227)		14.9	2.0		0.4	82.9
	면 (1,529)		35.6	1.7	0.2	0.8	61.9
영농 여부	농어가 (923)		45.4	3.3	0.2	0.6	51.0
	비농어가 (1,833)		16.9	1.1	0.1	0.6	8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9)		5.2				94.8
	40대 (569)		5.3	0.3			94.4
	50대 (609)		16.2	3.4	0.3	0.3	80.1
	60대 (417)		71.7	4.2	0.3	2.5	21.7
	70대 이상 (292)		87.3	3.8	0.2	1.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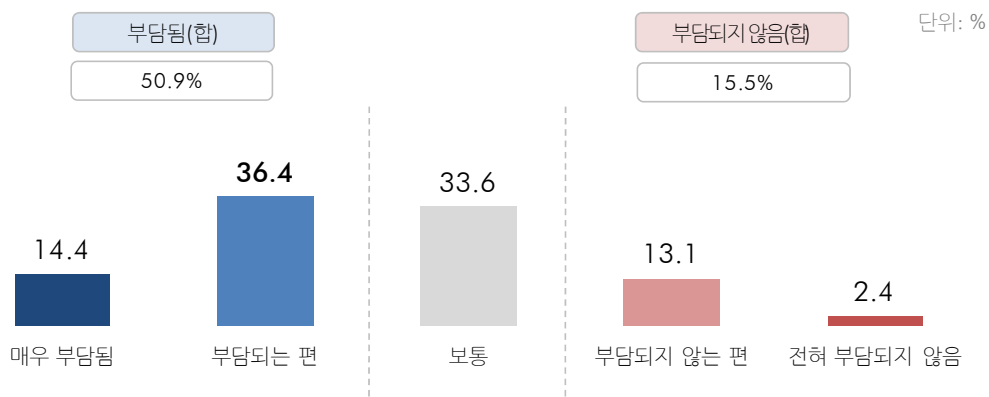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됨(합)] 50.9% > [부담되지 않음(합)] 15.5%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공적연금 가입층(n=2,75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중복응답 :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6.4%) 등 [부담됨(합)](50.9%) 비율이 ‘부담되지 않는 편’(13.1%) 등 [부담되지 않음(합)](15.5%) 보다 높았으며, ‘보통’은 33.6%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그림1412 - (3) - ①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30대 이하, 50~60대 연령층, 자영업/직장인, 주부/무직/기타층, 보건의료비 10만원 미만 지출층에서 [부담됨(합)] 비율이 높았다.

| 표1412 - (3)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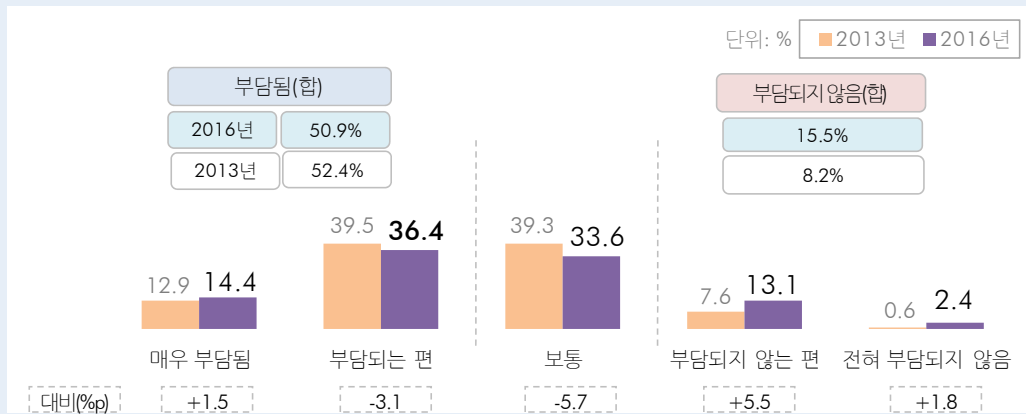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부담됨(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합)
합계 (1,953)		14.4	36.4	50.9	33.6	13.1	2.4	15.5
읍/면	읍 (1,007)	13.2	36.8	50.0	31.7	15.2	3.1	18.3
	면 (946)	15.7	36.1	51.8	35.7	10.9	1.6	12.5
영농 여부	농어가 (466)	12.4	38.5	50.9	32.4	11.8	5.0	16.8
	비농어가 (1,487)	15.1	35.8	50.9	34.0	13.5	1.6	1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35)	16.1	38.2	54.3	29.8	12.9	3.0	15.8
	40대 (549)	15.9	27.8	43.6	40.3	13.8	2.3	16.1
	50대 (496)	11.2	41.4	52.6	32.9	13.1	1.4	14.5
	60대 (61)	7.3	48.1	55.4	30.3	10.4	4.0	14.3
	70대 이상 (11)		45.7	45.7	38.1	15.1	1.1	16.1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270)	9.5	33.1	42.6	41.5	15.0	0.9	15.9
	자영업/직장인 (978)	14.7	36.1	50.7	35.1	11.4	2.8	14.1
	주부/무직/기타 (665)	16.0	38.7	54.7	27.0	15.7	2.6	18.3
보건 의료비	없음 (132)	15.1	30.8	45.8	34.0	13.7	6.4	20.1
	10만원 미만 (725)	14.7	42.4	57.1	30.0	12.0	0.9	12.9
	10만원 이상 (1,062)	14.5	32.5	47.0	36.0	14.1	2.9	16.9

* 18세-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부담되지 않음(합)] 비율이 다소 증가(+7.3%p)한 반면, [보통] 비율은 감소(-5.7%p)

| 그림1412 - (3) - ②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공적연금 미가입 주된 이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65.0%

(미가입층에 한해)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적연금 미가입층(n=1,19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5%(n=1,162)]

공적연금 미가입층(n=1,192)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5.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4%), '제도를 몰라서'(15.8%) 순이었다.

면지역, 비농어가, 비저축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층, 이주민,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12 - (4) | 공적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명)

구분		제도를 몰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1,162)		15.8	65.0	17.4	1.8
읍/면	읍 (393)	10.5	60.7	26.2	2.6
	면 (769)	18.5	67.1	12.9	1.4
영농 여부	농어가 (465)	16.7	60.2	22.9	0.2
	비농어가 (697)	15.2	68.1	13.7	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07)	5.3	54.4	36.7	3.7
	40대 (140)	6.1	66.6	27.3	
	50대 (190)	15.6	66.5	16.4	1.5
	60대 (172)	18.2	72.4	8.6	0.8
	70대 이상 (452)	22.8	65.8	9.3	2.1
저축 여부	저축층 (287)	13.8	39.8	45.6	0.8
	비저축층 (875)	16.4	73.2	8.2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544)	11.1	62.5	23.5	3.0
	선주민 (618)	19.9	67.2	12.1	0.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96)	11.8	24.2	63.7	0.3
	이주 비의향층 (1,066)	16.1	68.6	13.3	2.0

1413> 기타보험 가입현황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59.7%)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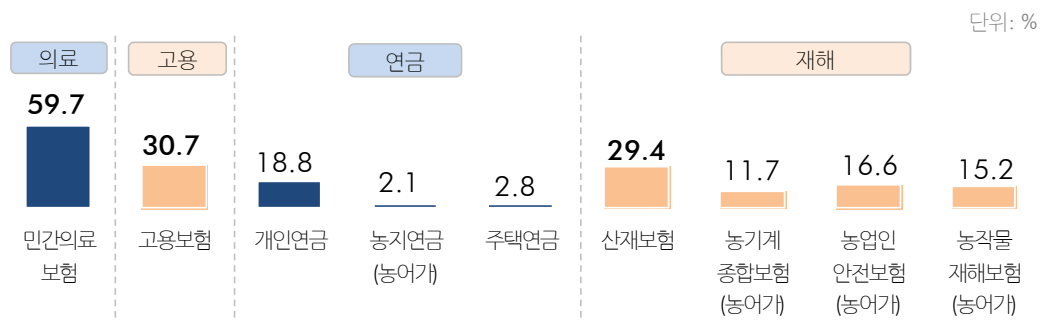
이밖에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 농업인 보험 : 농어가(n=1,403) 기준/ 중복 응답 : 보험 유형별 각 100.0%]

농어촌 주민 10명 중 6명이 '민간의료보험'(59.7%)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30.7%), '산재보험'(29.4%) 가입률은 30% 내외였고, '개인연금'은 18.8%, '주택연금'은 2.8%이었다.

한편,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농업인안전보험'이 16.6%, '농작물재해보험'이 15.2%, '농기계종합보험'이 11.7%이었으며, '농지연금' 가입률은 2.1%로 낮았다.

| 그림1413 - (1) | 기타보험 가입현황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기타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 표1413 | 기타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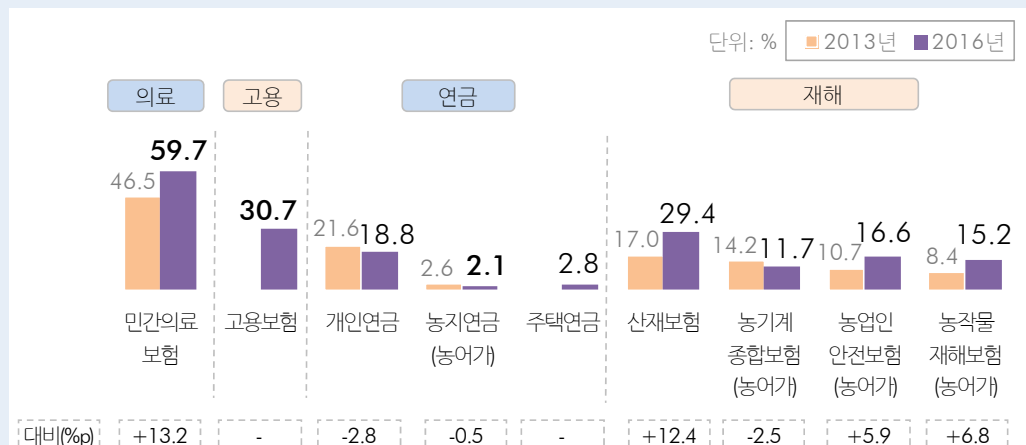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의료	고용	연금			재해			
		민간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주택 연금	개인 연금	농지 연금	산재 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합계		59.7	30.7	2.8	18.8	2.1	29.4	16.6	11.7	15.2
읍/면	읍	63.7	40.0	4.4	22.3	2.1	37.1	25.4	19.5	24.1
	면	56.8	24.1	1.7	16.3	2.1	23.9	14.1	9.5	12.7
영농 여부	농어가	59.3	16.4	0.7	14.4	2.1	16.4	16.6	11.7	15.2
	비농어가	59.9	38.5	4.0	21.2		36.5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 2013년에 비해 '민간의료보험'(+13.2%p), '산재보험'(+12.4%p), '농작물재해보험'(+6.8%p), '농업인안전보험'(+5.9%p) 가입률이 다소 증가

| 그림1413 - (2) |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141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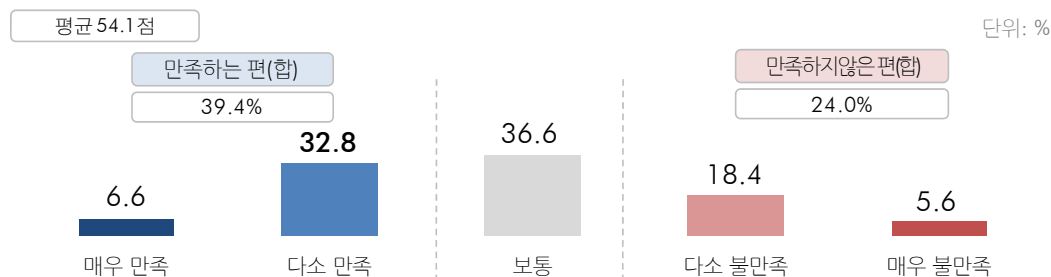
▶ 건강상태 [만족(합)] 39.4% > [불만족(합)] 24.0%, 평균 54.1점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본인 건강상태에 대해 ‘다소 만족’(32.8%) 등 [만족(합)](39.4%)한다가 [불만족(합)](24.0%) 보다 높았다.

| 그림1414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읍지역, 비농어가, 남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414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52)			54.1점	6.6	32.8	39.4	36.6	18.4	5.6	24.0
읍/면	읍	(1,636)	57.2점	7.6	34.9	42.5	40.8	12.2	4.4	16.7
	면	(2,316)	51.9점	6.0	31.3	37.3	33.6	22.7	6.5	29.1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0.8점	4.4	28.5	32.9	37.6	25.1	4.5	29.6
	비농어가	(2,549)	55.9점	7.9	35.2	43.1	36.0	14.7	6.3	20.9
응답자 성	남성	(1,660)	56.3점	8.2	33.7	41.9	37.8	15.7	4.7	20.3
	여성	(2,292)	52.6점	5.5	32.1	37.7	35.7	20.3	6.3	26.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4.9점	9.5	47.1	56.6	37.3	5.5	0.6	6.1
	40대	(714)	64.3점	13.2	41.1	54.3	36.9	7.3	1.5	8.8
	50대	(801)	55.5점	5.5	33.3	38.8	42.2	15.9	3.2	19.1
	60대	(597)	46.6점	2.6	24.2	26.9	37.0	29.2	6.9	36.2
	70대 이상	(761)	33.7점	0.7	10.9	11.7	29.1	41.1	18.2	59.2

1415>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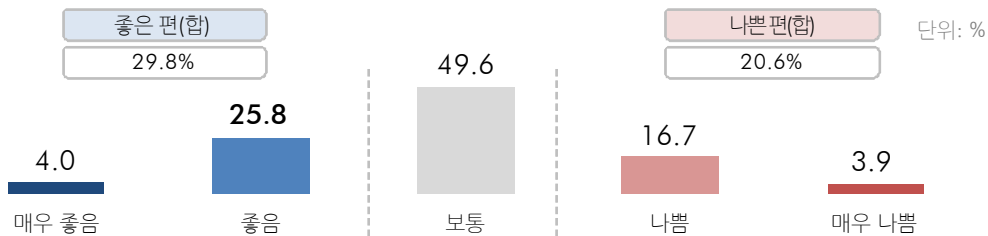
▶ [좋음(합)] 29.8% > [나쁨(합)] 20.6%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연령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좋음’(25.8%) 등 [좋음(합)](29.8%) 비율이 [나쁨(합)](20.6%)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 그림1415 |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건강상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읍지역, 비농어가, 남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슷한 연령대 대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1415 |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과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합계 (3,952)			4.0	25.8	29.8	49.6	16.7	3.9	20.6
읍/면	읍 (1,636)		3.7	28.8	32.5	53.7	10.5	3.3	13.8
	면 (2,316)		4.2	23.7	27.8	46.8	21.1	4.3	25.4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2.3	21.8	24.0	51.3	21.4	3.2	24.7
	비농어가 (2,549)		4.9	28.0	32.9	48.7	14.1	4.2	18.4
응답자 성	남성 (1,660)		6.2	27.8	33.9	48.7	14.0	3.3	17.3
	여성 (2,292)		2.4	24.4	26.8	50.3	18.7	4.3	2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9	36.0	40.9	51.3	5.8	2.0	7.8
	40대 (714)		9.4	32.4	41.9	49.0	7.7	1.4	9.1
	50대 (801)		2.5	23.1	25.5	58.6	14.0	1.9	15.9
	60대 (597)		1.9	19.3	21.2	47.6	26.2	4.9	31.1
	70대 이상 (761)		0.8	13.0	13.7	39.9	36.2	10.1	46.3

1416 >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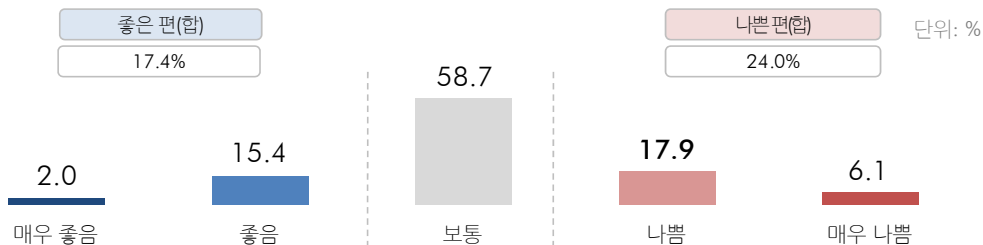
▶ [나쁨(합)] 24.0% > [좋은(합)] 17.4%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자신의 건강상태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통]이라는 응답이 58.7%이었으며, [좋은(합)](17.4%) 비율이 '나쁨'(17.9%) 등 [나쁨(합)](24.0%) 보다 낮았다.

| 그림1416 |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1년 전 대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표1416 |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은	좋은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합계 (3,952)			2.0	15.4	17.4	58.7	17.9	6.1	24.0
읍/면	읍	(1,636)	2.6	16.1	18.7	65.2	11.9	4.2	16.1
	면	(2,316)	1.6	14.8	16.4	54.1	22.1	7.4	29.5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1.5	12.1	13.6	57.1	21.7	7.6	29.3
	비농어가	(2,549)	2.3	17.1	19.5	59.5	15.8	5.2	21.0
응답자 성	남성	(1,660)	2.3	15.6	17.9	58.9	17.4	5.8	23.2
	여성	(2,292)	1.8	15.2	17.0	58.5	18.3	6.3	24.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8	19.9	24.7	65.4	6.8	3.0	9.9
	40대	(714)	2.0	26.9	28.9	59.4	9.2	2.6	11.8
	50대	(801)	1.0	14.9	15.9	64.5	16.7	2.9	19.6
	60대	(597)	0.7	8.0	8.7	56.7	25.1	9.4	34.5
	70대 이상	(761)	0.1	4.4	4.5	43.8	37.4	14.3	51.7

1417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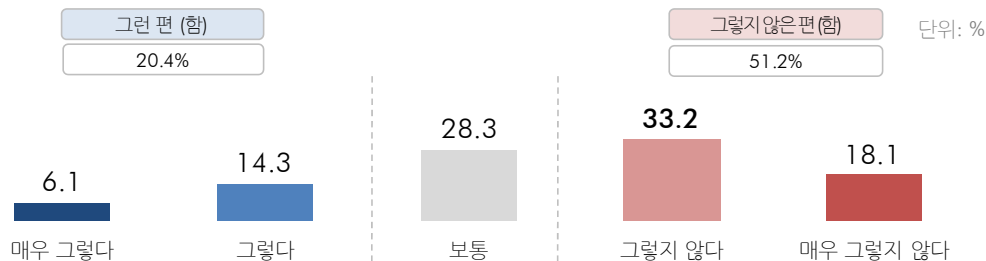
▶ [그렇지 않은 편(합)] 51.2% > [그런 편(합)] 20.4%

귀하께서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52)]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그렇지 않다’(33.2%) 등 [그렇지 않은 편(합)](51.2%) 보다 낮았다.

| 그림1417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면지역, 농어가,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편(합)] 비율이 높았다.

| 표1417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 (합)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3,952)			6.1	14.3	20.4	28.3	33.2	18.1	51.2
읍/면	읍	(1,636)	3.2	10.5	13.8	27.9	37.6	20.8	58.4
	면	(2,316)	8.1	17.0	25.1	28.7	30.1	16.1	46.2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7.2	17.9	25.1	29.2	32.1	13.7	45.7
	비농어가	(2,549)	5.5	12.4	17.9	27.8	33.8	20.5	54.3
응답자 성	남성	(1,660)	6.1	11.5	17.5	30.2	33.7	18.7	52.3
	여성	(2,292)	6.1	16.4	22.5	27.0	32.8	17.6	5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3	3.4	4.8	24.2	38.3	32.8	71.1
	40대	(714)	2.6	6.1	8.7	24.8	40.2	26.3	66.5
	50대	(801)	4.0	11.0	15.0	32.0	39.2	13.8	53.0
	60대	(597)	9.7	21.3	31.0	35.4	27.2	6.3	33.5
	70대 이상	(761)	15.5	35.6	51.1	28.1	17.8	3.0	20.8

141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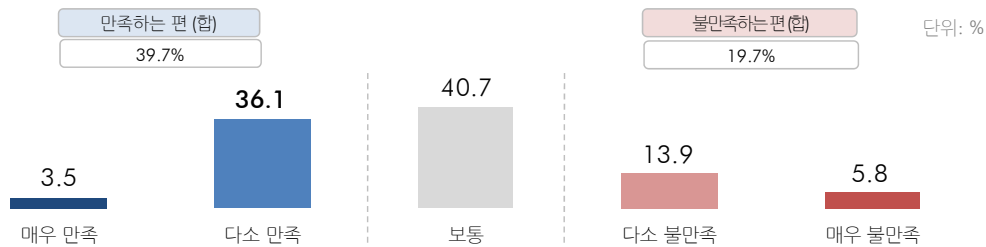
▶ [만족(합)] 39.7% > [불만족(합)] 19.7%

귀하께서는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n=3,25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0%(n=3,129)]

동거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소 만족’(36.1%) 등 [만족(합)](39.7%)이 [불만족(합)](19.7%)보다 높았다.

| 그림1418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읍지역, 비농어가,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거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418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129)			3.5	36.1	39.7	40.7	13.9	5.8	19.7
읍/면	읍	(1,333)	4.1	38.1	42.1	44.7	9.3	3.8	13.1
	면	(1,796)	3.1	34.7	37.8	37.6	17.3	7.2	24.5
영농 여부	농어가	(1,205)	2.5	28.7	31.2	41.1	20.7	6.9	27.7
	비농어가	(1,924)	4.2	40.8	44.9	40.4	9.6	5.0	14.7
응답자 성	남성	(1,356)	2.7	31.0	33.8	42.4	16.0	7.8	23.8
	여성	(1,774)	4.1	40.0	44.2	39.3	12.3	4.2	16.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44)	7.8	48.4	56.3	38.4	4.3	1.0	5.4
	40대	(658)	2.7	47.6	50.3	38.9	7.0	3.9	10.9
	50대	(682)	1.6	30.9	32.5	48.9	13.9	4.8	18.7
	60대	(446)	1.1	23.8	24.9	40.0	26.8	8.3	35.1
	70대 이상	(400)	0.8	11.0	11.9	35.7	33.5	18.9	52.4

* '동거가족이 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1419 > 정신건강 인식

▶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평균 58.0점, 동의율 44.0%)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음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조사대상가구(n=3,952) 기준]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평균 58.0점, 동의율 44.0%)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평균 56.5점, 동의율 40.6%),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평균 54.6점, 동의율 37.6%),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평균 53.1점, 동의율 32.8%),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평균 51.1점, 동의율 26.0%),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평균 51.0점, 동의율 2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평균 26.7점, 동의율 4.0%),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평균 29.7점, 동의율 8.7%),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평균 31.4점, 동의율 10.5%),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평균 32.4점, 12.8%),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평균 32.8점, 10.9%),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평균 34.2점, 동의율 10.7%),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평균 35.3점, 동의율 14.4%),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평균 36.7점, 16.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

| 표1419 | 정신건강 인식

단위 : %

구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합계		56.5점	40.6	32.4점	12.8	32.8점	10.9	53.1점	32.8	35.3점	14.4
읍/면	읍	57.5점	43.5	32.8점	11.7	33.8점	10.0	54.7점	33.0	35.5점	12.5
	면	55.8점	38.6	32.0점	13.5	32.1점	11.5	51.9점	32.7	35.2점	15.8
영농 여부	농어가	55.5점	39.3	32.8점	13.6	32.7점	11.8	49.9점	28.4	35.4점	15.3
	비농어가	57.1점	41.4	32.1점	12.4	32.9점	10.3	54.8점	35.3	35.2점	1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9.8점	46.0	29.5점	8.2	33.0점	9.2	60.0점	44.1	35.5점	15.2
	40대	61.7점	53.2	29.3점	14.7	29.8점	9.0	60.4점	45.9	30.4점	9.8
	50대	56.4점	38.9	31.2점	10.5	32.3점	12.8	53.2점	30.5	32.7점	11.7
	60대	54.2점	34.7	32.2점	11.2	32.8점	10.8	49.2점	24.4	34.8점	13.1
	70대 이상	49.1점	27.8	40.6점	21.2	35.8점	12.9	39.3점	13.5	42.7점	21.3
구분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합계		43.2점	15.0	43.8점	16.9	36.7점	16.5	51.0점	28.6	26.7점	4.0
읍/면	읍	45.7점	16.3	46.6점	18.1	34.7점	12.5	52.7점	30.3	25.7점	2.6
	면	41.5점	14.1	41.9점	16.0	38.2점	19.3	49.8점	27.4	27.4점	4.9
영농 여부	농어가	42.6점	16.5	42.5점	13.8	38.7점	16.9	49.1점	26.0	27.8점	4.5
	비농어가	43.6점	14.2	44.6점	18.6	35.7점	16.3	52.1점	30.1	26.1점	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7.4점	19.0	50.5점	24.2	30.5점	9.3	58.7점	40.5	24.7점	2.7
	40대	47.7점	20.8	47.5점	22.2	29.5점	9.3	59.4점	43.3	23.1점	2.3
	50대	42.4점	14.9	43.0점	16.5	35.3점	12.7	50.7점	26.1	25.8점	3.6
	60대	40.8점	11.4	40.0점	10.3	41.0점	20.8	45.8점	19.2	28.6점	4.2
	70대 이상	35.8점	6.9	34.8점	6.9	50.6점	34.2	36.7점	8.1	32.3점	7.4

* 동의율 : 매우 그렇다+그렇다

| 표1419 | 정신건강 인식(계속)

단위 : %

구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많다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합계		48.0점	24.0	54.6점	37.6	51.1점	26.0	46.0점	29.1	34.2점	10.7
읍/면	읍	49.6점	23.5	57.6점	43.6	52.5점	27.9	43.8점	25.1	32.6점	8.7
	면	46.8점	24.4	52.5점	33.4	50.2점	24.6	47.5점	31.9	35.4점	12.0
영농 여부	농어가	45.4점	18.9	53.0점	31.1	50.4점	25.1	47.8점	30.8	36.4점	11.2
	비농어가	49.4점	26.8	55.5점	41.2	51.6점	26.5	45.0점	28.1	33.1점	1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7.5점	32.9	60.9점	52.9	56.7점	35.2	42.4점	23.7	29.2점	4.6
	40대	56.1점	37.0	56.2점	43.5	52.7점	30.3	41.9점	25.8	30.0점	9.9
	50대	49.3점	23.9	53.2점	32.4	50.8점	24.2	44.8점	25.3	33.8점	8.3
	60대	42.2점	15.8	52.1점	30.5	48.5점	19.6	48.6점	34.0	37.1점	14.9
	70대 이상	30.1점	5.9	47.4점	21.6	44.3점	15.8	54.0점	39.9	43.5점	19.1
구분		자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점수	동의율
합계		29.7점	8.7	58.0점	44.0	46.1점	25.9	46.3점	20.2	31.4점	10.5
읍/면	읍	27.7점	6.5	58.3점	44.1	44.6점	21.6	47.1점	19.7	30.3점	7.4
	면	31.2점	10.2	57.8점	43.8	47.1점	29.0	45.7점	20.6	32.2점	12.6
영농 여부	농어가	32.0점	9.5	56.3점	39.5	49.1점	29.9	45.8점	19.4	32.5점	12.1
	비농어가	28.5점	8.3	59.0점	46.4	44.4점	23.7	46.6점	20.7	30.8점	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6점	2.0	55.6점	40.2	43.9점	22.2	47.3점	23.9	27.6점	4.5
	40대	23.0점	5.8	58.0점	42.6	41.5점	23.1	44.4점	20.4	26.6점	8.6
	50대	29.9점	5.8	60.3점	48.3	47.1점	27.0	46.7점	18.0	29.6점	8.5
	60대	35.3점	14.1	57.0점	43.2	48.0점	27.9	47.2점	19.5	36.0점	16.8
	70대 이상	43.0점	19.7	60.0점	46.5	50.8점	31.0	45.6점	17.9	39.7점	17.8

* 동의율 : 매우 그렇다+그렇다

142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 ‘의치(틀니) 지원사업’ 인지도(63.7%)가 가장 높음
- ▶ ‘노인건강진단사업’(45.7%),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34.8%) 경험률이 가장 높음
- ▶ 경험층의 만족도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83.0점), ‘노인장기요양보험’(80.4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의치(틀니) 지원사업’ 인지도(63.7%)가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n=1,47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노인복지서비스 중 ‘의치(틀니) 지원사업’(63.7%)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0.8%), ‘노인장기요양보험’(59.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59.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54.6%), ‘가정방문간호사업’(44.3%), ‘노인건강진단사업’(40.4%) 순이었으며,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32.0%),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15.9%)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약간 높았다.

| 표1420 - (1) - ①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467)	60.8	(1,465)	32.0	(1,464)	63.7	(1,464)	59.7	(1,465)	54.6
읍/면	읍	(377)	51.8	(377)	31.8	(377)	66.4	(377)	57.3	(377)	53.0
	면	(1,089)	63.9	(1,088)	32.0	(1,087)	62.8	(1,088)	60.5	(1,087)	55.2
영농 여부	농어가	(763)	62.9	(761)	32.7	(762)	67.9	(762)	66.4	(762)	57.2
	비농어가	(704)	58.4	(704)	31.1	(703)	59.2	(703)	52.4	(703)	51.8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465)	59.2	(1,465)	40.4	(1,466)	44.3	(1,464)	15.9		
읍/면	읍	(377)	56.2	(377)	38.7	(377)	41.4	(377)	17.7		
	면	(1,088)	60.2	(1,088)	40.9	(1,088)	45.4	(1,087)	15.2		
영농 여부	농어가	(762)	60.6	(762)	40.4	(762)	46.6	(762)	15.4		
	비농어가	(704)	57.6	(704)	40.3	(704)	41.9	(702)	16.4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

| 표1420 - (1) - ②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2016년	(1,467)	60.8	(1,465)	32.0	(1,464)	63.7	(1,464)	59.7	(1,465)	54.6
2013년	(1,159)	35.8	(1,161)	29.3	(1,160)	40.2	(1,160)	35.7	(1,152)	35.2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2016년	(1,465)	59.2	(1,465)	40.4	(1,466)	44.3	(1,464)	15.9		
2013년	(1,152)	29.5								

‘노인건강진단사업’(45.7%),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34.8%) 경험률이 가장 높음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층에 한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각 서비스별 인지층 중 ‘노인건강진단사업’(45.7%),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34.8%)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17.9%),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13.8%), ‘의치(틀니) 지원사업’(11.0%) 경험층은 15% 내외이었다.

한편, ‘가정방문간호사업’(9.8%), ‘노인돌봄 기본서비스’(9.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8.1%), ‘노인장기요양보험’(5.2%) 경험률은 낮았다.

비농어가에서 경험층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았으며, 면지역에서는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경험층이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경험층이 높았다.

| 표1420 - (2) - ①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합계		(891)	34.8	(468)	13.8	(933)	11.0	(874)	5.2	(800)	9.2
읍/면	읍	(196)	23.1	(120)	6.8	(250)	13.8	(216)	3.8	(200)	8.7
	면	(696)	38.0	(348)	16.3	(683)	10.0	(658)	5.6	(600)	9.4
영농 여부	농어가	(480)	28.7	(249)	14.0	(517)	12.1	(506)	3.9	(436)	6.1
	비농어가	(411)	41.9	(219)	13.7	(416)	9.7	(368)	6.8	(364)	12.8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합계		(867)	8.1	(591)	45.7	(650)	9.8	(232)	17.9		
읍/면	읍	(212)	10.9	(146)	43.5	(156)	8.5	(67)	30.5		
	면	(655)	7.2	(445)	46.4	(494)	10.2	(165)	12.8		
영농 여부	농어가	(461)	3.7	(308)	38.1	(355)	10.1	(117)	11.9		
	비농어가	(405)	13.2	(283)	54.0	(295)	9.4	(115)	23.9		

*사례수는 인지층의 사례수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의 노인복지서비스 경험률을 보였으며,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경험률이 다소 증가(+19.2%p)

| 표1420 - (2) - ②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단위: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6년	(891)	34.8	(468)	13.8	(933)	11.0	(874)	5.2	(800)	9.2
2013년	(421)	15.6	(343)	10.1	(471)	11.7	(418)	5.7	(417)	8.0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6년	(867)	8.1	(591)	45.7	(650)	9.8	(232)	17.9		
2013년	(352)	7.0								

* 사례수는 인지층의 사례수임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83.0점), ‘노인장기요양보험’(80.4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에 한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점]

각 서비스별 경험층의 만족도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83.0점), ‘노인장기요양보험’(80.4점)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70.8점), ‘가정방문간호사업’(70.7점), ‘의치(틀니) 지원사업’(69.3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68.4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68.3점),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65.8점),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62.7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어가에서 노인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비농어가에서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족도가 높았다. 면지역에서는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는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만족도가 높았다.

| 표1420-(3)-① |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합계		65.8	62.7	69.3	80.4	68.3	68.4	70.8	70.7	83.0
읍/면	읍	64.3	63.0	53.8	73.0	65.3	66.1	76.6	73.1	85.0
	면	66.0	62.7	77.2	82.1	69.2	69.5	69.1	70.0	81.1
영농여부	농어가	64.5	67.4	73.6	85.0	70.5	72.5	70.8	67.9	82.2
	비농어가	66.8	57.3	62.6	76.8	67.0	67.1	70.9	74.3	83.4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의치(틀니) 지원사업'(+9.1점), '노인장기요양보험'(+7.9점)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만족도는 감소(-4.7점)

| 표1420 - (3) - ② |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단위: 점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 요양 보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2016년	65.8	62.7	69.3	80.4	68.3	68.4	70.8	70.7	83.0
2013년	68.7	67.4	60.2	72.5	68.4	69.4			

142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 '치료'(23.4%) 및 '예방'(22.0%) 서비스가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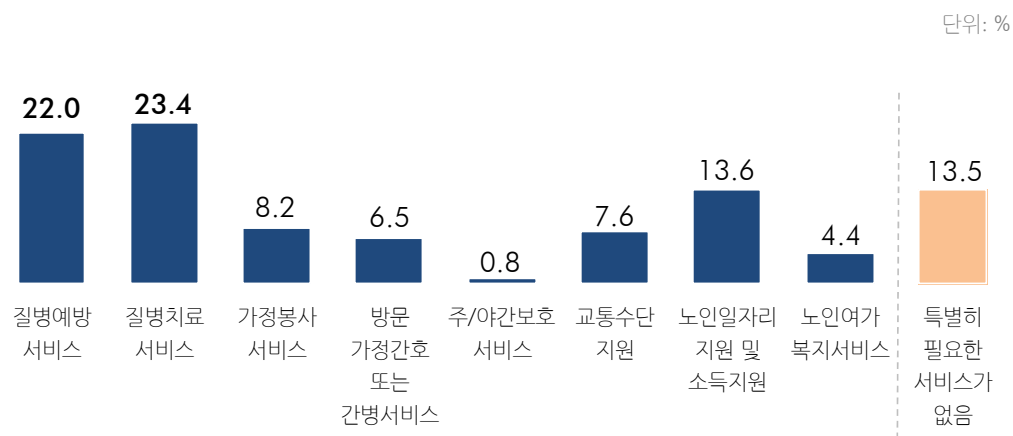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n=1,47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3%(n=1,460)]

응답자 본인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질병 '치료'(23.4%) 및 '예방'(22.0%)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13.6%), '가정봉사 서비스'(8.2%), '교통수단 지원'(7.6%), '방문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6.5%), '노인여가복지서비스'(4.4%)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 없음'은 13.5%이었다.

| 그림1421 - (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질병예방서비스’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질병치료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 표142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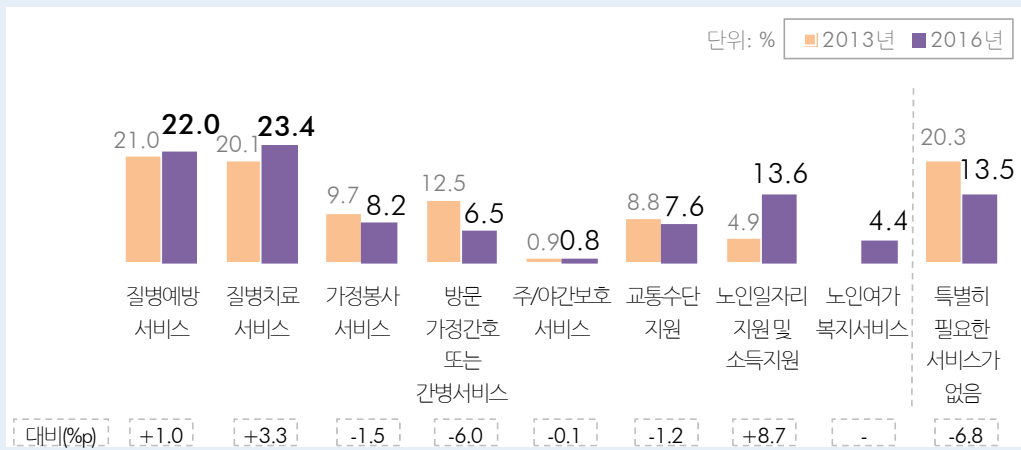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질병 예방 서비스	질병 치료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교통 수단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소득 지원	노인 여가 복지 서비스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 가 없음
합계 (1,460)			22.0	23.4	8.2	6.5	0.8	7.6	13.6	4.4	13.5
읍/면	읍 (373)		22.6	24.9	7.5	7.7	1.0	5.9	14.0	3.9	12.5
	면 (1,087)		21.8	22.8	8.4	6.1	0.8	8.1	13.5	4.5	13.9
영농 여부	농어가 (759)		21.3	25.2	5.7	6.1	0.8	6.4	13.9	5.1	15.5
	비농어가 (700)		22.8	21.4	10.8	7.0	0.9	8.9	13.3	3.6	1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7)		12.0	33.9	13.3				25.0	15.7	
	40대 (126)		28.9	21.9	3.9	16.7	1.7	9.2	3.1	2.1	12.5
	50대 (133)		25.7	22.4	4.3	2.6	1.5	4.4	11.9	10.5	16.6
	60대 (399)		21.8	18.9	7.8	5.8	0.6	4.2	18.1	2.6	20.1
	70대 이상 (755)		21.0	25.5	9.4	6.3	0.8	10.1	12.5	3.8	10.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70)		22.7	16.8	10.3	5.6	0.5	6.7	16.7	5.1	15.5
	선주민 (990)		21.7	26.5	7.1	7.0	1.0	8.0	12.1	4.0	12.6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3년과 구성항목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2013년에 비해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8.7%p), '질병치료서비스'(+3.3%p)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필요성은 다소 감소(-6.0%p)

| 그림1421 - (2)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 '기타'는 제외함

142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3.1%)이 가장 필요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n=45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3.6%(n=426)]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3.1%)이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재활서비스'(15.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0.5%),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7.9%), '이동편의지원서비스'(7.4%),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각 6.2%)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동편의지원서비스', 40대 연령층에서 '의료재활서비스', 50대 연령층에서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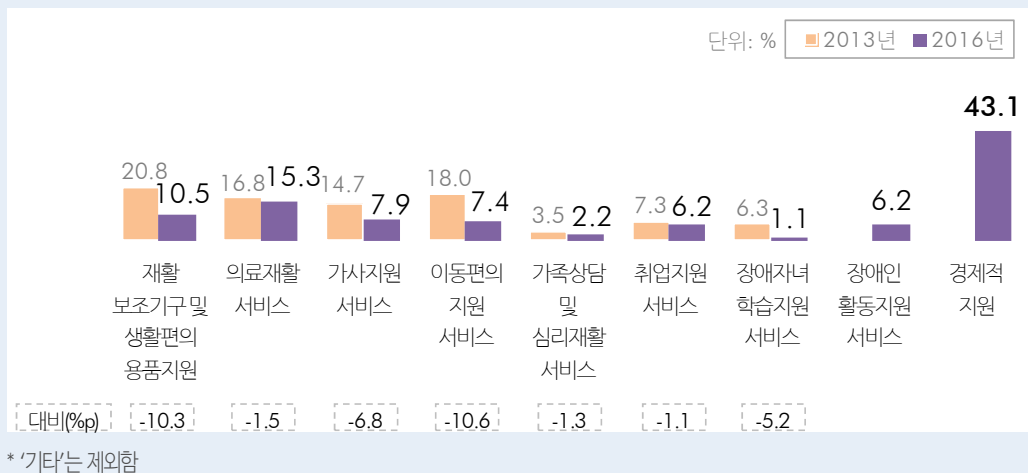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재활 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 용품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장애인활 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수 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합계 (426)			10.5	15.3	7.9	7.4	2.2	6.2	1.1	6.2	43.1
읍/면	읍	(113)	10.1	11.0	10.2	3.9	1.4	6.4	1.6	6.7	48.7
	면	(313)	10.6	16.9	7.1	8.7	2.4	6.1	0.9	6.0	41.1
영농 여부	농어가	(184)	14.4	16.5	8.4	10.8	3.0	2.8	0.6	7.0	36.5
	비농어가	(242)	7.5	14.5	7.6	4.9	1.5	8.8	1.5	5.5	4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9)		15.5		20.6	3.3	12.2		9.5	38.9
	40대	(54)	9.0	31.9	8.6	3.4		5.1		16.1	26.0
	50대	(90)	19.4	10.3	3.8	1.8	3.5	9.9	4.1	4.4	42.6
	60대	(95)	7.6	14.6	6.8	5.8	2.0	5.1		2.6	55.6
	70대 이상	(128)	11.8	12.4	15.0	8.3	1.7	2.1	0.9	4.4	43.5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3년과 구성항목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2013년에 비해 '이동편의지원 서비스'(-10.6%p),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0.3%p) 비율이 다소 감소

| 그림142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1423> 복지시설 이용실태

- ▶ 복지시설 이용 경험층 21.0%, 복지시설 이용층의 만족도 71.2점
- ▶ ‘걸어서’(64.4%)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복지시설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2.0분
- ▶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바빠서’ 42.5%



복지시설 이용 경험층 21.0%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주 이용한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47)]

‘월 5회 이상’(9.6%), ‘월 1회 미만’(5.3%), ‘월 3~4회’(3.3%), ‘월 1~2회’(2.8%) 등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 이용 경험층이 21.0%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
구에서 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3 - (1) | 복지시설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이용 경험 없음
합계 (3,947)		21.0	5.3	2.8	3.3	9.6	79.0
읍/면	읍 (1,634)	13.0	3.1	1.8	2.2	6.0	87.0
	면 (2,313)	26.7	7.0	3.4	4.1	12.2	73.3
영농 여부	농어가 (1,400)	28.3	6.9	4.1	4.1	13.3	71.7
	비농어가 (2,547)	17.0	4.5	2.0	2.9	7.6	8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9.5	4.0	0.4	1.9	3.2	90.5
	40대 (714)	20.2	4.8	2.4	3.5	9.4	79.8
	50대 (798)	15.3	3.9	2.9	2.6	5.9	84.7
	60대 (596)	26.0	7.9	4.1	4.3	9.7	74.0
	70대 이상 (760)	40.3	7.2	5.3	5.0	22.9	59.7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1,468)	37.6	7.6	5.1	5.0	19.8	62.4
	없음 (2,479)	11.2	4.0	1.3	2.3	3.6	88.8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55)	26.0	5.3	4.0	3.9	12.8	74.0
	없음 (3,492)	20.4	5.4	2.6	3.2	9.2	79.6

* 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 횟수 - 추이

- 2013년에 비해 '월 5회 이상'(+8.3%p) 등 복지시설 이용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 그림1423 - (1) | 복지시설 이용 횟수 - 추이



'걸어서'(64.4%)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복지시설 이용층에 한해) 그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복지시설 이용층(n=83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9%(n=821)]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64.4%)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가용'(20.1%), '대중교통'(12.0%) 순이었다.

| 그림1423 - (2) | 복지시설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 복지시설 월 평균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걸어서'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복지시설 월 5회 미만 이용층에서 '자가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3 - (2) | 복지시설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821)		64.4	12.0	20.1	3.6
읍/면	읍 (213)	61.4	12.2	25.0	1.4
	면 (608)	65.4	11.9	18.3	4.4
영농 여부	농어가 (387)	68.3	12.6	14.6	4.5
	비농어가 (434)	60.8	11.4	24.9	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4)	26.9	17.7	50.5	4.9
	40대 (144)	64.1	8.2	25.7	2.1
	50대 (122)	57.8	9.3	25.9	7.0
	60대 (155)	62.7	12.2	23.6	1.5
	70대 이상 (306)	79.4	12.9	4.0	3.7
복지시설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202)	39.2	17.3	39.0	4.5
	월 1-2회 (109)	46.7	28.9	22.0	2.4
	월 3-4회 (130)	59.5	10.1	27.2	3.2
	월 5회 이상 (380)	84.4	4.9	7.0	3.7

복지시설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2.0분

(복지시설 이용층에 한해) 그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복지시설 이용층(n=83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2%(n=807)]

복지시설까지 이동하는 편도 소요시간은 ‘10~20분 미만’(35.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29.1%), ‘20~30분 미만’(16.7%), ‘5분 미만’(10.2%), ‘30분 이상’(8.2%) 순으로 평균 12.0분이었다.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층 비율이 높았던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긴 반면, 걸어서 이동하는 층에서는 평균 소요시간이 짧았다.

| 표1423 - (3) | 복지시설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합계 (807)			12.0분	10.2	29.1	35.8	16.7	8.2
읍/면	읍 (210)		12.2분	7.5	33.5	32.1	18.2	8.7
	면 (597)		11.9분	11.1	27.6	37.0	16.2	8.1
영농 여부	농어가 (378)		11.4분	12.8	34.0	29.9	15.0	8.2
	비농어가 (429)		12.5분	7.9	24.8	40.9	18.2	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4)		15.7분		35.6	29.5	15.9	18.9
	40대 (141)		10.6분	6.9	16.7	64.4	9.3	2.8
	50대 (116)		11.8분	15.6	23.8	35.3	18.3	7.0
	60대 (153)		13.5분	11.5	25.2	24.5	29.7	9.2
	70대 이상 (302)		10.7분	12.1	36.9	30.2	13.2	7.5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	걸어서 (521)		8.7분	15.5	36.0	38.1	7.8	2.6
	대중교통 (96)		24.2분		5.4	22.3	34.6	37.7
	자가용 (162)		15.2분		20.3	35.9	34.2	9.6
	기타 (28)		12.0분	3.6	31.6	38.4	21.0	5.4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 평균 71.2점

(복지시설 이용층에 한해) 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복지시설 이용층(n=83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815)]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소 만족’(45.6%), ‘매우 만족’(22.0%) 등 [만족(합)](67.7%) 비율이 [불만족(합)](4.3%) 보다 높으며, 만족도 평균은 71.2점이었다.

비농어가, 복지시설 월 평균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65세 이상 어르신이 없는 가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423 - (4) |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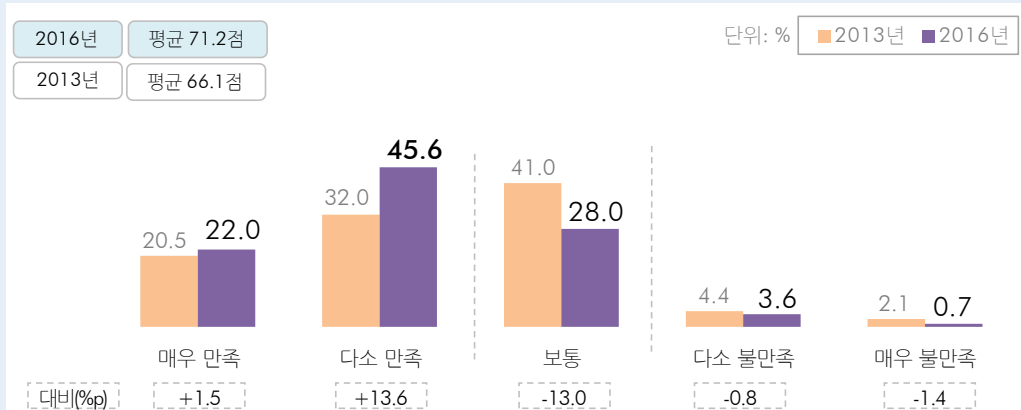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815)		71.2점	22.0	45.6	67.7	28.0	3.6	0.7	4.3
읍/면	읍 (208)	69.6점	19.1	45.9	65.0	30.7	3.1	1.2	4.3
	면 (607)	71.7점	23.1	45.5	68.6	27.1	3.7	0.5	4.3
영농 여부	농어가 (382)	69.0점	15.9	49.1	65.0	30.5	4.2	0.3	4.5
	비농어가 (433)	73.1점	27.5	42.5	70.0	25.9	3.0	1.1	4.1
복지시설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198)	61.7점	6.9	38.8	45.6	50.0	3.2	1.2	4.4
	월 1-2회 (108)	67.8점	11.3	52.5	63.8	32.7	3.2	0.3	3.5
	월 3-4회 (130)	77.2점	28.7	52.1	80.8	18.5	0.7		0.7
	월 5회 이상 (380)	75.0점	30.7	45.0	75.7	18.6	4.9	0.8	5.7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549)	69.2점	17.5	47.0	64.5	30.9	3.7	0.8	4.6
	없음 (266)	75.3점	31.4	42.7	74.1	22.2	3.3	0.4	3.7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17)	70.2점	18.9	52.6	71.6	22.1	3.1	3.2	6.4
	없음 (698)	71.3점	22.6	44.4	67.0	29.1	3.7	0.3	4.0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3년에 비해 [만족(합)] 비율이 크게 증가(+15.1%p)하여,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가 다소 증가(+5.1점)

| 그림1423 - (3) |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바빠서' 42.5%

(복지시설 비이용층에 한해)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시설 비이용층(n=3,11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3,099)]

복지시설 비이용층(n=3,117)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24.7%),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12.9%), '연령대가 맞지 않아서'(5.0%), '필요성을 못 느껴서'(4.3%) 순이었다.

읍지역, 6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바빠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향후 5년 내 비의향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3 - (5) | 복지시설 비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바빠서	돈이 없다	건강 문제/ 거동 불편	거리/ 교통 불편	연령 대가 맞지 않아서	필요성 을 못 느껴서	기타
합계 (3,099)			24.7	12.9	42.5	2.0	2.2	1.1	5.0	4.3	5.4
읍/면	읍 (1,420)	18.0	11.1	47.5	2.2	2.3	0.3	8.2	4.8	5.4	
	면 (1,679)	30.3	14.4	38.3	1.8	2.1	1.7	2.2	3.8	5.3	
영농 여부	농어가 (986)	23.8	9.8	44.9	1.7	1.5	2.0	6.7	4.8	5.0	
	비농어가 (2,113)	25.1	14.3	41.4	2.2	2.5	0.7	4.2	4.0	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77)	21.6	16.5	42.8	0.6		0.3	9.9	3.4	4.7	
	40대 (568)	26.2	9.0	51.3	1.7	0.4		1.5	6.3	3.6	
	50대 (676)	26.6	9.3	43.5	2.1	0.4	1.6	3.0	6.8	6.8	
	60대 (426)	24.8	12.8	45.3	2.6	2.5	1.7	3.8	2.3	4.3	
	70대 이상 (452)	26.6	15.1	26.8	4.8	11.6	2.7	2.7	1.7	7.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25)	22.0	12.3	44.0	2.0	2.1	0.5	4.7	6.7	5.6	
	선주민 (1,374)	28.0	13.6	40.6	2.0	2.4	1.8	5.3	1.2	5.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51)	12.1	12.0	50.1	0.9	0.5	0.5	14.5	2.3	7.0	
	이주 비의향층 (2,748)	26.3	13.0	41.6	2.2	2.4	1.2	3.7	4.5	5.2	

142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0.3%)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가구(n=3,95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3%(n=3,885)]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으로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0.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보호'(13.6%),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9.5%), '농촌 주민 건강 증진'(9.4%),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8.2%), '농촌 보건의료 정책'(7.3%),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4.9%), '농촌 교육'(3.7%), '주택의 보급 및 개량'(2.3%)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4 - (1)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단위: %(명)

구분		농업인 기초 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 환경 보호	농촌 교육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 버스 등 교통 수단 확보	농촌 주민 건강 증진	농촌 지역 사업체 에 대한 투자 확대	농촌 보건 의료 정책	기타
합계 (3,885)		40.3	13.6	4.9	3.7	2.3	8.2	9.4	9.5	7.3	0.8
읍/면	읍 (1,595)	33.1	13.5	5.7	4.6	2.2	7.9	8.6	15.2	8.5	0.8
	면 (2,290)	45.4	13.7	4.3	3.1	2.4	8.4	9.9	5.6	6.5	0.8
영농 여부	농어가 (1,394)	52.6	12.1	1.9	1.5	2.0	6.4	9.0	8.4	4.9	1.1
	비농어가 (2,491)	33.5	14.5	6.5	4.9	2.5	9.2	9.6	10.2	8.7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6)	26.6	14.9	6.3	8.8	2.3	9.2	3.0	17.9	9.4	1.6
	40대 (684)	33.5	19.1	5.5	5.0	3.1	7.6	9.9	8.0	7.7	0.4
	50대 (792)	50.7	11.5	5.3	0.9	2.0	6.3	8.4	8.2	6.0	0.6
	60대 (591)	50.3	11.6	4.2	0.7	2.4	6.5	11.3	7.3	5.4	0.4
	70대 이상 (743)	47.7	10.6	2.2	0.4	1.9	10.5	17.6	1.9	6.9	0.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 2015년과 구성항목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농촌지역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비율이 약간 증가(+3.7%p)한 반면, '농업의 미래보호' 비율은 다소 감소(-7.6%p)

| 표1424 - (2)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구분	농업인 기초 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 환경 보호	농촌 교육	농촌 주민 건강 증진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 버스 등 교통 수단 확보	농촌 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농촌 보건 의료 정책	기타
2016년	40.3	13.6	4.9	3.7	9.4	2.3	8.2	9.5	7.3	0.8
2015년	41.4	21.2	4.6	11.4		4.9	10.7	5.8		

제2부 기존통계 활용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2100> 보건의료 부문
- 2200> 복지 부문
- 2300> 교육 부문
- 2400> 문화·여가여건 부문
-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 2600> 지역역량 부문
- 2700> 경제활동 부문

2100> 보건의료 부문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농어촌의 유병률은 32.8%, 평균 유병일수 10.8일, 평균 외병일수 0.6일

2016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2.8%로 2008년 이후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24.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단위: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외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2014	농어촌	31.8	10.3	0.7
	도시	23.2	8.5	0.7
2016	농어촌	32.8	10.8	0.6
	도시	24.2	8.7	0.9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2102 >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8.4%), '고콜레스테롤혈증'(21.5%), '고중성지방혈증'(20.1%), '당뇨병'(12.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았다.

| 표2102 | 만성질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2013	농어촌	33.2	14.7	19.5	11.9
	도시	29.7	16.2	17.1	11.9
2014	농어촌	32.0	16.4	20.4	10.9
	도시	28.2	15.5	17.6	11.1
2015	농어촌	38.4	21.5	20.1	12.4
	도시	30.6	19.1	16.0	10.3

자료 : 2013년 이전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이후 - 국민건강통계

주 : 만 30세 이상 대상

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가 44.9%

2016년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4.9%)는 평가가 '나쁘다'(21.3%)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은 33.7%이었다. 건강에 대해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도시(47.5%)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 표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2014	농어촌	43.8	11.0	32.8	33.8	22.4	18.8	3.6
	도시	49.7	11.1	38.6	36.7	13.6	11.8	1.8
2016	농어촌	44.9	9.7	35.2	33.7	21.3	18.0	3.3
	도시	47.5	10.2	37.3	38.6	13.8	12.1	1.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2.5%

2015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2.5%로, 도시(61.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표2104 |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2013	농어촌	1,036	58.8	1.5
	도시	4,319	61.1	1.0
2014	농어촌	949	60.5	2.3
	도시	4,069	58.2	1.2
2015	농어촌	970	62.5	2.3
	도시	4,135	61.1	1.0

자료 : 2013년 이전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이후 - 국민건강통계

주 :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9,091원, 어가는 203,701원

2015년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9,091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174,720원)와 어가(203,701원) 보다 낮았다.

| 표2105 - (1) |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11,98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19,194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33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333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 표2105 - (2) |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67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73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2013	농가	174,851
	어가	188,717
	도시근로자가구	163,456
2014	농가	179,512
	어가	188,831
	도시근로자가구	173,790
2015	농가	179,091
	어가	203,701
	도시근로자가구	174,720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20.8%, 치과 27.2%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28.0%, 치과 27.2%로 2014년에 비해 ‘병의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약간 증가(+3.2%p)한 반면, ‘치과’는 감소(-7.8%p)하였다. 한편, ‘병의원’과 ‘치과’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모두 도시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2013	농어촌	140	21.3	4.4	341	37.9	3.0
	도시	566	27.8	2.4	1,290	35.4	2.0
2014	농어촌	952	17.6		997	35.0	
	도시	4,079	25.0		4,192	34.4	
2015	농어촌	970	20.8		1,041	27.2	
	도시	4,138	22.1		4,361	30.3	

자료: 2013년 이전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이후 - 국민건강통계

주: 2014년 이후 만 19세 이상 대상

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2%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2%로 도시(4.9%)에 비해 낮았다.

| 표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2013	농어촌	1,031	3.6	0.6	-	-	-
	도시	4,308	4.5	0.4	-	-	-
2015	농어촌	1,041	6.2	0.8	-	-	-
	도시	4,365	4.9	0.4	-	-	-

자료 : 2013년 이전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이후 - 국민건강통계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

2013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1.3%)이었으며,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1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2013	농어촌	1,030	0.9	452	0.0	578	1.9						
	도시	4,301	1.3	1,802	1.0	2,504	1.6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9 >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 손상 종류로는 골절(34.4%)이 가장 많음

2013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이었으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3.6%, 2.1%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타박상/멍’(12.1%), ‘뱀/접질림(염좌)’(10.6%)의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2.3%로 나타났다.

| 표2109 - (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27,130	2.4
	사용 안함	21,294	2.1	11,299	1.2
	총 계	64,735	3.0	38,429	1.9
농약	사용함	49,331	3.6	26,777	1.9
	사용 안함	15,465	2.1	11,488	1.7
	총 계	64,796	3.0	38,265	1.9

자료: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 표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굽힘/찰과상	2,527	3.9	일시적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2.0
찢림	848	1.3	농약 중독	1,453	2.3
타박상/멍	7,778	12.1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4
뱀/접질림(염좌)	6,765	10.6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베임(열상/개방상)	4,349	6.8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신체 절단	1,194	1.9	화상	181	0.3
골절	22,027	34.4	산소 결핍/질식	134	0.2
탈구	796	1.2	감전	0	0.0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6	복합 손상	3,309	5.2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5	기타	3,276	5.1
			총계	64,019	100.0

자료: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총계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2110 > 병상 수

▶ 농어촌의 병상 수는 67,355개로 도시(598,762개)의 약 11% 수준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67,355개로 ‘요양병원’(26,861개), ‘병원’(21,139개), ‘정신병원’(7,169개), ‘의원’(5,769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병상 수는 598,762개였다.

| 표2110-(1) | 병상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2013	농어촌	74,776	5,982	26,842	27,464	6,659	0	700
	도시	558,311	135,443	165,817	128,397	72,982	1,128	0
2014	농어촌	77,597	5,797	29,538	25,771	6,220	0	700
	도시	590,873	139,185	184,448	137,803	69,918	943	29
2015	농어촌	67,355	5,270	26,861	21,139	5,769	0	700
	도시	598,762	142,175	200,226	128,491	67,107	932	0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2110 - (2) | 병상 수

(단위 : 개)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2013	농어촌	6,644	24	0	279	95	85	2
	도시	39,231	283	92	12,309	1,851	505	273
2014	농어촌	9,069	0	0	338	78	86	0
	도시	40,302	277	76	13,793	2,315	1,635	149
2015	농어촌	7,169	3	0	225	163	56	0
	도시	38,718	267	1,139	16,205	2,910	540	52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7,387개소로 도시(56,032개소)의 약 13% 수준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7,387개소로 ‘의원’(2,211개소), ‘한의원’(1,706개소), ‘치과의원’(1,672개소) 순이었으며, 2014년에 비해 다소 증가(+2,621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2111 - (1)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2013	농어촌	4,511	23	190	164	2,108	0	1
	도시	56,388	301	1,038	1,167	26,708	3	0
2014	농어촌	4,766	21	205	170	2,233	0	0
	도시	58,909	300	1,099	1,266	28,456	4	1
2015	농어촌	7,387	27	336	273	3,211	0	1
	도시	56,032	310	999	1,219	26,152	3	0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2111 - (2)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2013	농어촌	25	3	1,007	5	959	23	3
	도시	135	197	14,572	198	11,857	168	44
2014	농어촌	32	4	1,018	6	1,051	24	2
	도시	138	198	14,915	228	12,084	189	31
2015	농어촌	14	6	1,672	10	1,706	129	2
	도시	23	207	14,912	250	11,899	29	29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종합병원의 63.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있음

2015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38.9%), 보건진료소(31.1%), 보건소(44.6%), 병·의원, 한의원(31.5%) 경우 행정리 안이나 소요시간 10분 미만인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63.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11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단위 : %)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구분	계 (행정리)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 분	30분 이상		
약국	36,498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36,498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36,498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36,498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36,498	1.0	4.6	89.7	6.6	26.2	67.2	4.7

구분	계 (행정리)	행정리 안에 있음	다른 지역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0분 미만	10- 20분 미만	20- 30분 미만	30- 40분 미만	40- 50분 미만	50- 60분 미만	1시간 이상	
약국	36,792	7.6	31.4	40.2	13.6	5.0	1.2	0.2	0.8	0.1
보건진료소	36,792	3.0	28.2	27.1	8.2	3.1	1.1	0.3	0.3	28.9
보건소	36,792	3.3	41.3	37.3	8.9	2.7	0.6	0.1	0.3	5.4
병·의원, 한의원	36,792	5.7	25.9	37.8	17.6	8.5	2.4	0.5	1.3	0.3
종합병원	36,792	0.4	3.9	12.0	20.0	23.0	14.2	6.8	15.2	4.5

자료 : 각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8.5%)'가 가장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8.5%), '한의원'(61.5%), '종합병원'(59.5%), '병의원'(58.2%), '약국'(31.2%) 순으로 나타났다.

| 표2113-(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2016	농어촌	59.5	31.4	9.1	58.2	36.1	5.7	61.5	30.1	8.4	68.5	28.0	3.5	31.2	63.2	5.7
	도시	51.8	35.3	13.0	47.3	44.8	7.8	51.9	39.9	8.1	55.1	35.7	9.2	33.2	62.5	4.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결과가 미흡하다’(20.7%), ‘의료비(약값)가 높다’(19.5%), ‘진료 및 입원대기시간이 길다’(17.1%) 순으로 나타났다.

| 표2113 - (2)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 하다	의료비 (약값)가 높다	치료 결과가 미흡 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 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검사 등)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0.1
2016	농어촌	15.6	19.5	20.7	9.2	17.1	7.1	6.4	4.2	0.3
	도시	11.5	24.9	20.0	9.8	19.9	1.8	9.8	1.7	0.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주된 응답

2200> 복지 부문

- 2201> 독거노인 현황
- 2202> 장수인구 비율
- 2203> 치매노인 비율
-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6> 노인 일자리 참여
-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2208> 영유아 비율
- 2209> 유치원 취원율
- 2210> 보육시설 현황
- 2211> 조손가구 비율
- 2212> 장애인 추가비용
-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1 > 독거노인 현황

▶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는 428,411명

2015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1,863,507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428,411명(23.0%)으로 2010년에 비해 -2.2%p 감소하여 2005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도시(17.5%)에 비해 서도 독거노인 비율은 +5.5%p 높게 나타났다.

| 표2201 |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가구원	65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2005	농어촌	1,593,513	366,809	23.0
	도시	2,721,902	415,899	15.3
2010	농어촌	1,747,486	440,726	25.2
	도시	3,536,134	625,639	17.7
2015	농어촌	1,863,507	428,411	23.0
	도시	4,545,444	794,758	17.5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6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202 장수인구 비율

▶ 농어촌의 장수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9%로 도시(0.8%)에 비해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85세 이상 장수인구 비율은 1.9%로 나타나 도시(0.8%)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2.7%)가 ‘남자’(1.0%)에 비해 장수인구 비율이 높았다.

| 표2202 | 장수인구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내국인	남자	여자
2005	농어촌	1.1	0.6	1.6
	도시	0.4	0.2	0.5
2010	농어촌	1.6	0.9	2.3
	도시	0.6	0.3	0.9
2015	농어촌	1.9	1.0	2.7
	도시	0.8	0.4	1.1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85세 이상 인구 비율

2203>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 치매 유병률은 9.18%

2012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으로, 9.18%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으며, 2005년 8.25%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2203 | 치매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주: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노인 수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농어촌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

2011년 기준, 농어촌 노인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자녀와의 동거'(17.2%), '시설입소'(4.2%) 순으로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204 | 노인 희망거주 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일반 주택·아파트	자녀 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그룹홈	일반 주택·아파트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2011	농어촌	77.7	17.2	0.2	0.5	0.1	4.2	0.0
	도시	72.5	18.9	1.1	1.1	0.7	5.5	0.2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 노인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66.1%)가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69.7%)이 주된 소득원임

2015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6.1%)', '자녀 또는 친척 지원(19.9%)', '정부 및 사회단체(13.9%)' 순으로 나타나, 도시에 비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비율이 약간 낮은(4.2%p) 반면, '정부 및 사회단체' 비율이 약간 높았다(+4.8%p).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6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경우에 농어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61.5%)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53.7%)이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 표2205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2015	농어촌	66.1	69.7	7.0	17.7	5.6	19.9	38.5	61.5	13.9	0.0
	도시	66.7	48.9	13.4	31.1	6.6	24.1	53.7	46.3	9.1	0.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2206>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7.7%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층은 3.7%,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4.0%,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3.2%로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206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인지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2014	농어촌		3.7	4.0	3.2	89.1
	도시		4.5	4.5	5.6	86.0

자료 : 2014 노인실태조사 p424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7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90.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가사서비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사에서 2011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보장'(32.3%), '의료서비스'(28.3%), '수발서비스'(21.5%)로 나타났다.

| 표2207 - (1)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받고 싶음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 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 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07	농어촌	71.5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도시	79.1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2009	농어촌	76.6	26.9	2.2	16.2	3.8	2.2	5.2	35.6	5.4	2.0	0.5
	도시	83.8	22.1	1.3	11.7	3.5	2.6	13.1	35.6	8.3	1.4	0.3
2011	농어촌	93.1	28.3	2.5	17.8	2.6	1.9	7.3	34.5	4.0	0.9	0.2
	도시	95.3	25.2	1.8	13.2	3.3	1.6	11.9	34.3	7.0	1.4	0.3
2013	농어촌	90.7	26.2	2.7	20.8	4.2	2.4	6.9	29.8	5.8	0.8	0.4
	도시	93.2	23.4	1.8	16.3	3.8	2.2	11.9	31.3	7.9	1.2	0.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207 - (2) |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 활동 지원	노후 주거 지원	기타
2011	농어촌	32.3	21.5	6.7	28.3	6.8	3.7	0.6
	도시	31.6	17.4	10.1	25.1	10.7	3.9	1.3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8>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7%

2016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도시(5.3%)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08 | 영유아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2015	농어촌	100.0	4.8	3.1	1.7
	도시	100.0	5.4	3.6	1.9
2016	농어촌	100.0	4.7	3.0	1.7
	도시	100.0	5.3	3.4	1.9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209 >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도시(50.9%)와 비슷한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5년 전인 2012년(39.4%)에 비해 증가(+7.8%p)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50.9%)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2209 | 유치원 취원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2012	농어촌	246,339	97,058	39.4
	도시	1,162,159	516,691	44.5
2013	농어촌	234,651	106,015	45.2
	도시	1,152,386	552,173	47.9
2014	농어촌	237,705	105,105	44.2
	도시	1,157,489	547,441	47.3
2015	농어촌	244,483	110,373	45.1
	도시	1,192,872	572,180	48.0
2016	농어촌	239,790	113,103	47.2
	도시	1,160,161	591,035	5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2007~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교육통계(2012~)

주 :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10 >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8,216개)은 도시의 24% 수준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8,216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도시(대도시+중소도시)의 24% 수준 이었다.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역시 소폭의 감소 추이를 보였으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4,211명)가 가장 많았다.

| 표2210 -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2)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민간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2014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24	3,178	120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64	7,985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61	12,155	233
2015	농어촌	8,216	606	754	363	3,267	27	3,053	146
	대도시	15,695	1,321	377	270	5,619	66	7,671	371
	중소도시	18,606	702	283	201	5,740	62	11,350	268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3)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2014	농어촌	66,101	5,580	9,475	3,517	31,956	131	14,052	1,390
	대도시	120,925	15,340	5,616	2,757	56,227	421	36,059	4,505
	중소도시	124,791	8,057	3,954	2,475	53,764	304	52,836	3,371
2015	농어촌	68,523	5,804	9,362	3,543	33,418	157	14,421	1,818
	대도시	124,721	16,488	5,656	2,669	57,352	479	37,021	5,056
	중소도시	127,823	8,531	3,915	2,425	54,954	334	53,682	3,982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4)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2014	농어촌	341,403	30,654	52,647	19,493	183,033	590	48,811	6,178
	대도시	575,605	83,146	30,465	15,119	297,922	1,784	128,403	18,766
	중소도시	597,663	45,444	21,440	14,563	294,459	1,400	188,036	14,321
2015	농어촌	340,463	31,156	50,557	19,054	184,211	688	46,860	7,937
	대도시	558,183	87,444	29,073	14,114	283,995	1,968	121,270	20,319
	중소도시	554,167	47,143	20,085	13,690	279,392	1,471	175,877	16,509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안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211 > 조손가구 비율

▶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0.9%로 도시(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0.9%로 도시(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211 | 조손가정

(단위 :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2015	농어촌	3,623,129	31,776	0.9
	도시	15,487,901	81,335	0.5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조손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의 합

2212 >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크게 증가함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14년에는 164.2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2.8%p)한 반면, '의료비'(+9.2%p), '부모 사후 대비비'(+10.6%p)가 다소 증가하였다.

| 표2212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2014	164.2	25.6	66.0	4.1	13.6	4.2	9.9	18.9	16.8

자료 :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7.3%,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18.0%

2015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7.3%로 도시(4.3%)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18.0%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2213 - (1)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2014	농어촌	48,818	3,940	8.1	3,500	730	20.9
	도시	248,965	11,587	4.7	1,222	145	11.9
2015	농어촌	48,638	3,534	7.3	3,410	615	18.0
	도시	247,486	10,762	4.3	1,278	134	10.5

자료: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015년 기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74.8%인 반면, 도시에서는 65.3%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13 - (2) |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2009	농어촌	29.7	41.4	22.3	6.6
	도시	43.1	37.2	16.6	3.1
2012	농어촌	28.4	36.2	27.9	7.5
	도시	39.9	37.4	18.9	3.8
2015	농어촌	25.2	35.1	31.7	8.0
	도시	35.7	37.8	22.4	4.1

자료 :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로 농어촌의 경우 '6세 미만'(45.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11세'(32.7%), '12~14세'(10.1%), '15~17세'(7.3%), '18세 이상'(4.5%) 순으로 자녀의 평균 연령은 7.33세였다. 도시의 경우, '18세 이상'(9.7%)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약간 높아(+5.2%p) 평균 연령은 7.96세였다.

| 표2213 - (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연도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평균(세)
2012	농어촌	54.4	26.9	9.7	4.5	4.4	6.56
	도시	51.3	24.9	7.6	4.6	11.5	7.86
2015	농어촌	45.4	32.7	10.1	7.3	4.5	7.33
	도시	46.0	30.0	8.3	6.1	9.7	7.96

자료 :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39.3%), 학부모로서 어려운 가장 점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해서’(32.8%)이었으며, 도농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213 - (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

연도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와 갈등	한국어 가르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기타
2012	농어촌	53.1	7.0	30.7	10.5	50.7	4.9	7.7	1.9	2.8
	도시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자료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5) |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어려운 점

(단위 : %)

연도	구분	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사람 들이 무시해서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몰라서	기타	어려움 없음
2015	농어촌	10.5	1.4	17.5	39.3	9.1	1.3	20.8
	도시	11.1	1.9	23.1	28.3	10.5	1.9	23.3

자료 :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6) |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단위 : %)

연도	구분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학교생활 잘 알지 못해서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 잘 챙겨주지 못해서	다른 학부모와 대화 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워서	기타	어려움 없음
2015	농어촌	32.8	12.4	12.8	9.5	11.0	1.0	20.4
	도시	28.4	10.2	12.3	10.5	13.6	0.8	24.2

자료 :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300> 교육 부문

- 2301> 학생 수
- 2302> 학교 수
-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2306> 복식학교 비율
- 2307> 교원 수
- 2308> 연령별 교원 수
- 2309> 사무직원 수
-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2311> 보건교사 배치율
-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6> 통학수단
-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2320> 학업중단 비율
- 2321> 대학(교) 진학률
-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 참여율
-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2325> 도서관 현황
-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01 > 학생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는 938,577명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938,577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2301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144,550	609,385	282,418	252,747
	도시	6,473,246	3,062,822	1,756,193	1,654,231
2009	농어촌	1,109,056	570,718	277,997	260,341
	도시	6,338,103	2,903,677	1,728,975	1,705,451
2010	농어촌	1,087,631	545,841	277,955	263,835
	도시	6,148,617	2,753,253	1,696,843	1,698,521
2011	농어촌	1,060,729	521,695	275,042	263,992
	도시	5,926,118	2,610,782	1,635,530	1,679,806
2012	농어촌	1,038,396	496,997	273,273	268,126
	도시	5,682,780	2,454,998	1,575,821	1,651,961
2013	농어촌	994,318	463,026	263,333	267,959
	도시	5,487,174	2,320,720	1,540,856	1,625,344
2014	농어촌	981,213	460,649	255,014	265,550
	도시	5,304,579	2,267,860	1,462,897	1,573,822
2015	농어촌	964,781	464,147	238,321	262,313
	도시	5,124,046	2,250,463	1,347,630	1,525,953
2016	농어촌	938,577	459,010	219,494	260,073
	도시	4,944,213	2,213,833	1,237,996	1,492,38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2 > 학교 수

▶ 농어촌의 학교 수는 4,397개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4,397개로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도시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2 | 학교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526	2,609	1,240	677
	도시	6,554	3,204	1,837	1,513
2009	농어촌	4,485	2,573	1,235	677
	도시	6,675	3,256	1,871	1,548
2010	농어촌	4,489	2,566	1,239	684
	도시	6,748	3,288	1,891	1,569
2011	농어촌	4,475	2,550	1,238	687
	도시	6,842	3,332	1,915	1,595
2012	농어촌	4,457	2,531	1,236	690
	도시	6,903	3,364	1,926	1,613
2013	농어촌	4,431	2,513	1,229	689
	도시	6,977	3,400	1,944	1,633
2014	농어촌	4,422	2,508	1,229	685
	도시	7,024	3,426	1,957	1,641
2015	농어촌	4,428	2,514	1,228	686
	도시	7,098	3,464	1,976	1,658
2016	농어촌	4,397	2,497	1,217	683
	도시	7,166	3,504	1,992	1,670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3 > 학급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는 '1~6학급' 비율이 가장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1~6학급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7~12학급이 29.2%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25~36학급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19~24학급이 20.9%, 13~18학급이 14.2%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 표2303 | 학급 수별 학교 수 (단위: %)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5 학급	6~ 10 학급	11~ 15 학급	16~ 20 학급	21~ 25 학급	26~ 30 학급	31~ 35 학급	36~ 40 학급	41~ 45 학급	46~ 50 학급	51 학급 이상
2008	농어촌	23.2	47.8	10.3	6.2	4.5	3.1	2.2	1.6	0.5	0.3	0.3
	도시	0.7	4.7	6.0	10.1	14.6	19.1	14.7	13.5	8.2	4.7	3.7
2009	농어촌	23.9	47.0	10.1	6.4	4.7	3.1	2.2	1.7	0.4	0.4	0.2
	도시	0.7	5.0	5.7	10.9	15.8	18.7	14.9	12.8	8.1	4.0	3.2
2010	농어촌	24.4	46.6	10.1	6.0	4.9	2.9	2.4	1.7	0.5	0.3	0.2
	도시	0.6	4.9	5.8	11.4	17.1	18.6	14.8	13.0	7.4	3.7	2.7
2011	농어촌	24.1	46.6	9.8	6.2	5.1	3.0	2.4	1.8	0.5	0.3	0.1
	도시	0.6	5.3	6.2	11.5	17.8	18.8	14.7	12.5	6.9	3.5	2.1
2012	농어촌	23.5	46.9	10.2	5.9	5.1	3.1	2.5	1.8	0.6	0.3	0.1
	도시	0.6	5.3	6.8	12.7	17.9	19.0	14.5	12.0	6.4	3.0	1.8
2013	농어촌	23.5	46.9	10.8	5.5	5.1	3.1	2.5	1.6	0.6	0.3	0.1
	도시	0.7	5.1	7.4	13.3	18.4	19.2	14.1	11.6	5.9	2.9	1.4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6 학급	7~12 학급	13~18 학급	19~24 학급	25~36 학급	37~42 학급	43~48 학급	49학급 이상			
2014	농어촌	45.3	29.0	10.0	6.5	6.8	1.7	0.5	0.3			
	도시	2.1	6.0	13.6	20.1	40.9	9.9	5.3	2.1			
2015	농어촌	45.1	29.2	10.0	6.2	7.1	1.4	0.6	0.3			
	도시	2.1	6.6	14.2	20.9	40.2	9.0	5.0	2.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별 학교 수는 '10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학생 수별 학교 분포를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 수 '1,001~1,500명'인 학교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304 | 학생 수별 학교 수 (단위 : %)

연도	구분	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3,000명	3,001명 이상
2008	농어촌	47.9	17.9	13.5	7.7	4.6	3.6	4.1	0.6	0.1	0.0
	도시	2.1	1.8	5.2	10.2	14.0	17.4	37.4	10.5	1.3	0.0
2009	농어촌	49.1	16.9	13.5	7.7	4.8	3.5	4.0	0.4	0.0	0.0
	도시	2.3	1.9	5.6	10.8	15.9	18.4	35.5	8.8	0.9	0.0
2010	농어촌	50.5	16.2	13.1	7.8	4.7	3.6	3.9	0.3	0.0	0.0
	도시	2.3	2.2	6.0	12.1	17.5	18.6	33.7	7.0	0.6	0.0
2011	농어촌	51.5	15.6	12.9	7.7	4.8	3.6	3.7	0.2	0.0	0.0
	도시	2.5	2.3	7.2	13.6	18.4	19.9	30.2	5.6	0.4	0.0
2012	농어촌	52.4	14.8	13.2	7.4	4.6	4.1	3.3	0.1	0.0	0.0
	도시	2.4	2.7	8.7	15.4	20.3	19.8	26.9	4.2	0.2	0.0
2013	농어촌	53.5	14.0	13.6	7.6	4.8	3.5	3.0	0.1	0.0	0.0
	도시	2.6	2.8	9.2	17.1	21.4	19.7	24.0	3.1	0.1	0.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1) 초, 중, 고등학교 대상임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5 > 소규모학교 비율

▶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학생 수 100인 이하) 비율은 53.5%이며,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소규모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 표2305 | 소규모학교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소규모학교(100인 이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7.9	57.2	46.3	15.1
	도시	2.1	3.8	0.7	0.3
2009	농어촌	49.1	58.7	48.0	14.6
	도시	2.3	4.1	0.9	0.2
2010	농어촌	50.5	60.2	49.2	16.2
	도시	2.3	4.0	0.9	0.3
2011	농어촌	51.5	62.1	49.4	16.0
	도시	2.5	4.4	0.8	0.4
2012	농어촌	52.4	64.1	49.4	15.1
	도시	2.4	4.3	0.8	0.3
2013	농어촌	53.5	65.9	49.8	14.9
	도시	2.6	4.5	1.1	0.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6 > 복식학교 비율

▶ 농어촌의 복식학교 비율은 13.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초등학교 2,513개 중 복식학교 비율은 13.2%로, 이 중 '2개 학년' 복식학교 비율이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는 복식학교 비율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6 | 복식학교 비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초등학교		복식학급 학교 수					복식학교 비율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2008	농어촌	2,609	364	362	2	-	-	-	14.0
	도시	3,204	47	23	10	10	3	1	1.5
2009	농어촌	2,573	386	381	1	3	1	-	15.0
	도시	3,256	34	24	4	3	2	1	1.0
2010	농어촌	2,566	382	379	3	-	-	-	14.9
	도시	3,288	36	24	6	3	3	-	1.1
2011	농어촌	2,550	368	355	6	1	-	6	14.4
	도시	3,332	27	19	3	3	1	1	0.8
2012	농어촌	2,531	335	320	2	3	-	10	13.2
	도시	3,364	24	16	5	2	-	1	0.7
2013	농어촌	2,513	332	314	2	1	1	14	13.2
	도시	3,400	30	17	6	2	1	4	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7 > 교원 수

▶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26명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26명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교원 수는 증가(+181명)한 반면, 중학교 교원 수는 2015년 대비 감소(-20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교원 수는 339,878명으로 2015년 대비 감소(455명)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 수가 증가(+819명)한 반면, 중학교 교원 수가 감소(-1,521명)했다.

표2307 | 교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교원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2014	농어촌	88,219	42,656	22,949	22,614
	도시	342,290	140,016	90,400	111,874
2015	농어촌	88,571	42,843	22,883	22,845
	도시	340,333	139,815	88,364	112,154
2016	농어촌	88,526	42,818	22,682	23,026
	도시	339,878	140,634	86,843	112,40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8> 연령별 교원 수

▶ 농어촌 학교의 연령별 교원 수는 30대가 29.6%로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 교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6.2%), '50대'(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역시 '30대' 교원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1%), '50대'(23.8%)의 순이었다.

표2308 | 연령별 교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2008	농어촌	83,688	13,617	16.3	20,878	24.9	20,501	34.1	18,433	22.0	2,259	2.7
	도시	320,108	54,187	16.9	100,257	31.3	100,383	31.4	58,095	18.1	7,186	2.2
2009	농어촌	83,748	14,412	17.2	20,737	24.8	28,537	34.1	17,779	21.2	2,283	2.7
	도시	325,469	54,141	16.6	103,410	31.8	101,487	31.2	59,637	18.3	6,794	2.1
2010	농어촌	84,422	14,243	16.9	21,294	25.2	28,270	33.5	18,219	21.6	2,396	2.8
	도시	327,536	51,086	15.6	105,824	32.3	100,166	30.6	63,006	19.2	7,454	2.3
2011	농어촌	86,136	14,453	16.8	22,345	25.9	27,534	32.0	19,240	22.3	2,564	3.0
	도시	336,228	50,321	15.0	111,401	33.1	97,931	29.1	68,821	20.5	7,754	2.3
2012	농어촌	87,000	14,407	16.6	23,624	27.2	26,273	30.2	20,133	23.1	2,563	2.9
	도시	338,392	48,577	14.4	113,373	33.5	95,140	28.1	73,518	21.7	7,784	2.3
2013	농어촌	86,872	14,038	16.2	24,309	28.0	24,460	28.2	21,332	24.6	2,733	3.1
	도시	340,817	47,105	13.8	115,152	33.8	92,949	27.3	76,962	22.6	8,649	2.5
2014	농어촌	88,219	14,075	16.0	25,369	28.8	23,919	27.1	22,088	25.0	2,768	3.1
	도시	342,290	45,305	13.2	115,054	33.6	92,257	27.0	80,729	23.6	8,945	2.6
2015	농어촌	88,571	14,125	15.9	26,239	29.6	23,223	26.2	22,496	25.4	2,488	2.8
	도시	340,333	44,961	13.2	114,710	33.7	92,154	27.1	80,973	23.8	7,535	2.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9 >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 수는 16,408명, 학교 당 3.7명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408명, 학교 당 3.7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7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9 |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 수				학교 당 사무직원 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2014	농어촌	17,031	10,136	3,806	3,089	3.9	4.0	3.1	4.5
	도시	34,339	15,589	8,099	10,651	4.9	4.6	4.1	6.5
2015	농어촌	16,634	9,884	3,706	3,044	3.8	3.9	3.0	4.4
	도시	34,094	15,588	7,913	10,593	4.8	4.5	4.0	6.4
2016	농어촌	16,408	9,704	3,640	3,064	3.7	3.9	3.0	4.5
	도시	33,649	15,288	7,773	10,588	4.7	4.4	3.9	6.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도시(8.0%)의 약 1/3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8.0%)의 약 1/3수준이었다.

표2310 | 사서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사서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2.7	2.5	2.0	4.9
	도시	7.9	4.5	5.8	17.8
2009	농어촌	2.7	2.6	2.0	4.6
	도시	7.9	4.5	5.8	17.6
2010	농어촌	2.9	2.8	2.1	4.8
	도시	8.1	4.7	5.5	18.5
2011	농어촌	3.0	2.8	2.3	4.8
	도시	8.3	4.7	6.1	18.5
2012	농어촌	2.9	2.7	2.6	4.3
	도시	8.0	4.7	5.7	17.8
2013	농어촌	2.5	2.5	2.1	3.2
	도시	8.0	4.8	6.0	17.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사서교사배치율(%)=사서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1 >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도시(80.7%)의 약 1/2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인 반면,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16.8%)을 나타냈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0.7%로 농어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1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2014	농어촌	38.4	47.7	17.6	41.6
	도시	81.1	86.9	72.6	79.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보건교사배치율(%)=보건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

2013년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36.9%)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	
			보유 학교수	보유율
2008	농어촌	677	528	78.0
	도시	1,513	520	34.4
2009	농어촌	677	532	78.6
	도시	1,548	523	33.8
2010	농어촌	684	503	73.5
	도시	1,569	528	33.7
2011	농어촌	687	515	75.0
	도시	1,595	560	35.1
2012	농어촌	690	537	77.8
	도시	1,613	581	36.0
2013	농어촌	689	528	76.6
	도시	1,633	603	36.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4.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2313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4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5%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5%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이 대도시(53.8%) 및 중소도시(45.1%)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2013	농어촌	40.6
	대도시	52.9
	중소도시	44.7
2014	농어촌	41.5
	대도시	53.8
	중소도시	45.1
2015	농어촌	41.0
	대도시	50.9
	중소도시	44.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8.2%

2014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8.2%로, 고등학교(6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52.2%), 중학교(27.8%) 순이었다.

| 표2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2013	47.6	49.2	29.3	62.7	69.7
2014	48.2	52.2	27.8	61.4	68.5
2015	46.8	50.8	26.7	58.6	65.3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6 > 통학수단

▶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통학수단은 '도보(37.1%)'가 가장 많고,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으로는 '도보'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통근·통학버스'(9.1%) 순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 시내·좌석·마을버스', '승용·승합차' 및 '통근·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도보' 및 '전철·지하철'은 낮게 나타났다.

표2316 | 통학수단

(단위: %)

연도	구분	승용 소형 승합차	시내 좌석 마을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지하철	기차	택시	자전 거	도보	기타	복합 수단
2005	농어촌	11.1	35.4	8.3	2.6	0.3	0.3	0.1	2.1	37.5	0.7	1.6
	남자	12.0	34.0	8.0	2.4	0.3	0.3	0.1	3.3	37.4	0.7	1.3
	여자	10.1	37.1	8.7	2.7	0.3	0.3	0.1	0.6	37.6	0.6	1.9
	도시	5.5	29.5	5.9	1.0	7.6	0.2	0.1	1.2	45.1	0.1	3.9
	남자	6.1	28.1	5.7	1.0	7.1	0.2	0.1	2.2	45.8	0.2	3.6
	여자	4.8	31.0	6.2	1.0	8.1	0.2	0.1	0.2	44.2	0.0	4.2
2010	농어촌	13.9	29.3	9.1	1.8	0.8	0.3	0.2	2.1	37.1	0.7	4.8
	남자	14.2	28.6	8.8	1.7	0.7	0.3	0.1	3.4	37.0	0.8	4.3
	여자	13.5	30.1	9.6	1.8	0.9	0.3	0.2	0.5	37.2	0.5	5.4
	도시	6.2	26.8	6.7	0.9	6.2	0.1	0.2	1.7	43.2	0.3	7.6
	남자	6.6	25.7	6.4	0.9	5.9	0.1	0.2	3.0	43.9	0.4	6.9
	여자	5.8	28.1	7.1	0.9	6.4	0.1	0.2	0.3	42.6	0.1	8.4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317 > 결손가정 아동 비율

▶ 농어촌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로 도시(7.5%)와 비슷한 수준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12세 이하 아동 대비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이었으며, 한부모 가정 아동은 5.7%, 조손 가정 아동은 2.0%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 비율이 도시에서 더 높은 반면, 조손 가정 아동 비율은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표2317 | 결손가정 아동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결손가정(한부모, 조손) 아동 비율		
			한부모	조손
2005	농어촌	6.7	4.8	1.9
	도시	6.7	6.2	0.5
2010	농어촌	7.7	5.7	2.0
	도시	7.5	6.7	0.8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12세 이하 인구 대상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5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25.34%, 23.6%, 28.9%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표2318 - (1)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09	농어촌	32.9	45.3	19.2	2.6	19.1	65.2	14.1	1.6	60.2	19.4	18.3	2.1
	대도시	36.3	44.8	16.9	2.0	29.4	59.5	10.0	1.1	72.9	13.4	12.1	1.6
	중소도시	35.2	44.7	17.7	2.4	24.9	62.3	11.5	1.3	69.2	14.9	13.9	2.0
2010	농어촌	40.7	37.0	21.0	1.3	22.8	51.6	24.3	1.2	58.9	20.8	18.2	2.1
	대도시	42.3	36.4	20.0	1.3	28.6	48.8	21.4	1.2	68.5	15.9	13.5	2.1
	중소도시	43.6	35.7	19.5	1.2	25.9	50.1	22.8	1.2	66.4	16.8	14.7	2.1
2011	농어촌	37.6	44.3	17.5	0.6	18.5	59.9	20.7	0.9	65.1	21.3	13.0	0.6
	대도시	42.7	40.8	15.8	0.7	23.7	57.5	17.7	1.1	74.1	15.4	9.7	0.7
	중소도시	40.1	42.6	16.6	0.6	20.3	59.2	19.5	1.0	70.6	17.4	11.3	0.8
2012	농어촌	49.1	33.9	16.5	0.5	34.0	43.3	21.9	0.9	66.8	21.6	10.9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1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2.9	16.5	9.7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평가에서 제외됨

| 표2318 - (2)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09	농어촌	13.4	50.3	31.1	5.2	14.1	33.1	39.8	13.0	16.0	47.6	60.1	6.2
	대도시	17.7	51.9	25.8	4.6	23.1	35.2	31.3	10.4	28.9	44.2	22.2	4.7
	중소도시	17.8	52.0	25.7	4.5	22.0	35.0	32.4	10.6	26.4	45.3	23.4	4.9
2010	농어촌	19.2	50.8	26.7	3.2	14.5	37.9	41.0	6.6	15.8	44.6	34.7	4.9
	대도시	24.3	49.8	22.8	3.1	23.6	37.9	32.8	5.8	28.7	41.7	25.9	3.7
	중소도시	23.2	49.8	23.7	3.3	21.8	37.5	34.5	6.2	24.9	42.6	28.6	3.9
2011	농어촌	26.3	52.5	19.7	1.5	12.8	44.0	38.6	4.6	21.3	42.5	34.7	1.5
	대도시	32.2	49.9	16.5	1.4	23.1	43.8	29.3	3.8	35.9	37.3	25.5	1.2
	중소도시	31.4	50.0	17.2	1.4	20.6	44.1	31.3	4.0	31.9	38.4	28.4	1.4
2012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2013	농어촌	24.9	59.7	14.5	1.1	6.8	52.4	35.5	5.3	17.1	53.2	26.4	3.3
	대도시	32.5	54.7	11.6	1.2	15.7	53.8	25.9	4.6	32.5	45.0	19.5	3.1
	중소도시	29.3	56.5	13.0	1.3	12.4	53.4	28.8	5.5	27.4	46.7	22.3	3.6
2014	농어촌	20.4	65.2	12.6	1.9	6.8	51.2	35.5	6.5	18.0	51.0	27.5	3.4
	대도시	29.0	58.8	10.0	2.1	15.5	54.6	24.7	5.2	35.2	42.5	19.1	3.2
	중소도시	26.0	61.3	10.8	2.0	12.2	54.2	27.7	6.0	29.5	45.4	21.7	3.5
2015	농어촌	23.9	55.3	18.1	2.8	10.2	46.5	37.8	5.5	14.8	46.8	34.7	3.8
	대도시	33.0	50.8	13.6	2.7	23.3	46.9	25.6	4.2	31.2	42.9	22.8	3.2
	중소도시	29.6	52.9	15.0	2.5	17.2	48.2	29.9	4.7	25.2	44.5	26.8	3.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2318 -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0	농어촌	23.8	43.5	28.3	4.4	16.5	45.6	31.2	6.7	17.8	32.5	44.6	5.1
	대도시	34.0	42.5	19.4	4.1	27.5	47.7	20.7	4.0	30.0	36.8	29.6	3.6
	중소도시	32.5	43.9	20.0	3.7	24.6	49.7	21.7	4.0	27.2	37.6	31.8	3.4
2011	농어촌	25.2	55.0	17.7	2.1	15.8	59.3	19.5	5.4	21.6	55.2	18.4	4.7
	대도시	34.6	51.3	12.1	2.0	25.8	56.3	13.8	4.2	35.8	49.0	11.9	3.3
	중소도시	33.1	52.4	12.6	1.9	21.6	59.3	14.8	4.3	31.8	51.4	13.1	3.7
2012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2013	농어촌	27.1	54.5	15.9	2.5	17.5	66.4	11.5	4.6	25.5	56.8	14.7	3.0
	대도시	33.2	51.3	12.7	2.8	25.1	61.4	9.3	4.2	36.7	49.9	10.9	2.5
	중소도시	29.9	53.6	13.7	2.7	20.0	64.4	10.8	4.8	31.5	52.9	12.8	2.8
2014	농어촌	29.8	55.6	13.5	1.1	17.5	65.8	10.8	5.9	24.9	57.6	11.5	6.1
	대도시	35.9	51.2	11.4	1.5	25.7	60.0	9.3	4.9	36.9	49.2	8.3	5.6
	중소도시	32.5	53.7	12.6	1.2	19.2	64.3	10.8	5.7	30.6	53.2	10.0	6.2
2015	농어촌	25.34	53.56	18.64	2.46	23.6	54.8	15.9	5.7	28.9	52.2	14.2	4.7
	대도시	30.47	51.71	14.90	2.91	32.4	49.7	12.7	5.3	40.9	44.8	10.2	4.2
	중소도시	27.06	53.81	16.79	2.34	26.0	53.0	15.3	5.7	34.4	48.6	12.4	4.6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06년 : 고등학교 1학년

2319 >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거의 100% 수준

2015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7%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2319 |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단위 : %)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2014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7
2015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8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0 >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6%, 고등학교 2.1%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각 0.3%, 0.6%로 도시 0.6%, 0.9%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2.1%로 도시 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2320 | 학업중단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2014	농어촌	460,649	1,446	0.3	255,014	1,531	0.6	265,550	5,664	2.1
	도시	2,267,860	14,462	0.6	1,462,897	12,747	0.9	1,573,822	24,718	1.6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1 >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2.9%로 도시(69.7%)에 비해 약간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4,850명이며, 이 중 72.9%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진학률이 감소하였으며, 도시(69.7%)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약간 높았다.

표2321 | 대학(교) 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대학	국내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850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347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농어촌의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은 각 43.3%, 8.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특수교육자(장애인)의 진학률은 43.3%로 도시(4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특수교육자의 취업률은 8.2%로 도시(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단위 : %)

연도	구분	진학률			취업률		
			남	여		남	여
2008	농어촌	55.9	58.3	51.9	12.1	12.6	11.3
	도시	46.5	46.9	45.7	20.5	20.0	21.6
2009	농어촌	57.0	54.3	62.2	13.3	12.8	14.3
	도시	49.6	48.3	52.0	20.2	20.9	18.7
2010	농어촌	58.3	57.3	60.4	9.9	11.3	7.2
	도시	45.4	45.0	46.3	17.8	18.8	15.7
2011	농어촌	33.3	33.6	32.8	8.7	9.9	6.1
	도시	29.2	27.5	32.3	15.9	16.0	15.9
2012	농어촌	28.8	29.1	28.5	10.2	9.1	12.0
	도시	29.6	28.6	31.7	17.0	16.5	18.0
2013	농어촌	43.3	45.0	40.0	8.2	8.1	8.3
	도시	43.6	44.6	41.6	14.6	15.1	13.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대학(교)진학률을 의미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0만원

2015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0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57.7%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71.0%), 중소도시(70.0%)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2323 - (1)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표2323 - (2)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2013	농어촌	14.7	16.5	16.5	10.3	12.3	57.5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71.4
	중소도시	23.8	24.1	27.1	20.3	23.5	70.2
2014	농어촌	15.6	16.7	17.8	11.7	14.0	59.2
	대도시	27.3	25.3	29.6	28.2	33.1	70.5
	중소도시	24.1	23.6	27.7	21.5	24.9	70.1
2015	농어촌	16.0	16.8	19.8	12.1	14.8	57.7
	대도시	27.5	25.1	29.9	28.9	34.0	71.0
	중소도시	24.0	23.0	27.5	22.3	25.6	70.0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61.1%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61.1%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30.6%, '부담스럽지 않다'는 8.3%이었다. 농어촌에서 도시(65.9%)에 비해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부담스럽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324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2014	농어촌	62.0	24.3	37.7	26.8	11.2	9.6	1.6
	도시	70.4	27.4	43.0	22.5	7.0	5.6	1.4
2016	농어촌	61.1	25.6	35.5	30.6	8.3	7.0	1.3
	도시	65.9	28.1	37.8	27.6	6.4	5.3	1.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2325> 도서관 현황

▶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로 도시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농어촌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도시 8.0명에 비해 적었다.

표2325 도서관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도서관 수	종사자	도서관 당 종사자 수
2007	농어촌	142	920	6.5
	도시	583	8217	14.1
2013	농어촌	177	1,006	5.7
	도시	1,287	10,275	8.0

자료 :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주 : 1) 도서관에 기록보존소 포함

2)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326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5%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5%로, 대도시(32.7%) 및 중소도시(38.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326 - (1)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2014	농어촌	37.3	1.9	36.2	28.0
	대도시	34.9	3.2	33.4	23.0
	중소도시	38.9	3.5	37.2	27.4
2015	농어촌	35.2	2.8	33.7	25.7
	대도시	41.9	4.4	40.0	27.3
	중소도시	41.1	2.8	40.2	29.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표2326 - (2)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16	농어촌	37.5	2.9	36.1	21.6
	대도시	32.7	2.6	31.4	13.5
	중소도시	38.6	2.9	36.7	20.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2400> 문화여가 부문

- 2401> 주요 여가활동
-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1 >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45.2%)'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19.2%), '사회 및 기타활동'(8.3%)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여가 활동 중 'TV 및 DVD 시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비율이 낮으나 'TV 및 DVD 시청', '휴식'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2401 - (1)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401 - (2)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45.2	3.8	0.7	1.0	5.4	4.2	5.2	5.7	19.2	8.3	1.3
	도시	42.0	5.4	0.9	1.2	7.7	4.9	6.8	6.7	16.2	6.8	1.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횟수는 평균 7.2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평균 관람 횟수는 7.2회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표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농어촌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도시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516개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516개소로, ‘복지회관’(112개소) 등 지역 문화·복지 시설(196개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03 - (1)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 표2403 - (2)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1	농어촌	609	105	80	7	18	56	50	6
	도시	2,353	1,097	411	337	349	363	117	246
2012	농어촌	548	99	79	6	14	59	52	7
	도시	2,334	1,120	412	366	342	366	126	240
2013	농어촌	516	94	79	6	9	55	43	12
	도시	2,412	1,142	401	412	329	369	145	224
2014	농어촌	516	104	84	7	13	71	48	23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2011	농어촌	299	55	182	62	149	79	11	59
	도시	658	104	368	186	235	147	15	73
2012	농어촌	238	48	143	47	152	79	10	63
	도시	614	89	337	188	234	144	17	73
2013	농어촌	236	38	140	58	131	77	4	50
	도시	667	73	383	211	234	143	15	76
2014	농어촌	196	38	112	46	145	77	9	59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2014년 기준, 일부 도시 지역의 조사문화 개편으로 인해 동등 비교 불가, 2014년부터 농어촌 결과만 제시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농어촌의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1.1%

2014년 기준, 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률도 각 0.6%, 0.5%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2	농어촌	1.2	98.8
	대도시	1.6	98.4
	중소도시	1.7	98.3
2014	농어촌	1.1	98.9
	대도시	0.6	99.4
	중소도시	0.5	99.5

자료 : 각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6.9%,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율은 4.8%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대중음악교육(4.4%), '영화교육'(3.6%)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2.0%로 대도시(7.1%), 중소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역사문화유산'(6.3%)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1.8%로 대도시(0.5%), 중소도시(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405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2405 -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500>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부문

-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2504> 주택(규모, 시설)만족도
- 2505> 상수도 보급률
- 2506> 하수도 보급률
- 2507> 도로 포장률
-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2512> 환경오염 체감 정도

250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은 '15~30년 미만' 비율이 34.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을 보면 '15~30년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년 이상'(29.3%), '5~15년 미만'(23.6%), '5년 미만'(12.5%) 순이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이 도시(12.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5~30년 미만' 주택 비율은 도시(45.5%)가 농어촌 보다 높았다.

| 표2501 - (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1 - (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19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1 - (3) |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단위: %)

연도	구분	계	5년 미만	5~15년 미만	15~30년 미만	30년 이상
2015	농어촌	100.0	12.5	23.6	34.6	29.3
	도시	100.0	12.7	29.1	45.5	12.6

자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502 >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자가'(71.9%)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57.5%), '아파트'(33.3%) 순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57.5%)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3.3%), '다세대주택'(4.8%), '연립주택'(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67.4%), '단독주택'(14.9%), '다세대주택'(13.5%)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1.9%)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3.2%), '보증금 있는 월세'(22.4%), '전세'(17.5%) 순이었다.

| 표2502 - (1) | 주거형태

(단위: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2015	농어촌	57.5	33.3	2.7	4.8	1.6
	도시	14.9	67.4	3.0	13.5	1.2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2 - (2) | 점유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2015	농어촌	71.9	7.0	11.2	2.3	1.3	6.3
	도시	53.2	17.5	22.4	2.6	0.7	3.5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3 >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율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7.4%, '기름보일러'(38.7%), '도시가스보일러'(32.2%) 비율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름보일러'(38.7%), '도시가스보일러'(32.2%)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보일러'(71.9%)가 가장 많았다.

| 표2503 - (1) | 주거시설 (단위 :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3 - (2) | 난방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	0.0	0.0	0.2
2015	농어촌	0.4	2.2	97.4	32.2	38.7	6.7	12.0	2.9	3.5	0.3	0.5	0.6
	도시	3.3	15.1	81.6	71.9	5.9	1.7	1.5	0.3	0.1	0.0	0.0	0.1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 농어촌의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는 52.2%

2011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농어촌에서 52.2%로 ‘불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52.3%)을 나타냈다.

| 표2504 |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2006	농어촌	50.9	12.9	38.0	37.9	11.3	9.4	1.9
	도시	31.5	5.7	25.8	51.5	17.0	13.2	3.8
2011	농어촌	52.2	9.1	43.0	34.2	12.5	10.8	1.7
	도시	52.3	11.3	41.0	36.8	9.7	9.2	0.6

자료 : 각 연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2505>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1.0%로 도시(99.6%)에 비해 낮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1.0%로 도시(99.6%)에 비해 낮았다.

| 표2505 | 상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2.1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2013	농어촌	9,767,113	7,729,999	79.1
	도시	42,464,861	42,263,478	99.5
2014	농어촌	9,896,788	8,013,740	81.0
	도시	42,622,977	42,440,516	99.6

자료: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6>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1.9%로 특광역시(98.5%), 중소도시(89.9%)에 비해 낮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1.9%로 특·광역시(98.5%), 중소도시(89.9%)에 비해 낮았다.

표2506 | 하수도 보급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2013	농어촌	3,977,331	2,343,502	58.9
	특광역시	24,350,968	23,971,351	98.4
	중소도시	23,799,087	21,357,422	89.7
2014	농어촌	3,829,802	2,372,562	61.9
	특광역시	24,416,789	24,057,521	98.5
	중소도시	24,172,856	21,721,114	89.9

자료 :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7 >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84.8%

2015년 기준,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84.8%이었으며, ‘고속도로’(100.0%), ‘특·광·시·도’(100.0%), ‘구도’(99.6%), ‘일반국도’(98.0%)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도’(84.6%), ‘시도’(78.8%), ‘군도’(68.2%) 순이었다.

| 표2507 - (1) | 도로 포장률

(단위 : 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2012	총계	105,703	88,183	83.4	8,765	8,755
	고속도로	4,044	4,044	100.0	-	-
	일반국도	13,766	13,432	97.6	57	277
	특·광·시·도	19,464	19,298	99.1	117	49
	지방도	18,162	15,230	83.9	1,591	1,341
	시도	27,670	21,094	76.2	1,406	5,170
	군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2013	총계	106,414	87,799	82.5	8,620	9,995
	고속도로	4,112	4,112	100.0	-	-
	일반국도	13,843	13,527	97.7	57	259
	특·광·시·도	4,879	4,821	98.8	20	38
	지방도	18,083	15,243	84.3	1,529	1,311
	시도	28,047	20,352	72.6	1,184	6,511
	군도	22,374	14,741	65.9	5,757	1,876
	구도	15,076	15,003	99.5	73	-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 표2507 - (2) | 도로 포장률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14	총계	105,673	89,701	84.9	8,218	7,754
	고속도로	4,139	4,139	100.0	-	-
	일반국도	13,950	13,651	97.9	57	242
	특광시도	4,758	4,758	100.0	-	-
	지방도	18,058	15,251	84.5	1,504	1,303
	시도	27,170	21,650	79.7	1,066	4,454
	군도	22,202	14,921	67.2	5,526	1,755
	구도	15,396	15,331	99.6	65	-
2015	총계	107,527	91,195	84.8	7,830	8,502
	고속도로	4,193	4,193	100.0	-	-
	일반국도	13,948	13,670	98.0	57	221
	특광시도	4,727	4,727	100.0	-	-
	지방도	18,087	15,305	84.6	1,473	1,309
	시도	28,348	22,337	78.8	913	5,098
	군도	22,637	15,438	68.2	5,326	1,873
	구도	15,587	15,525	99.6	61	1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2.8%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42.8%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45.4%)와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표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2014	농어촌	39.0	7.4	31.6	45.7	15.3	12.7	2.6
	도시	39.1	6.7	32.4	48.4	12.6	10.6	2.0
2016	농어촌	42.8	9.1	33.7	35.6	21.5	16.8	4.7
	도시	45.4	9.3	36.1	37.4	17.2	14.2	3.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8.0%로 도시(79.4%)에 비해 낮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8.0%이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7.2%이었다. 도시(보유율 79.4%, 접속가능률 99.2%)에 비해 보유율 및 접속 가능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가능	인터넷 접속 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2014	농어촌	68.1	100.0	97.0	3.0	31.9
	도시	80.8	100.0	98.9	1.1	19.2
2015	농어촌	68.0	100.0	97.2	2.8	32.0
	도시	79.4	100.0	99.2	0.8	20.6

자료 :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커뮤니케이션'(86.8%) 비율이 가장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커뮤니케이션'이 8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 및 정보 획득'(85.9%), '여가활동'(82.8%)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510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페 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 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2014	농어촌	88.0	78.7	84.8	50.7	-	16.9	31.8	-	16.9	9.1	9.1	-
	도시	91.7	79.9	90.8	60.2	-	13.4	30.9	-	13.4	10.3	8.5	-

연도	구분	커뮤니 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홈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직업· 직장	기타
2015	농어촌	86.8	85.9	82.8	41.1	32.8	13.1	46.6
	도시	92.4	90.1	86.8	44.6	34.4	14.6	56.5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2014년 '거래활동' 인터넷구매 및 판매,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분

251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27.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66.1%), '신종 전염병'(61.5%), '교통사고'(50.9%)에서 크게 나타남

2016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27.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66.1%), '신종 전염병'(61.5%), '교통사고'(50.9%)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 더 높았다.

| 표2511 - (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2014	농어촌	13.7	36.4	49.9	7.5	36.3	56.1
	도시	11.7	36.8	51.6	7.3	36.6	56.2
2016	농어촌	19.8	46.0	34.1	9.9	39.2	50.9
	도시	20.9	45.4	33.7	10.4	39.4	50.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2014	농어촌	15.8	33.3	51.0	9.6	27.7	62.6
	도시	14.8	33.4	51.8	8.7	26.3	65.0
2016	농어촌	19.0	34.3	46.8	8.9	25.0	66.1
	도시	20.0	34.9	45.1	9.3	23.4	67.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2014	농어촌	27.8	46.6	25.6	9.0	35.5	55.4
	도시	24.5	47.1	28.4	9.4	35.5	55.0
2016	농어촌	27.7	47.3	25.0	9.2	29.3	61.5
	도시	29.6	46.1	24.2	9.4	28.5	62.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2014	농어촌	8.4	34.3	57.2	15.4	38.7	45.9
	도시	7.2	28.8	64.0	15.0	41.1	43.9
2016	농어촌	11.6	38.4	49.9	18.5	41.4	40.2
	도시	12.0	35.6	52.4	21.3	43.8	35.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2014	농어촌	15.5	50.0	34.4	10.6	41.8	47.6
	도시	13.9	51.6	34.5	9.3	39.1	51.6
2016	농어촌	17.6	50.1	32.3	12.5	41.9	45.6
	도시	19.4	52.1	28.4	13.3	41.1	45.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1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농어촌의 환경오염 체감정도는 좋아졌다고 느끼는 인식이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오염’(54.0%)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도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 표2512 - (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2014	농어촌	11.2	1.5	9.7	74.7	14.2	12.1	2.1
	도시	13.0	3.6	9.4	76.9	10.1	9.3	0.8
2016	농어촌	54.0	21.8	32.2	29.9	16.2	12.9	3.3
	도시	27.0	5.9	21.1	42.6	30.5	23.2	7.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 - (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2014	농어촌	12.9	3.4	9.5	76.8	10.3	9.6	0.7
	도시	10.9	1.5	9.4	80.9	8.2	7.1	1.1
2016	농어촌	51.5	18.5	33.0	36.9	11.6	9.8	1.8
	도시	29.3	5.7	23.6	54.3	16.4	13.9	2.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 - (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2014	농어촌	11.4	3.2	8.2	75.7	13.0	12.0	1.0
	도시	10.3	1.4	8.9	78.3	11.3	9.8	1.5
2016	농어촌	45.4	15.3	30.1	39.9	14.7	12.5	2.2
	도시	26.1	5.0	21.1	52.8	21.2	17.7	3.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2014	농어촌	10.1	2.8	7.3	72.6	17.3	14.6	2.7
	도시	8.4	1.2	7.2	71.2	20.4	16.8	3.6
2016	농어촌	45.3	17.5	27.8	34.3	20.4	15.8	4.6
	도시	23.8	4.9	18.9	40.8	35.4	27.2	8.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2014	농어촌	55.2	22.7	32.5	34.7	10.1	7.9	2.2
	도시	38.3	9.8	28.5	43.2	18.5	14.4	4.1
2016	농어촌	48.6	18.9	29.7	36.8	14.6	11.2	3.4
	도시	39.8	10.4	29.4	42.0	18.2	14.3	3.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0 1 6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2600> 지역역량 부문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이었으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단체’(18.1%),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11.9%), ‘지역사회모임’(7.1%) 순이었다.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2015	농어촌	47.9	55.7	18.1	11.9	5.0	1.3	0.7	0.2	7.1	0.1	52.1
	도시	49.1	55.7	18.4	16.1	4.7	2.1	1.0	0.2	1.7	0.0	50.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6.0%

2015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6.0%로 2005년,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2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단위 : 마을, 행정리, %)

구분		총 마을 수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	비율
2005	농어촌	36,041	1,953	5.4
2010	농어촌	36,498	2,613	7.2
2015	농어촌	36,792	2,209	6.0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2 0 1 6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2700> 경제활동 부문

-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 2702> 부채 규모
- 2703> 소득 만족도
-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2705> 노후준비
-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215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0,613천원

2015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215천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43,895천원으로 2014년 대비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57,800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았다.

농가의 호당 연평균 가계지출은 30,613천원이었으며, 어가는 29,573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약간 적은 반면, 도시 근로자는 43,951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았다.

| 표2701 - (1)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2014	농가	34,950	30,555
	어가	41,015	28,237
	도시근로자	56,815	43,822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표2701 - (2)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15	농가	37,215	30,613
	어가	43,895	29,573
	도시근로자	57,800	43,951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702>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215천원, 어가는 41,645천원

2015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215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1,917천원, 가계용 부채는 7,754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41,645천원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어업용 부채는 21,143천원, 가계용 부채는 10,386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2702 | 부채 규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2014	농가	-	27,878	-	11,778	-	7,539
	어가	-	41,404	-	21,413	-	10,092
2015	농가	-	27,215	-	11,917	-	7,754
	어가	-	41,645	-	21,143	-	10,386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2703>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0.6%

2015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4.5%로 '만족'(10.6%)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1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2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2015	농어촌	81.1	10.6	1.3	9.3	45.4	44.5	33.8	10.7	18.9
	도시	77.9	11.5	1.6	9.9	41.6	46.8	33.8	13.0	22.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2.5%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6.4%)이 '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만족' 비율(14.1%)이 낮게 나타났다.

| 표2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2015	농어촌	12.5	1.6	10.9	51.1	36.4	28.6	7.8
	도시	14.1	2.0	12.1	47.4	38.4	28.6	9.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5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이었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1.0%)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5.1%로 '준비능력이 없음'(51.3%), '앞으로 준비할 계획'(23.8%)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2705 - (1) |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2015	농어촌	64.9	49.6	8.3	9.3	4.4	21.0	6.6	0.7
	도시	74.3	56.1	8.6	8.9	3.8	17.1	4.9	0.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 표2705 - (2) |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2015	농어촌	35.1	7.1	23.8	51.3	17.9
	도시	25.7	10.9	26.2	49.5	13.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8.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7.0%), '5~10년'(6.2%), '15~20년'(4.5%), '5년 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8.1%), '15~20년'(6.8%), '5~10년'(5.6%), '5년 미만'(3.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2015	농가	4.9	8.0	9.0	5.2	72.9
	농어촌	3.9	6.2	7.0	4.5	78.5
	도시	8.7	14.6	16.5	7.7	52.5
	어가	3.7	5.8	8.4	6.9	75.2
	농어촌	3.4	5.6	8.1	6.8	76.1
	도시	5.0	6.8	9.4	7.5	71.3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도시(64.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단위 : %)

연도	구분	자동차 보유율				자동차 미보유율
			1대	2대	3대 이상	
2005	농어촌	55.9	75.7	20.7	3.6	44.1
	도시	62.9	81.4	16.8	1.8	37.2
2010	농어촌	61.2	69.9	25.8	4.3	38.8
	도시	64.1	77.0	20.9	2.2	35.9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록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전국표본리스트

주요 항목별 타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01 전국 표본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
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
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
1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2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
1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5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1
1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
1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
1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
1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2
2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
2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1
22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2리	1
2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
2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
2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1
26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1
2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
28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1
29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
3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
31	경기도	이천시	율면	본죽리	1

*, **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교리, 홍문리 동승격으로 가남읍 태평리, 신해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2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북두리	1
3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2
3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
3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7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2
3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2
3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
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
4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
4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
4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1
4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
4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1
4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
5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
5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1
5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
53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2리	1
54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
5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1
5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
5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
58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
5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
6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
6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
6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
6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6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6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6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수동리*	1
6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1
7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1
7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
7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
7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
7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1
77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2
78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
79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
80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2
8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2
8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
8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
8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1
85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
86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
87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부강리**	1
88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
8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1
9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
9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
92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1
9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2
9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
9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
9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
97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1
98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
9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2
100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2

* 방곡리 : 강촌테마랜드 인근지역으로 유원지화 되어 수동리로 대체

** 등곡리 : 한센병자 집단 거주지역으로 부강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0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2
1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2
10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
10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
10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2
10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2
107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	1
108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만수리*	1
109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가마리	1
110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	1
111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마산리	1
112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은곡리	1
113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창리	1
114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각리	1
115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오산리	2
116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가락리	2
1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
1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춘리	1
119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1
120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1
12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
12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
12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
124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
12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
1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1
127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
128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1
129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오곡리	1
13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
131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
132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
133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아현리	1
134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1
135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
136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2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만수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37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2
138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2
13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	2
14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
141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2
142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2
14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1
14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
145	충청남도	예산군	삼고읍	방아리	1
146	충청남도	예산군	삼고읍	상하리	1
1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
14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
14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전곡리	1
15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상동리	1
15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
1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
15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5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천흥리*	1
15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1
15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1
15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1
15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
16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
161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
16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1
16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
16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
165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1
16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1
16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
1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
16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
17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

* 외국인 노동자 다수 거주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7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
17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
173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1
17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
1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2
17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
177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1
178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
179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상리	1
18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현문리	1
18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1
18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
18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
18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
187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1
188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
189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
190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
19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
19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
19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2
19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2
19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
196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
197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
19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
199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
20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
20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2
202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2
20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강사1리	1
20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	1
20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택전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0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유강리	2
20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송동리	2
2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제내리	2
20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1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문성리	1
21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현내리	1
2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마산리	1
21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학천리	1
215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우각리	2
216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상읍리	2
2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
2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
22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
22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1
227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1
228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
229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
23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
2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
2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
23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
23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
23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
23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
237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
238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1
23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24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4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1
24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
243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
24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
245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
246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
247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
24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
249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2
250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2
25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25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1
25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1
26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
261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2
262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2
26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1
264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연화리***	1
265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1
26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
26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1
26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
26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
27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
27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
272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
27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1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율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4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율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 저림리 : 학림도라는 섬 안에 있는 지역으로 연화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7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1
27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
27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
277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1
278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1
279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1
280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1
281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
282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
28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
284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1
28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
28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
287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1
288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1
28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1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2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3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2
294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2
295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2
296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
297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1
298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
299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1
3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1
301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	2
302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2
303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2
304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
305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2
306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
30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1
30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09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고리	1
310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1
311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2
3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2
313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2
314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송천리	2
315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2
316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2
317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
318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1
319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1
320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1
321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
322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1
323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
324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
32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7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2
328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2
329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2
330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2
33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2
33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
33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
33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
335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2
33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
33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2
34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
341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2
34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
343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도안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44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운림리	1
34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
34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
347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1
348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1
349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2
350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2
35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1
35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1
3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2
356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2
35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
35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
359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흥리	1
360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
36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
36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
36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2
36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
365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1
366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
367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1
368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
36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
37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
37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
374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
37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3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
3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
37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
3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
3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
3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
3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
3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
3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
3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
3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
3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
3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
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
3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
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
3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
3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
3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
3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
3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
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
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

02 주요 항목별 타 자료 비교

[생활 전반 부문]

문항	항목		2015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일반사항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1.4	11.5	0.1	※'14장애인 실태조사(전국) (15.6%)
장애 가구원 유형	가구주(%)		58.0	55.1	-2.9	
	가구주의 배우자(%)		18.2	19.1	0.9	
	가구주의 자녀(%)		11.3	9.9	-1.4	
	자녀의 배우자(%)		1.9	0.1	-1.8	
	손자녀/그 배우자(%)		1.3	0.2	-1.1	
	부모(%)		7.5	12.9	5.4	
	기타친인척(%)		1.8	2.7	0.9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 종류	지체장애(%)	52.1	62.6	10.5	※'08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지체장애(38.1%) -뇌병변장애(11.4%) -시각장애(13.0%) -청각장애(9.2%) -정신지체(5.6%) -정신장애(4.7%) -신장장애(3.6%) -호흡기장애(1.2%)
		뇌병변장애(%)	8.7	6.7	-2.0	
		시각장애(%)	9.5	7.7	-1.8	
		청각장애(%)	7.4	9.8	2.4	
		정신지체(%)	6.7	4.8	-1.9	
		정신장애(%)	1.0	2.2	1.2	
		신장장애(%)	4.9	2.2	-2.7	
		호흡기장애(%)	0.4	1.2	0.8	
	중복장애 여부	비해당(%)	89.4	94.5	5.1	
		중복(%)	10.6	5.5	-5.1	
	장애 등급	1급(%)	9.5	9.0	-0.5	※'08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1급(10.3%) -2급(17.5%) -3급(19.4%) -4급(13.2%) -5급(12.3%) -6급(18.4%)
		2급(%)	20.2	14.7	-5.5	
		3급(%)	23.4	23.6	0.2	
		4급(%)	13.6	18.8	5.2	
		5급(%)	20.2	14.4	-5.8	
		6급(%)	13.0	19.5	6.5	

문항	항목	2015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일반 사항						
결혼이민자 유무	있음(%)	2.6	3.1	0.5		
	가家主(%)	11.8	0.2	-11.6		
	가家主의 배우자(%)	81.0	70.3	-10.7		
결혼이민자 유형	자녀의 배우자(%)	6.4	29.5	23.1		
	중국(%)	43.9	11.9	-32.0	※'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전국) -중국(53.2%)	
	일본(%)	7.5	3.6	-3.9	-일본(4.5%)	
출신국가	베트남(%)	34.4	71.1	36.7	-대만/홍콩(1.5%)	
	태국(%)	3.6	2.8	-0.8	-베트남(20.8%)	
	필리핀(%)	9.0	3.8	-5.2	-필리핀(6.0%)	
	그 외 동남아시아 (3.9%)				-그 외 동남아시아 (3.9%)	
	캄보디아(%)	-	5.8	-	-남부아시아(1.4%)	
	몽골/러시아/ 중앙아시아(3.6%)				-몽골/러시아/ 중앙아시아(3.6%)	
	미주/유럽/대양주 (4.1%)				-미주/유럽/대양주 (4.1%)	
	기타(1.0%)				-기타(1.0%)	
> 주택여건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종류	단독주택(%)	59.5	54.8	-4.7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단독주택(37.21%)
		아파트(%)	32.2	32.5	0.3	-아파트(43.49%)
		연립주택(%)	3.4	3.0	-0.4	-연립주택(3.24%)
		다세대주택(%)	2.7	5.1	2.4	-다세대주택(10.85%)
		기타(%)	2.3	4.6	2.3	-기타(4.73%)
	점유형태	자가(%)	78.8	78.2	-0.6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자가(54.75%)
		전세(%)	8.8	10.9	2.1	-전세(15.50%)
		보증부 월세(%)	5.8	4.6	-1.2	-보증부 월세 (18.70%)
		월세(사글세)(%)	3.8	2.2	-1.6	-월세(사글세) (2.29%)
		무상(%)	2.8	4.1	1.3	-기타(8.76%)

문항	항목		2015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주택여건						
주택건축후 경과년수	(년)		22.3	24.8	2.5	
주택 수리 여부	없다(%)		-	73.6	-	
	개축(%)		-	4.3	-	
	증축(%)		-	2.9	-	
	리모델링(%)		-	19.2	-	
>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시기	고향이다(%)		45.3	47.3	2.0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했다(년)	50.5	44.3	-6.2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년)	4.2	8.4	4.2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농어촌 → 농어촌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48.3	49.7	1.4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24.4	19.6	-4.8	
	도시 → 농어촌	중소도시(동)(%)	9.1	12.9	3.8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8.3	17.7	-0.6	
> 이주 의사						
이주의사	이주 의향층(%)		11.3	9.5	-1.8	
이주 희망 이유	직업관련사유(%)		22.0	16.2	-5.8	
	주택관련사유(%)		28.3	38.4	10.1	
	가족관련 사유(%)		2.9	1.9	-1.0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7.1	2.9	-4.2	
	건강상의 이유(%)		1.6	1.9	0.3	
	자녀교육(%)		15.0	27.5	12.5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22.7	10.1	-12.6	
	기타(%)		0.3	1.0	0.7	

문항	항목		2015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이주 의사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 → 농어촌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56.0	61.9	5.9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	12.1	2.8	-8.4	
		다른 시/군의 농어촌(면)(%)		0.9		
	농어촌 → 도시	중소도시(동)(%)	11.1	21.4	5.6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6.5	11.8		
	복지시설 이용(공동생활, 요양 등)(%)		0.2	0.3	0.1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4.1	1.1	-3.0	
> 생활여건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합)(%)		48.3	43.6	-4.7	
행복의 영향 요인	가족(%)		39.4	41.5	2.1	
	대인관계(%)		6.3	3.3	-3.0	
	건강(%)		35.2	33.2	-2.0	
	경제적 안정(%)		13.3	15.7	2.4	
	일/직업(%)		3.6	3.5	-0.1	
	지역생활 환경(%)		1.8	1.2	-0.6	
	문화 및 여가활동(%)		-	1.2	-	
	기타(%)		0.4	0.4	0.0	
농어촌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점)		52.5	51.7	-0.8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종합만족도) (농촌 46.1점)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생활여건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인지층(%)	42.6	31.7	-10.9
		경험층*(%)	36.7	35.9	-0.8
		만족도(점)	60.4	67.5	7.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인지층(%)	38.1	28.1	-10.0
		경험층*(%)	36.2	31.7	-4.5
		만족도(점)	60.8	67.9	7.1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보장제도	인지층(%)	-	26.5	-
		경험층*(%)	-	20.6	-
		만족도(점)	-	63.5	-
	기초연금	인지층(%)	67.2	70.2	3.0
		경험층*(%)	67.3	29.8	-37.5
		만족도(점)	52.2	72.8	20.6

* 인지층 중 경험층 비율임

문항	항목	2015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생활여건					
농어촌의 보건의료 만족도	만족도(점)	-	48.2	-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만족도(점)	-	47.9	-	
복지 여건 향상도	5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	47.3	-
	1년 전 대비	좋아진 편(합)(%)	-	22.0	-

[보건의료 부문]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의료기관 이용실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3.7	1.3	-2.4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보건소 (0.69%) -지역 내 병·의원 (70.11%) -한방 병·의원 (1.65%) -종합, 대학병원 (8.44%) -기타 (0.03%) -비해당 (19.08%)
		보건소(지소)(%)	3.0	3.0	0.0	
		병(의)원(%)	76.4	83.5	7.1	
		한방병(의)원(%)	2.3	1.4	-0.9	
		종합병원(%)	13.9	10.8	-3.1	
	의료기관 이용횟수	월 1회 미만(%)	48.9	43.4	-5.5	
		월 1-2회(%)	33.3	34.6	1.3	
		월 3-4회(%)	9.4	12.6	3.2	
		월 5회 이상(%)	8.4	9.4	1.0	
	의료기관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18.9	15.9	-3.0	
		대중교통(%)	34.7	29.3	-5.4	
		자가용(%)	42.9	53.4	10.5	
		기타(%)	3.5	1.4	-2.1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소요시간(분)	26.6	23.6	-3.0	
		걸어서(분)	13.4	11.0	-2.4	
		대중교통(분)	37.8	32.7	-5.1	
		자가용(분)	22.7	22.5	-0.2	
		기타(분)	36.4	14.8	-21.6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공공 의료시설 이용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총(%)		45.1	45.4	0.3	
	의료시설 이용 사유	응급상황이어서(%)	-	4.3	-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	-	19.4	-	
		건강검진을 위해서(%)	-	11.5	-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	27.4	-	
		물리치료를 위해서(%)	-	4.6	-	
		예방접종(%)	-	29.2	-	
		기타(%)	-	3.6	-	
	만족도(점)		73.4	69.0	-4.4	※'16사회조사 의료서비스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보건소) (농촌 68.5%) (도시 55.1%)
	의료시설 비용 사유	거리가 멀어서	-	19.1	-	
		시설이 낙후되어서	-	5.2	-	
		돈이 없어서	-	1.3	-	
		동행자가 없어서	-	1.6	-	
		전문성이 떨어져서	-	46.4	-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서	-	4.2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9.3	-	
		기타	-	12.8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보건의료 여건 전반					
질병 치료시 어려움	치료비가 부담된다(%)	44.9	32.4	-12.5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9.1	8.8	-0.3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8.4	16.5	8.1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10.4	11.8	1.4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5.6	5.9	0.3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7	24.6	3.9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과목	내과	-	17.4	-	
	소아과	-	9.1	-	
	피부과	-	5.0	-	
	외과	-	3.8	-	
	정형외과	-	9.0	-	
	산부인과	-	4.4	-	
	안과	-	10.1	-	
	이비인후과	-	6.4	-	
	치과	-	4.9	-	
	정신과	-	0.7	-	
	한방	-	2.5	-	
	기타	-	0.5	-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음	-	26.2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점)	-	51.9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점)	-	46.4	-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사회안전망						
국민 건강보험 가입실태	국민 건강보험 가입현황	가입(%)	96.0	80.3	-15.7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가입(93.31%)
		직장가입자(%)	59.3	57.9	-1.4	-직장가입자 (70.05%)
		지역가입자(%)	40.7	42.1	1.4	-지역가입자 (29.95%)
		미가입(%)	4.0	19.7	15.7	-미가입(6.69%)
		의료급여(1종)(%)	43.1	17.9	-25.2	-의료급여(1종) (82.73%)
		의료급여(2종)(%)	32.8	11.8	-21	-의료급여(2종) (16.22%)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됨	-	70.4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1.01%)
	국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부담됨(%)	42.4	54.9	12.5	※'15사회조사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건강보험, 가구주) 부담됨 (농촌 62.5%) (도시 66.1%)
	공적연금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현황	국민연금(%)	62.2	64.5	2.3
공무원연금(%)			3.9	6.2	2.3	-국민연금(92.54%)
사학연금(%)			0.9	0.2	-0.7	-공무원연금(6.24%)
군인연금(%)			0.8	1.2	0.4	-사학연금(0.79%)
미가입(%)			33.7	30.2	-3.5	-군인연금(0.37%)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부담됨(%)	39.3	50.9	11.6	※'15사회조사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가구주) 부담됨 (농촌 64.3%) (도시 63.8%)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사회안전망						
기타보험 가입현황	민간의료보험(%)	46.5	59.7	13.2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민간의료보험 (72.18%)	
	산재보험(%)	17.0	29.4	12.4		
	고용보험(%)	-	30.7	-		
	주택연금(%)	-	2.8	-		
	개인연금(%)	21.6	18.8	-2.8		
	농업인안전보험(%)	14.2	16.6	2.4		
	농기계종합보험(%)	10.7	11.7	1		
	농작물재해보험(%)	8.4	15.2	6.8		
	농지연금(%)	2.6	2.1	-0.5		
> 건강상태 만족도와 안녕감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만족(합)(%)	-	39.4	-		
> 노인복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치매검진/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인지층(%)	35.8	60.8	25.0	※'14한국복지 패널조사(전국) -경험층(1.56%)
		경험층*(%)	15.6	34.8	19.2	
		만족도(점)	68.7	65.8	-2.9	
	안검진 및 개인수술 지원사업	인지층(%)	29.3	32.0	2.7	
		경험층*(%)	10.1	13.8	3.7	
		만족도(점)	67.4	62.7	-4.7	
	의치(틀니) 지원사업	인지층(%)	40.2	63.7	23.5	
		경험층*(%)	11.7	11.0	-0.7	
		만족도(점)	60.2	69.3	9.1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지층(%)	35.7	59.7	24.0	
		경험층*(%)	5.7	5.2	-0.5	
		만족도(점)	72.5	80.4	7.9	

* 인지층 중 경험층 비율임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노인복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지층(%)	35.2	54.6	19.4
		경험층*(%)	8.0	9.2	1.2
		만족도(점)	68.4	68.3	-0.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인지층(%)	29.5	59.2	29.7
		경험층*(%)	7.0	8.1	1.1
		만족도(점)	69.4	68.4	-1.0
	노인 건강진단사업	인지층(%)	-	40.4	-
		경험층*(%)	-	45.7	-
		만족도(점)	-	70.8	-
	가정방문 간호사업	인지층(%)	-	44.3	-
		경험층*(%)	-	9.8	-
		만족도(점)	-	70.7	-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인지층(%)	-	15.9	-
		경험층*(%)	-	17.9	-
		만족도(점)	-	83.0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질병예방서비스(%)	21.0	22.0	1.0	※'11노인실태조사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1순위) -소득보장 (농촌 32.3%) -의료서비스 (농촌 28.3%) -수발서비스 (농촌 21.5%) -여가생활지원서비스 (농촌 6.7%) -경제활동지원 (농촌 6.8%) -노후주거지원 (농촌 3.7%) -기타(농촌 0.6%)
	질병치료서비스(%)	20.1	23.4	3.3	
	가정봉사서비스(%)	9.7	8.2	-1.5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12.5	6.5	-6.0	
	주/야간 보호서비스(%)	0.9	0.8	-0.1	
	교통수단 지원(%)	8.8	7.6	-1.2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4.9	13.6	8.7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4.4	-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0.3	13.5	-6.8	

* 인지층 중 경험층 비율임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장애인 복지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20.8	10.5	-10.3	
	의료재활서비스(%)		16.8	15.3	-1.5	
	가사지원서비스(%)		14.7	7.9	-6.8	
	이동편의지원서비스(%)		18.0	7.4	-10.6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3.5	2.2	-1.3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7.3	6.2	-1.1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6.3	1.1	-5.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6.2	-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	43.1	-	
> 복지 여건 전반						
복지시설 이용실태	복지시설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3.1	5.3	2.2	
		월 1-2회(%)	2.1	2.8	0.7	
		월 3-4회(%)	1.1	3.3	2.2	
		월 5회 이상(%)	1.3	9.6	8.3	
		이용 경험 없음(%)	92.4	79.0	-13.4	
	복지시설 이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걸어서(%)	53.1	64.4	11.3	
		대중교통(%)	27.0	12.0	-15	
		자가용(%)	15.1	20.1	5	
		기타(%)	4.8	3.6	-1.2	
		소요시간(분)	17.4	12.0	-5.4	
	만족도(점)		-	71.2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6	차이	타자료 비교
> 복지 여건 전반					
복지시설 이용실태	복지시설 비용 이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	24.7	-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	12.9	-
		바빠서(%)	-	42.5	-
		돈이 없다(%)	-	2.0	-
		건강문제/거동불편(%)	-	2.2	-
		거리/교통 불편(%)	-	1.1	-
		연령대가 맞지 않아서(%)	-	5.0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4.3	-
		기타(%)	-	5.4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41.4	40.3	-1.1
	농업의 미래 보호(%)		21.2	13.6	-7.6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4.6	4.9	0.3
	농촌 교육(%)		-	3.7	-
	주택의 보급 및 개량(%)		4.9	2.3	-2.6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10.7	8.2	-2.5
	농촌주민 건강 증진(%)		-	9.4	-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5.8	9.5	3.7
	농촌 보건의료 정책(%)		-	7.3	-
	기타(%)		-	0.8	-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⁶⁾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 ~ 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6)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 만족도	합계		3,952	51.7	0.75	1.5
	읍/면 여부	읍	1,636	52.0	1.29	3.1
		면	2,316	51.5	1.00	1.7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2.1	1.08	3.0
		비농어가	2,549	51.6	0.96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0.8	2.30	8.4
		40대	714	50.9	1.11	6.1
		50대	801	51.2	1.07	5.3
		60대	597	52.2	0.94	6.2
		70대 이상	761	54.0	0.70	3.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51.4	2.75	28.9
		이주 비의향층	3,576	51.8	0.68	0.8
체감 만족도	합계		3,952	52.6	1.01	1.9
	읍/면 여부	읍	1,636	53.0	1.47	3.6
		면	2,316	52.3	1.35	2.3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3.5	1.73	4.9
		비농어가	2,549	52.1	1.15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2.0	3.34	12.2
		40대	714	51.1	2.05	11.3
		50대	801	52.3	1.45	7.1
		60대	597	52.7	1.07	7.1
		70대 이상	761	55.1	1.00	5.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53.8	4.12	43.4
		이주 비의향층	3,576	52.5	0.90	0.99
차원 만족도	합계		3,952	50.9	0.68	1.3
	읍/면 여부	읍	1,636	51.0	1.36	3.3
		면	2,316	50.8	0.87	1.5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50.6	0.72	2.0
		비농어가	2,549	51.1	0.95	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9.7	1.73	6.3
		40대	714	50.7	1.06	5.9
		50대	801	50.2	0.89	4.4
		60대	597	51.6	1.00	6.6
		70대 이상	761	52.9	0.67	3.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49.0	2.34	24.6
		이주 비의향층	3,576	51.1	0.66	0.7

농어촌생활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합계		3,952	44.4	0.94	2.1
	읍/면 여부	읍	1,636	46.5	1.74	4.2
		면	2,316	42.9	1.25	2.1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0.0	1.24	3.5
		비농어가	2,549	46.8	1.25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7	2.35	8.6
		40대	714	44.6	1.74	9.6
		50대	801	42.7	1.16	5.7
		60대	597	43.4	1.91	12.6
		70대 이상	761	44.7	0.99	5.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40.7	5.33	56.1
		이주 비의향층	3,576	44.8	0.99	1.1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합계		3,952	41.7	1.03	2.5
	읍/면 여부	읍	1,636	42.2	1.68	4.1
		면	2,316	41.3	1.42	2.4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39.8	1.22	3.4
		비농어가	2,549	42.7	1.38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38.9	2.16	7.9
		40대	714	42.1	1.88	10.4
		50대	801	41.0	1.40	6.9
		60대	597	42.7	1.65	10.9
		70대 이상	761	45.1	1.33	6.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37.4	2.96	31.2
		이주 비의향층	3,576	42.1	1.03	1.1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합계		3,952	47.5	0.93	2.0
	읍/면 여부	읍	1,636	47.9	1.45	3.5
		면	2,316	47.1	1.20	2.0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6.4	1.28	3.6
		비농어가	2,549	48.1	1.23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3	2.13	7.8
		40대	714	48.1	1.62	9.0
		50대	801	46.9	1.74	8.6
		60대	597	49.5	1.88	12.5
		70대 이상	761	48.9	1.15	6.0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46.2	2.60	27.4
		이주 비의향층	3,576	47.6	0.96	1.1

농어촌생활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환경·경관	합계		3,952	62.7	1.31	2.1
	읍/면 여부	읍	1,636	61.2	2.50	6.0
		면	2,316	63.8	1.32	2.3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65.7	1.46	4.1
		비농어가	2,549	61.1	1.94	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9.9	2.75	10.0
		40대	714	64.0	1.90	10.5
		50대	801	62.1	1.76	8.7
		60대	597	62.9	1.65	10.9
		70대 이상	761	66.2	1.25	6.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61.9	3.78	39.8
		이주 비의향층	3,576	62.8	1.34	1.5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합계		3,952	46.5	1.16	2.5
	읍/면 여부	읍	1,636	47.7	1.64	4.0
		면	2,316	45.7	1.44	2.5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7.5	1.33	3.7
		비농어가	2,549	46.0	1.39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7.2	2.98	10.9
		40대	714	45.3	1.73	9.6
		50대	801	46.2	1.22	6.0
		60대	597	47.1	1.34	8.9
		70대 이상	761	46.7	1.06	5.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46.7	2.82	2.7
		이주 비의향층	3,576	46.5	1.10	1.2
자연재해	합계		3,952	66.2	1.21	1.8
	읍/면 여부	읍	1,636	64.0	2.06	5.0
		면	2,316	67.8	1.39	2.4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67.5	1.50	4.2
		비농어가	2,549	65.5	1.45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5.5	2.01	7.4
		40대	714	64.3	1.82	10.1
		50대	801	65.3	1.66	8.2
		60대	597	67.4	1.50	9.9
		70대 이상	761	69.2	1.52	7.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64.7	4.39	46.2
		이주 비의향층	3,576	66.4	1.09	1.2

농어촌생활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합계		3,952	66.8	1.13	1.7
	읍/면 여부	읍	1,636	64.3	2.12	5.1
		면	2,316	68.6	1.46	2.5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69.3	1.45	4.1
		비농어가	2,549	65.5	1.54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65.0	1.80	6.6
		40대	714	64.8	1.89	10.4
		50대	801	66.4	1.53	7.5
		60대	597	67.9	1.65	10.9
		70대 이상	761	71.1	1.77	8.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76	65.5	4.97	52.3
		이주 비의향층	3,576	67.0	1.06	1.2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50	47.9	0.83	1.7
읍/면 여부	읍	1,636	47.8	1.07	2.6
	면	2,314	47.9	1.07	1.8
영농 여부	농어가	1,403	49.6	1.66	4.7
	비농어가	2,547	46.9	0.90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8	2.61	9.5
	40대	714	45.4	1.65	9.1
	50대	799	47.9	1.06	5.2
	60대	597	48.7	1.11	7.3
	70대 이상	761	52.4	1.01	5.2

농어촌 보건의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47	48.2	1.03	2.1
읍/면 여부	읍	1,631	50.5	1.48	3.6
	면	2,316	46.6	1.24	2.1
영농 여부	농어가	1,402	49.9	1.75	4.9
	비농어가	2,545	47.4	1.23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6	47.1	2.70	9.9
	40대	714	44.8	1.86	10.3
	50대	801	48.7	0.97	4.8
	60대	595	50.0	1.07	7.1
	70대 이상	761	51.2	1.14	5.9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52	100		
보건진료소	53	1.3	0.26	20.1
보건소(지소)	120	3.0	0.48	15.9
병(의)원	3,298	83.5	1.50	1.8
한방병(의)원	54	1.4	0.37	26.4
종합병원	426	10.8	1.35	12.5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795	45.4		
읍/면 여부	읍	603	36.9	4.35	11.8
	면	1,193	51.5	4.84	9.4
영농 여부	농어가	765	54.5	4.25	7.8
	비농어가	1,030	40.4	2.95	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45	32.0	8.61	26.9
	40대	243	34.1	3.61	10.6
	50대	341	42.5	5.31	12.5
	60대	357	59.9	4.61	7.7
	70대 이상	509	67.0	2.61	3.9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1,787	69.0	1.50	2.2
읍/면 여부	읍	599	68.9	1.95	5.8
	면	1,188	69.1	2.06	3.1
영농 여부	농어가	761	70.5	2.14	5.0
	비농어가	1,026	67.9	1.57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45	66.5	5.64	29.2
	40대	241	66.3	2.52	18.7
	50대	341	67.8	2.51	13.2
	60대	356	69.3	1.71	8.6
	70대 이상	504	72.7	1.07	3.8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50	100		
가입	3,172	80.3	1.37	1.7
비가입	778	19.7	1.35	6.9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2,870	100		
매우 부담됨	527	18.3	2.34	12.8
부담되는 편	1,050	36.6	2.27	6.2
보통	845	29.4	3.68	12.5
부담되지 않는 편	371	12.9	3.39	26.3
전혀 부담되지 않음	77	2.7	0.57	21.2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구분	n	비율(%)	SE	RSE(%)
국민연금	2,549	64.5	2.32	3.6
공무원연금	243	6.2	1.32	21.4
사학연금	10	0.2	0.08	41.4
군인연금	47	1.2	0.46	38.5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953	100		
매우 부담됨	282	14.4	2.53	17.6
부담되는 편	712	36.4	3.18	8.7
보통	656	33.6	3.49	10.4
부담되지 않는 편	256	13.1	1.73	13.2
전혀 부담되지 않음	47	2.4	0.87	36.1

기타보험 가입현황

구분	n	비율(%)	SE	RSE(%)
민간의료보험	2,358	59.7	2.44	4.1
산재보험	1,162	29.4	2.18	7.4
고용보험	1,212	30.7	2.11	6.9
주택연금	111	2.8	0.74	26.4
개인연금	742	18.8	1.67	8.9
농업인안전보험	233	16.6	3.22	19.4
농기계종합보험	164	11.7	3.19	27.3
농작물재해보험	213	15.2	3.48	22.9
농지연금	29	2.1	0.60	28.8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06	65.8	2.19	3.3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65	62.7	4.60	7.3
의치(틀니) 지원사업	103	69.3	6.03	8.7
노인장기요양보험	45	80.4	3.76	4.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74	68.3	2.50	3.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71	68.4	2.51	3.7
노인건강진단사업	270	70.8	2.99	4.2
가정방문간호사업	64	70.7	2.81	4.0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41	83.0	4.25	5.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460	100		
질병예방서비스	321	22.0	2.82	12.8
질병치료서비스	341	23.4	2.08	8.9
가정봉사서비스	119	8.2	1.38	16.9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95	6.5	0.91	14.1
주/야간 보호서비스	12	0.8	0.24	30.0
교통수단 지원	110	7.6	0.94	12.4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198	13.6	1.77	13.0
노인여가복지서비스	64	4.4	0.92	20.8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198	13.5	1.73	12.8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426	100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45	10.5	3.05	29.0
의료재활서비스	65	15.3	3.78	24.7
가사지원서비스	34	7.9	1.62	20.5
이동편의지원서비스	32	7.4	2.58	34.9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9	2.2	0.84	38.3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26	6.2	1.97	31.8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5	1.1	0.67	60.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6	6.2	2.11	34.0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184	43.1	5.04	11.7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815	71.2	2.42	3.4
읍/면 여부	읍	208	69.6	2.47	9.7
	면	607	71.7	3.25	4.4
영농 여부	농어가	382	69.0	1.82	3.9
	비농어가	433	73.1	3.91	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4	72.9	4.11	35.6
	40대	144	77.7	10.48	59.3
	50대	118	66.6	3.30	22.8
	60대	154	66.7	2.29	12.1
	70대 이상	305	71.6	1.33	3.6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885	100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1,568	40.3	2.66	6.6
농업의 미래 보호	528	13.6	1.82	13.3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189	4.9	0.99	20.2
농촌 교육	144	3.7	1.03	27.8
주택의 보급 및 개량	90	2.3	0.48	20.9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317	8.2	1.66	20.3
농촌주민 건강 증진	364	9.4	1.11	11.8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370	9.5	2.06	21.7
농촌 보건의료 정책	285	7.3	1.00	13.7
기타	30	0.8	0.26	37.1

04 주요 용어 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등을 말한다.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등을 말한다.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을 말한다.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을 말한다.
- **농어업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을 말한다.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을 말한다.
-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본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되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 **단독주택** :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전세** :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보증금의 이자와 매월 내는 월세의 합계액이다.
- **월세(사글세)** :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월세란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 **개축**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 **증축** : 같은 지붕마루 내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거나 같은 대지 내에서 별채를 추가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일정 범위에서 증축**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의 3/100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의미함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농어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보건진료소** : 보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다.
- **보건소(지소)** :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에 1개씩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의료법 제3조)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다.

- **병(의)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한방병(의)원** : 한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종합병원** :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의료급여** :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 **1종** : 외래, 입원 진료시 전액 무료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종** : 외래 진료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한다.
- **국민연금** :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원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지만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된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각각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대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며 가입이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 **민간의료보험** :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손보험도 포함한다.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 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 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 **농업인안전보험(농가)**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용상품으로 농협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실제 가입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15%수준(2012년도 평균기준)이다.
- **농기계종합보험(농가)**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서, 농협을 통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 **농작물재해보험(농가)**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이다.
- **농지연금(농가)**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한다.
-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검진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조기검진(선별, 진담, 감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밀 검진과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인한 수술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 **의치(틀니)지원사업**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건강진단사업** : 65세 이상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가능하고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정방문간호사업** :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방문간호센터(개인, 단체)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간호활동(욕창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 인구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예방치료를 위해 양질의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복지시설 종류** :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된다.
 - **주·야간보호시설**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맡아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을 말한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설치하는 시설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지닌다.
-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사업 주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05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ID	층번호	아파트 여부	기	값	열	자	리	거처	번	호
----	-----	-----------	---	---	---	---	---	----	---	---

2016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 조사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택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인(협의)번호
제 11437 호



농촌진흥청

2016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면접원 이름

조사	방문일자	방문시간	대체	방문일자	방문시간
1회 방문	월 일	:	1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비고	(회수 예정 시간 및 대체사유 등)		비고	(대체 전 원표본 주소)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도로명 주소	()광역시/도 ()시/군/구 ()		
상세주소		연락처	() - () - ()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국 농어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 조사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귀하의 **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기에, 조사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농촌진흥청

조사자 : (서명)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1. 개인 및 가구원 관련 사항

1. 다음은 귀하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 직장 근무, 유학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2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3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4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5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6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7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 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8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총 _____명			가구원(동거)		_____명		농어가 여부		① 농어가(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비동거 가족		_____명					

2. 귀택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 3번

으로 가십시오

2.1.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하되,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함

구분	장애 종류(보기 참고)	중복장애 여부	장애 등급
(1)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2)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3)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보기 - 장애 종류>

- | | | | |
|----------------------|-----------|---------|--------|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 ⑤ 언어장애 | ⑥ 정신지체 | ⑦ 발달장애 | ⑧ 정신장애 |
| ⑨ 심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간질장애 | |
|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 | |

3. [결혼이민자 유무] 귀택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 4번

으로 가십시오

3.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출신국가	구분	출신국가
(1) () 번 가구원		(3) () 번 가구원	
(2) () 번 가구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귀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포함)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II. 생활전반

5. [연간 가구소득] [2015년('15.1.1.~12.31.) 소득을 기준으로] 귀댁의 연간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고, 해당 소득이 없을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금 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1) 농업 소득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2) 어업 소득 (어획, 양식 등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3) 사업 소득 (농업 외 사업장 운영을 통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4) 임금 소득 (상용 또는 임시·일용근로를 통한 총 급여 또는 보수로서 소득세, 기여금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만원
(5) 재산 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만원
(6) 공적이전소득 (연금, 기초연금, 기초생계비 등)					만원
(7) 사적이전소득 (자녀로부터 용돈 등)					만원
(8) 현물지원소득 (노인·장애인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무상급식, 가사간병지원서비스 등)					만원
(9) 기타					만원
합 계					만원

6. [월평균 생활비] [2015년('15.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으로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저축, 저축성보험료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부채/이자 상환 등), 사업용도의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구 분	금 액				
	천	백	십	일	
(1) 식료품비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만원
(2) 보건의료비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청기, 영양제, 보약비 등)					만원
(3)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만원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만원
(5) 교통/통신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유류비,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만원
합 계					만원

7. [월평균 저축] **[2015년('15.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천	백	십	일	만원
---	---	---	---	----

8. [이주 시기 및 이주 직전 주택의 위치]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 응답자가 혼인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남편)를 기준으로 작성

① () 년도에 이주했다

②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 년도에 이주했다 ③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문 9번** 으로 가십시오.

8.1.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동)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9.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10. [주택의 종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11. [주택 수리 여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수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개축

③ 증축

④ 리모델링

⑤ 기타 (무엇:)

↳ **문 12번** 으로 가십시오.



11.1. 몇 년도에 하셨습니다?

() 년도

12.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13. [이주 의사, 계획 및 이주 희망 이유]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없다



↳ **문 14번** 으로 가십시오.

13.1.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 지역 읍
③ 다른 시/군의 농어촌 지역 면 ④ 중소도시(동)
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⑥ 복지시설 이용(공동생활, 요양 등)
⑦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13.2.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 ②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 ③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 ⑤ 건강상의 이유로
- ⑥ 자녀교육 때문에
- ⑦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 ⑧ 기타 (무엇:)

14.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농어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의 여러 영역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4)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5)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6) 자연재해	①	②	③	④	⑤
(7)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16.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illegible]

17. [행복의 영향 요인]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가족 ② 대인관계(친구, 이웃, 지인 등) ③ 건강 ④ 경제적 안정 ⑤ 일/직업 ⑥ 지역 생활 환경 ⑦ 문화 및 여가(취미)활동 ⑧ 기타(무엇:)	

18. [농촌 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귀하께서는 농촌 주민(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② 없음(ㄴ)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③ 모름(ㄴ)						
(2)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② 없음(ㄴ)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③ 모름(ㄴ)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② 없음(ㄴ)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③ 모름(ㄴ)						
(4) 기초연금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② 없음(ㄴ)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③ 모름(ㄴ)						

19. [농어촌 복지 여건 만족도] 귀하께서는 농어촌의 복지 여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귀하께서는 농어촌의 보건의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 [복지 여건 향상도]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진 편이다 ⑤ 매우 나빠졌다

22. [복지 여건 향상도] 과거 1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의 복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진 편이다 ⑤ 매우 나빠졌다

Ⅲ. 보건의료 부문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

23.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건진료소 ② 보건소(지소) ③ 병(의)원 ④ 한방병(의)원
⑤ 종합병원 ⑥ 기타 (무엇:)

23.1. [의료기관 이용 횟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23.2. [의료기관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기용	④ 기타 ()	() 분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이동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24.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4.1. [의료시설 이용 사유] 귀댁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응급상황이어서 ②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 ③ 건강검진을 위해서 ④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⑤ 물리치료를 위해서 ⑥ 기타 (무엇:) 24.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4.3. [의료시설 비이용 사유] 귀댁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거리가 멀어서 ② 시설이 낙후되어서 ③ 돈이 없어서 ④ 동행자가 없어서 ⑤ 전문성이 떨어져서 ⑥ 기타(무엇:)
--	--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25. [응급실 이용 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 26번

으로 가십시오.

25.1.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응급실 이용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교통사고 ② 농작업 안전사고 ③ 농약중독
④ 응급질환발생(맹장염 등) ⑤ 기타(무엇:)

25.2.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응급실 이용시,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분 이내 ② 20분 이내 ③ 30분 이내 ④ 1시간 이내

25.3.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응급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5.4.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응급실 이동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 ① 구급차 ② 개인용 차량 ③ 택시 ④ 걸어서 ⑤ 기타 (무엇:)



↳ **문 26번** 으로 가십시오.

25.5.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급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보건의료 여건 전반

26. [질병 치료시 어려움]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치료비가 부담된다 ②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③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④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⑥ 기타 (무엇:)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7.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에서 평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이 있습니까?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과목을 우선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내과 ② 소아과 ③ 피부과 ④ 외과 ⑤ 정형외과 ⑥ 산부인과 ⑦ 안과 ⑧ 이비인후과 ⑨ 치과 ⑩ 정신과 ⑪ 한방 ⑫ 기타 (무엇:) ⑬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음	

28.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9.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0.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3. [기타보험 가입현황] 이밖에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 분		가입	미가입
전체 농어촌 가구	(1) 민간의료보험	①	②
	(2) 산재보험	①	②
	(3) 고용보험	①	②
	(4) 주택연금	①	②
	(5) 개인연금	①	②
농어가에 한해	(6) 농업인안전보험	①	②
	(7) 농기계종합보험	①	②
	(8) 농작물재해보험	①	②
	(9) 농지연금	①	②

※ 민간의료보험에는 실손보험도 포함된다.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 건강상태 만족도 및 안녕감

3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5.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연령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6. [1년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1년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귀하께서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귀하께서는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동거가족이 없음

39. [건강 인식]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01)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05)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6)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①	②	③	④	⑤
(08)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⑤
(09)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복지

 ‘만 65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4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2)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3) 의치(틀니)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4)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5)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7) 노인건강진단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8) 가정방문간호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9)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ㄷ)	① 있음(ㄷ)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ㄷ)	② 없음(ㄴ)					
	③ 모름(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요양서비스 필요(A, B)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4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질병예방서비스(건강진단, 치매 조기검진 등) | ② 질병치료서비스(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
| ③ 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④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
| ⑤ 주·야간보호서비스 | ⑥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
| ⑦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 ⑧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 ⑨ 기타 (무엇: _____) | ⑩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 장애인 복지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4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 ② 의료재활서비스 |
| ③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 ④ 이동편의지원서비스 |
| 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 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
| ⑦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 ⑧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 ⑨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 ⑩ 기타 (무엇: _____) |

— 복지 여건 전반

43. [복지시설 이용 횟수]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주 이용한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시설 종류에는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된다.

-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⑤ 이용 경험 없음



43.1. [복지시설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2) 편도 소요시간

() 분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43.2.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3.3. [복지시설 비이용 이유]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②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③ 바빠서
④ 돈이 없다
⑤ 기타(무엇 :)

4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동)의 전반적인 복지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파악 및 제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5.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② 농업의 미래 보호
③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④ 농촌 교육
⑤ 주택의 보급 및 개량 ⑥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⑦ 농촌주민 건강 증진 ⑧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⑨ 농촌 보건의료 정책 ⑩ 기타 (무엇:)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